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도 준비하기



청소년활동 조직하기



우리 일은 우리 손으로
활동계획 세우기
분과별 모임갖기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I

「원숭이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되 입을 좁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가고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그 자루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실을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원숭이가 나타납니다.

녀석은 자루 속을 들여다보곤 ‘웬 떡이냐’며 희희낙락합니다.

그리고는 ‘얼씨구나’하고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과실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의 손은 자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과실을 쥐고 있으니까요.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 가죽자루,

그 가죽자루 속에 붙들려 있는 원숭이의 손.

가장 간단한 이치를 가련한 원숭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손 안에 쥐 먹이를 놓아버리면 될 것을.

그러면 저 자유의 숲을 다시 누빌 수 있으련만.

원숭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원숭이의 욕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손에 쥐고서 놓지를 못합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끝장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료 : 정채봉, 1994.

☞ 불행을 부른 원숭이의 욕심....., 당신은 어떻습니까?

활동 1 우리 일은 우리 손으로

활동개요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기획, 준비, 실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준비된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주체성을 기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대화 및 갈등 해결 방법과 자치능력을 기를 수 있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고, 대표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활동목표

- 1) 모임의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안다.
-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운다.

준비사항

게시판, 선거 공고문, 선거인 명부,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홍보물(후보자 소개, 선거 공약 등), 선거유세장(연단, 의자, 마이크 시설), 기표소, 투표함, 투표용지, 붓대롱, 인주, 천막(기표소 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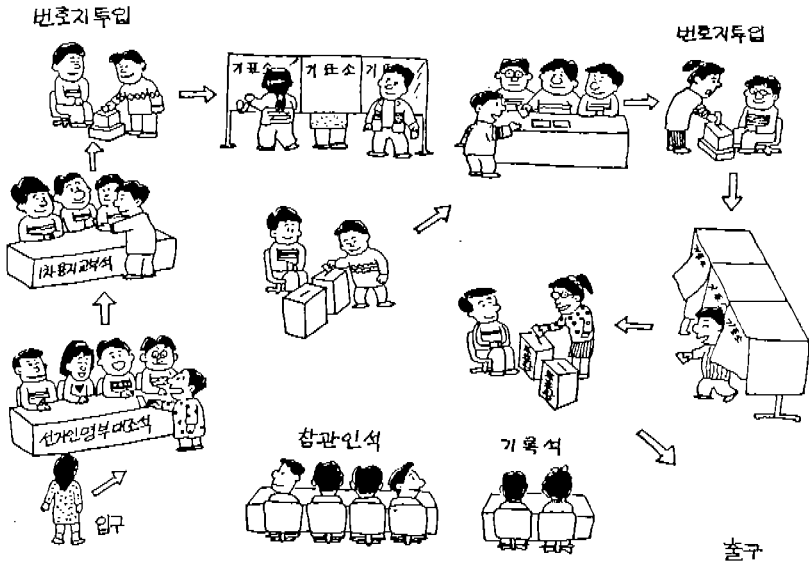
활동개요

- 1) 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기간, 입후보 자격, 입후보 방법, 합동유세, 선거일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낸다.
- 2)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한다.(5인 정도)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 그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투표지 작성, 나누어주기, 개표, 집계 등의 선거 업무와 부정 선거의 감시 역할을 한다.
 - 사전 준비 :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붓대롱, 인주
 -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과 확인자 사인이 들어가도록 한다. 확인자 역할은 지도자에게 외뢰한다.
- 3) 후보자는 청소년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 추천인 수는 전체 인원수에 따라 조절한다.
 - 후보자 구성은 회장, 부회장이 따로 등록하여 투표 결과에 따라 회장, 부회장이 되는 경우와 회장, 부회장이 한 조가 되어 후보등록을 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 후보자는 등록순서, 가나다순 또는 추첨으로 기호를 정한다.
- 4) 선거운동원을 모은다.

후보자는 자신을 도와줄 지지자들을 모아 홍보활동을 준비한다. 구호, 노래와 율동 등 후보자의 의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 5) 각 후보자는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연설과 유세를 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
- 6) 후보자는 소견을 발표한다.<참고자료 2>
 - 선거유세장을 마련한다.(연단, 마이크, 의자 등)
 - 후보자는 자기소개와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소견을 발표한다. 찬조연설자가 있을 경우 찬조연설을 듣는다.

7) 투표하기

- 선관위원이 기표 요령을 설명한다.
- 투표자는 선거인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다.
- 투표용지를 받는다.
- 투표용지에 붙은 번호표를 떼어 준비된 상자에 넣는다.
- 투표소에 들어가 지지하는 후보자에 표시를 한다.
- 투표함에 넣는다.



8) 선관위원이 개표하고, 개표 결과를 칠판에 기록한다.

- 회장, 부회장이 한 조가 되어 등록한 경우 : 표를 많이 얻은 팀이 당선된다.
- 회장, 부회장이 따로 등록한 경우 : 총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위원장, 차점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표를 많이 얻은 두 사람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다.

9) 당선된 사람들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10) 당선된 위원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 집행부 구성의 예 : 정책기획부(사업 기획, 총괄)/생활부(자율적 생활문화 형성, 규칙 지키기)/홍보부(청소년들의 의견 수

럼, 사업 공개와 홍보 : 유인물, 게시판 대자보, 신문 이용)/복지부(청소년들의 복지와 권익 담당)/문화부(문화, 예술, 건강 관련 담당) 등

유의사항

- 1) 선거일정과 방법을 장소, 시설, 인원 등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한다. 상황에 따라 활동을 축소 또는 확장한다.
- 2) 후보자, 선관위, 선거운동원,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청소년들이 편중되지 않고 분과별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게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선거자료

1) 공고문안

공 고 다음과 같이 19 ○○ 년도 청소년회 선거 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① 일 정 ○ 19○○년 ○○월 ○○일 ~ ○○월 ○○일 ② 입후보 등록 ○ 등록기간 : 19 ○○년 ○○월 ○○일 ~ ○○월 ○○일 ○ 자 격 - 회 장 : 수련활동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 - 부회장 : " ○ 입후보 방법 수련활동 중인 청소년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추천자 명단과 본인의 약력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단, 추천자는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음) ③ 합동유세 : 19 ○○년 ○○월 ○○일(운동장, 우천시 강당) ④ 선 거 일 : 19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회

2) 선거인 명부

일련 번호	분 과	성 명	투표 용지 수령 확인

3) 후보자 추천서

1. 후보자 성명

2. 생년월일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일련번호	분과	성명	날인	일련번호	분과	성명	날인

4) 후보자 등록신청서

1. 분과

2. 성명

3. 주소

4. 성별

5. 생년월일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후보자) ○○○ (인)

5) 투표용지

No _____ 19__년도 선거관리위원회		19__년도 선거 투표용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선거관리위원장</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확 인 (인)</td> </tr> <tr> <td style="height: 80px;"></td> <td style="height: 80px;"></td> </tr> </table>	선거관리위원장	확 인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 padding: 5px;">/</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1</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2</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3</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4</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5</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6</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7</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8</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9</td> <td style="width: 5%; padding: 5px;">10</td> </tr> <tr> <td style="padding: 5px;">이 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기 표</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1	2	3	4	5	6	7	8	9	10	이 름											기 표										
선거관리위원장	확 인 (인)																																														
/	1	2	3	4	5	6	7	8	9	10																																					
이 름																																															
기 표																																															

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90 ; 정재현, 1990

〈참고자료 2〉 선거 공약의 예

① 주체적인 활동을 위해

-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체 토론의 장 마련
- 분과활동 지원
- 주인되기 운동 전개

② 복지 향상을 위하여

- 식당의 위생 점검 및 질 향상 건의
- 매점, 자판기 가격 혜택
- 양호실, 휴식공간 조성

③ 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풍토 조성
- 청소년들의 참여를 우선시하는 체계

④ 민주적 대표조직이 되기 위하여

- 건의함 설치, 관리부 마련
- 게시판에 소리터 설치

⑤ 기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제안을 해본다.

- 남여 분파로 나뉜 경우 분파별 미팅 행사
- 밥을 많이 주세요!
- 간식 횟수를 늘려주세요!

- 활동 기간 중 청소년우체국 열기(사랑의 우편함, 청소년 우편 배달부)
- 활동 기간 중 깜짝 축제 개최
- 활동이 끝난 후 후속모임 추진 등.

활동 2 활동계획 세우기

활동개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개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짜고 준비 및 실행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 스스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문제해결 능력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본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회의과정을 통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가지 결정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익히도록 한다.

활동목표

- 1) 앞으로 진행할 활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 2)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경험한다.
- 3) 공식적인 회의방법을 익힌다.

준비사항

필기도구, 회의록, 사회봉

참석자 : 회장, 부회장, 집행부, 각 분과장, 서기

활동방법

- 1) 의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 2) 분위기를 정리할 수 있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 3) 서기는 지난 시간의 회의록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한다.
- 4) 지난 시간의 결정 사항에 대해 실천 결과를 반성한다.
- 5) 각 부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발표한다.
- 6) 토의할 안건을 제안한다.
 - 전체 활동의 목적과 내용 공유하기
 - 단위활동마다 구체적인 준비사항 및 세부내용 공유
〈참고자료 4〉
 - 참가자와 운영위원회 사이와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의 연락체계와 의사소통방법을 결정한다.
 - 회의시간, 장소, 원칙 정하기(예 : 매일 저녁 취침 전 15분 정도 평가회의. 매일 아침 식사 전 10분씩 짤막 회의 등)
- 7) 제안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한다.
- 8) 의제를 채택한다.
- 9) 자유 토론 과정을 통해 결정 사항과 실천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 10) 기타 토의할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 11) 의장은 본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발표한다.
- 12) 활동가를 함께 부른다.
- 13)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유의사항

- 1)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실행 과정, 문제해결 과정에서 얻어지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자치능력을 신뢰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한다.
- 2) 본 회의형식을 계획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활동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결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인

로 실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회의과정과 친숙해 지도록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회의 방법

1) 회의에 쓰이는 낱말 풀이

① 처음의견(본동의) : 처음 제안한 의견

② 바편의견(수정동의) : ‘처음의견’을 받아들여 이야기할 때, ‘처음의견’의 일부를 바꿔서 낸 의견이다. ‘바편 의견’은 그 바편 차례에 따라 ‘첫번째 바편의견’(개외, 1차수정) ‘두번째 바편의견’이라 부른다.

③ 다른의견(임시동의) : 어떤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온 전혀 다른의견이다. 회의를 집중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 권한으로 ‘다른의견’의 경우를 먼저 처리한다. 단 ‘우선의견’과 같이 나왔을 때 ‘우선의견’을 먼저 처리한다.

④ 의사진행 발언 : 회의 차례나 규칙과 관계된 것 등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그 밖의 의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처리한다.

⑤ 우선의견(긴급동의) :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한 주제 이외의 것으로 긴급하게 의제로 삼고자 하는 의견을 우선으로 처리한다.

2) 의견처리 순서

① 의견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우선의견(긴급동의), 다른의견(임시동의), 바편의견(수정동의), 처음의견(본동의)의 차례로 처리한다.

② 투표로 처리할 경우 가장 나중에 나온 의견을 먼저 처리한다. 두번째 바편의견(재개외) → 첫번째 바편의견(개외) → 처음의견(본동의).

3) 회의 때 말하는 방법

의견(동의)이 나오면 보통 그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이 있을 때 비로소 회의에서 다룬다.

① 회의에 의견을 낼 때는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으나 ‘-했으면 합니다’ 식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의

장이 ‘처음의견’(본동의) 등으로 말하기 보다는 ‘-을 하자는 의견’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

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사람의 찬성(재청)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찬성합니다(재청합니다)’로 말한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아주 다듬어진 회의가 아닐 경우는 의견찬성(재청)을 꼭 요구하기보다는 내용에 따라 의장의 재량에 의해 하나의 의견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토론과정

① 토론의 순서

제안자의 제안 이유 설명 → 참가자들의 질의 → 찬반을 가리는 토론

② 발언시의 주의사항

-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는다. 다른 참가자가 발언중일 때에는 발언하지 않는다.
- 제한을 지킨다(일반적으로 한 참석자가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 의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하나의 의견으로서 존중한다.
- ② 발언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크게 말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
- ③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참가하여, 서로 믿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쓰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 ⑤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일단 결정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기꺼이 이에 승복하고, 또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 ⑥ 모든 회원이 회의진행 규칙을 잘 지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참고자료 2〉 회의의 실제

1. 개회사

사회 : 지금부터 제○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사회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전 회의록 낭독

회장 : 총무 ○○군은 지난 회의록을 요약해서 낭독해 주십시오.

총무 : (생략)

4. 전주 의제의 실천 결과 반성

의장 : 그러면 지난 달의 협의된 문제에 대한 실천 결과를 반성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 거수)

회장 : ○○군 발표해 주십시오.

○○○ : 저는 잘 실천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달에 협의되었던 동네 환경 가꾸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적극 호응하여 동네를 각자의 집안처럼 잘 가꾸고 단장을 한 결과 그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회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 (생략, 보충 발언 또는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함)

회장 : 이상 여러 회원들의 반성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번의 협의 주제는 잘 실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각부 반성 및 계획 발표

회장 : 다음은 각 부서별 반성 및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부 : 생활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운동 시간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잘 지켜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각 부마다 위와 같이 보고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부는 생략해도 된다.)

6. 의제 제안

회장 : 총무는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모두 3개의 의제가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회의에 제안된 의제는 익회군이 제안한 우편함 만들기, 영태군이 제안한 ‘아침청소하기’가 선정되어 제안합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토의하여 좋은 의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 설명 및 질의

회장: 의제를 제안해 주신 익회군과 영태군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의제 채택

회장: 두 사람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수로 의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태군의 의제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익회군의 의제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회장: 익회군이 제안한 우편함 만들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의제는 ‘우편함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회장 거수 확인, 회장 확인 후 발표〉

〈사회봉을 세 번 쳐 결정을 알린다.〉

9. 실천방법 협의

〈협의내용을 정한다〉

〈부회장 거수확인, 회장 확인후 발표〉

〈사회봉을 세 번 쳐 결정을 알린다〉

10.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회장: 기타 토의할 문제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휴게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를 잘 했으면 합니다.

광진: 우리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게시판 백지란에 장난낙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제하도록 합니다.

길자: 전체토론 시간에 마이크 시설이 잘 안되어 불편이 많습니다. 빨리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본 회의록 낭독

부회장: 그러면 오늘 회의의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기: (생략)

12. 모임노래 부르기

13. 폐회사

사회: 이것으로 제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3〉 회의록

제 회	회 의 명		
회의 일시	회의장소		
회의 재적수	:명	참석 인원	:명 불참인원 :명
회의 주제와 토의 안건			
토 의 사 항			
기타 토의사항		건의사항	
사 회 자		기 록 자	
○○○ 청소년회			

〈참고자료 4〉 활동 준비사항 점검표 (예)

구 분	주요업무	세 부 계 획	준비상황	분담책임자	기타사항
홍 보	현수막	현수막 제작	7/23 완료	이 미 경	부착장소
	및 각종 부착물	부착물 제작 (분과별 장소 안내)	7/24 완료	○ ○ ○	
	포스터	포스터 제작			
	제 작	포스터 부착			
설 외	강사섭외	외부 전문가 내부 선정			
	봉사요원 모 집	시설배치, 행사장 안내, 각 준비물 이동, 사진 촬영 등 담당			
행 사 내 용	토론장	분과별 좌석배치			
	준 비	기자재 준비			
	진행관계	사회자 선정			
		소도구, 준비물품 관리			
○○○	○○○				
	○○○				

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90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1988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b.

활동 3 분과별 모임가기

활동개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을 할 경우는 인원을 소규모로 나누어 소집단별로 자체 모임을 갖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을 진행시킬 수 있다. 앞으로 함께 생활하게 될 분과원들끼리 서로 소개하고 여러가지 심성계발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놀이를 통해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앞으로 분과를 대표하여 일해 나갈 분과장을 선출하고 그 외 여러가지 필요한 역할책임자를 정한다. 생활 속에서 지켜야할 규칙과 벌칙 등도 정함으로써 전체 활동의 기본 토대가 되는 분과모임이 조화롭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활동목표

- 1)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직의 대표와 역할책임자를 선출한다.
- 2) 분과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준비사항

분과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장소, 필기도구, 색칠할 수 있는 필기 도구(크레용, 싸인펜, 매직 등), 큰 도화지, 색지

활동방법

- 1) 임시의장을 선정하여 분과장 선출회의를 진행한다.
후보자는 자원을 받거나 추천을 받고 후보자가 많은 경우 소견 발표 후 투표를 한다.
- 2) 선출된 분과장이 인사말을 한다.
- 3) 분과 이름과 분과 노래, 율동, 구호 등을 정한다. 참신하고 분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이름으로 정한다.
- 4) 선출된 분과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기본적인 분과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 필요한 역할책임자 선정 : 생활부장, 취사부장, 청소부장, 친교부장 등
 - 생활수칙, 보상이나 벌칙 정하기 <참고자료 1>
- 5) 결정된 사항을 큰 종이에 정리해서 벽에 붙여 놓는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멋있고 개성있게 꾸며본다.
- 6) 적절한 시간에 친교부장의 진행하에 노래, 게임 등을 통해 서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참고자료 2>
- 7) 사회자는 결정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준다.

유의사항

- 1) 성공적인 분과활동이 성공적인 전체활동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분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다.
- 2) 지도자는 청소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생활 속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쌓게 한다.
- 3) 날마다 하루를 평가하고 다음 활동을 안내하는 분과모임을 갖는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분과 생활수칙과 벌칙 정하기

- 1) 일상 생활수칙의 예

-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씩씩하게 임한다.
- 자신이 맡은 일은(청소, 식사 당번 등) 책임있게 한다.
- 같은 분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의 단점은 애정을 갖고 충고하여 준다.
-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진실된 대화를 나눈다.
- 단체행동에 개인적인 일로 패를 끼치지 않는다.
- 담당 지도자와 열린 대화를 나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꼭 지도자에게 알리고 의논한다.
- 식사는 거르지 않고 골고루 맛있게 먹는다.
-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꼭 따른다.
- 서로 이름을 익히기 위해 이름표를 꼭 달고 다닌다.
- 분과생활에서 불만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꼭 이야기한다.

2) 분과 특성을 살린 생활수칙의 예(환경분과의 경우)

「녹색 세계를 만드는 청소년 생활수칙」

- 멋내기 위해 스프레이와 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립니다.
- 친구들과 의논하여 헌 옷이나 참고서 등을 교환하는 알뜰시장을 개최합니다.
- 개인용 라디오(워크맨 등)를 사용할 때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 종이 휴지 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펜의 사용을 줄이고 볼펜심을 갈아 끼워 사용합니다. 일회용 펜 대신 만년필을 사용합니다.
- 재생공책을 선택하고 끝까지 다 씹니다.
- 자판기의 컵라면, 음료수를 사먹지 않습니다.
-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입니다.
- 친구들과 환경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읽고 토론해 봅니다.
- 친구들과 학교나 지역에서 환경통신원 활동이나 환경규찰대(또는 녹색규찰대) 활동을 펼쳐 봅니다.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모니터하고 모니터한 내용을 알리며, 개선해 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 봅니다. 생활주변의 낭비요인도 감시하고 환경실천을 실천수범합니다.

자료 : 대한 YMCA 연맹, 1993.

3) 벌칙의 예

- 분과친구들 안마해주기
- 설겅이 당번하기
-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반성과 다짐의 소리 3번 외치기
- 다른 분과에 가서 잘 하겠다는 다짐하고 증표 받아오기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 3가지 하고 저녁에 발표하기
- 재미있는 별명 지어주기
- 한 번 규칙을 어길 때마다 생활부장이 횡수를 기록하여 활동 마지막 날 평가시간에 최고 “말썹꾸러기”를 발표하고, “꾸러기”상을 수여한다. 반대로 가장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에게는 “멋장이” 상을 준다.

〈참고자료 2〉 분과원둘끼리 즐길 수 재미있는 공동체 놀이

1) 여러가지 자기소개 방법

- ① 몇 가지 소개할 내용을 제시해 주고 그에 따라 소개한다.
소개 내용 : 이름, 자신의 장·단점, 장래희망, 가족관계 등
- ② 풍선이나 도화지를 주고 그 위에다 자기 얼굴을 그리게 한다.
특징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그린 뒤 얼굴에 갖다 대고 소개한다. 소개할 때 쑥스러움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다.
- ③ 깨끗한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준다. 연필이나 가위 등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찢거나 접거나 구겨 자신을 표현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 주면서 그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
- ④ 누구 옆에 누구입니다.
‘누구 옆에 누구입니다’는 순서를 정하여 돌아가며 옆사람 이

름을 대고 자기 이름을 애기하는 것인데, 이름만 말하면 잘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별명과 곁들여서 한다. 만약 별명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동작을 같이 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다. 모두 끝난 후에는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외우도록 한다.

* 보 기 1

‘바둑이’ 이영수 입니다.→ ‘바둑이’ 이영수 옆에 ‘도깨비’ 최수철 입니다.→ ‘도깨비’ 최수철 옆에 ‘별명을 갖고 싶은’ 김선우 입니다.

* 보 기 2

“저는 노란 바지를 입고 별명이 내숭인 철수 옆에 앉아 있는, 안경을 쓰고 별명이 푼수인 순이 옆에 앉아 있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별명이 멋쟁이인 명수입니다”

⑤ 좋아 좋아

이름이 불렸을 때 “나도 좋아” 하면 부른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하고 “나는 싫어” 하면 싫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한다.

다함께: “좋아좋아” → 미선: “영희좋아” → 영희: “나도좋아” →
 다함께: “좋아좋아” → 미선: “윤미좋아” → 윤미: “나는싫어” →
 다함께: “그럼누구” → 윤미: “혜선이좋아” → 혜선: “나도좋아”...
 (모든 말을 위의 4박자 동작에 맞추어 한다)

“나도 좋아” 하는 경우가 세번이 넘지 않도록 하여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고, 이미 부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또 부르면 벌칙을 준다

⑥ 이름부르기 놀이

무릎을 한번 치고, 손뼉을 한번 치고, 오른손 엄지 올리고, 왼손 엄지 올리고, 이렇게 4박지 손동작을 하며 상대 이름을 부르는 놀이이다. 3박자와 4박자에 자기 이름을 외치고, 상대방 이름을 외친다. 틀릴 경우는 재미있는 벌칙이나 장기차량을 시킬 수도 있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름을 잘 아는 경우에는 이름대신 별명으로 하면 좋다.

⑦ 빙고 놀이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게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 16절지 종이를 16칸이 되도록 접는다.
- 시작 신호와 함께 16명의 친구를 찾아 다니면서 그 친구의 이름과 여러가지를 물어서 적는다. 물어볼 항목을 미리 정해 주어도 좋다.(항목의 보기 : 이름과 별명, 취미나 특기, 감명깊게 읽은 책, 존경하는 인물, 장래의 희망)
- 16칸을 다 채운 후에 한 명이 위의 항목을 이야기하고 한 학생을 부른다
- 이름 불린 학생이 나와 위의 항목대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가 쓴 이름 중에 그 학생이 있으면 ×표를 한다.
- 이름 불린 학생은 들어가기 전에 또다른 친구를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계속 지워 나간다.
-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네 명을 먼저 지운 사람이 이긴다.

2)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

① 내 인생의 아리랑 고개

제 1.4사분면의 좌표를 그린다. 가로축은 나이, 세로축은 행복의 정도(+)와 불행의 정도(-)를 표시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서 기쁘고 슬펐던 때와 그 정도를 좌표에 표시한다. 그리고 각 점마다 간단히 내용을 기록하고 그 점들을 나이 순서대로 선그래프로 연결하여 그 표를 보면서 설명한다.

② 옆 친구가 대신 소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친구에 대해 발견한 점을 이야기하여 친구를 서로 소개하거나 둘씩 짝을 지어 서로 자기소개를 한 다음 다함께 모여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기 짝의 소개를 해 준다.

③ 느낌 나누기

이 시간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느낌을 말하도록 한다. 생각이 아닌 느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예 : 두렵다, 무얼 할지 궁금하다, 오늘 하루종일 신이 났다 등)

④ 최근에 있었던 일 나누기

최근에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고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운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린 공간이 형성되도록 지도한다.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면 좋다.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하고 요즘의 자기 삶을 돌이켜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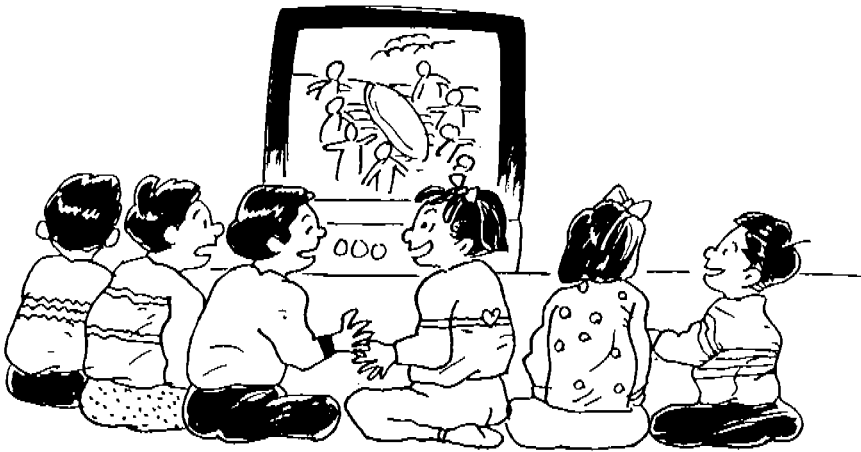
- 최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기뻐거나 슬펐거나 놀랐거나 화났던 일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
-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게 하거나, 두 명씩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자기 짝의 이야기를 대신 발표하도록 한다.

⑤ 별명(애칭) 짓기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친한 사람끼리 부르는 호칭이다. 좋은 별명은 자기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해 주고, 단점을 표현한 별명은 감춰진 열등감을 해소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꼬집어 별명을 짓거나 싫어하는데도 계속 별명을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별명을 소개하고 그 별명이 지어진 이유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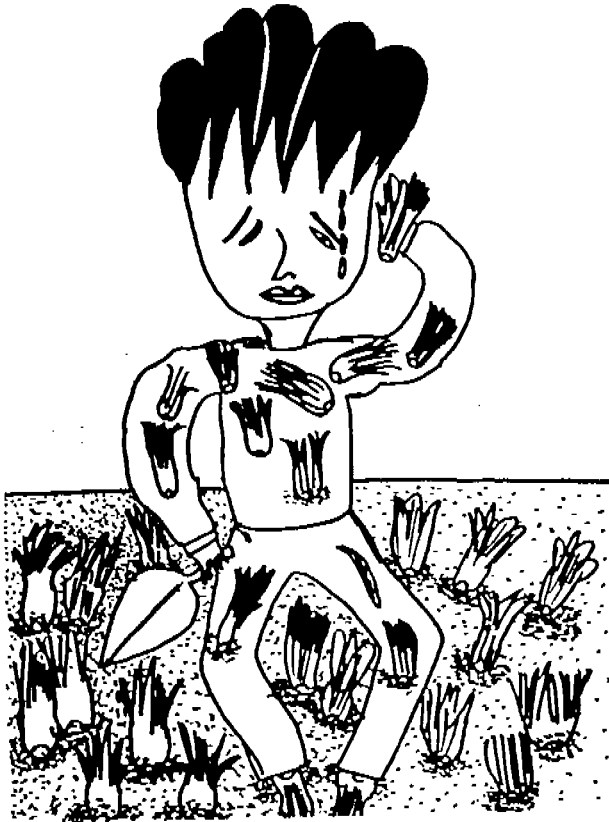
자료 : 연성수, 1990 ; 우리교육, 1992.

토론자질 기르기



토론기법 익히기
재미있는 이야기광장
자유발언대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Ⅱ



「배추」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배추가 팔리지 않아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사짓는 아저씨들의 모습을 보니 자기의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 배추같습니다.

(김현주 글·그림, 국교 6, 1993. 11. 30)

자료 : 이호철, 1995.

☞ 삶의 터전, 우리 농촌, 어떻게 살릴까요?

활동 4 토론기법 익히기

활동개요

보다 효과적인 토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여러가지 토론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토론목적 및 주제, 구성원의 수, 토론 장소, 시간 등 여건에 따라 적절한 토론기법을 선택·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토론 전문가가 강의식으로 토론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강의 이후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이 토론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활동목표

- 1) 토론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안다.
- 2) 여러가지 토론기법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한다.
- 3) 상황에 맞는 토론기법을 잘 선택하는 능력을 기른다.

준비사항

강사, 연단, 칠판, 분필, 강의에 필요한 기재, 참가자 전원 필기도구

활동방법

- 1) 강의를 맡을 강사를 선정한다.
- 2) 강의가 있는 당일 장소와 시설을 미리 준비한다.
: 연단, 의자 배치, 마이크, 칠판, 분필, 칠판닦이, 시청각 기재
- 3) 강사를 소개한다
- 4) 강사는 토론에 대해 강의를 한다. 강사는,
 - 강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에 대한 설명을 미리하여 개요를 이해하게 한다.
 - 강의를 할 때는 시청각 교구를 많이 활용한다.
 - 강의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듣는 사람에게 미리 나누어준다.
 - 강의 속도에 주의하고 생각할 여유를 주며 강의한다.
 - 흥미있는 회화체를 사용한다.
 - 적절한 때에 유머감각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
 - 관계되는 모든 설명과 계획은 주의깊게 준비한다.
 - 청소년들이 강의에 잘 따르고 있는가 잘 파악해가며 진행한다.
 - 수시로 토의를 삽입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 5) 청소년들은 강사의 강의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경청한다.
- 6)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중요한 내용은 필기한다.
- 7) 강의가 완전히 끝난 후 전체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의사항

- 1) 강사는 일방적인 강의 보다는 질문, 토의, 다양한 매체 사용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 2) 여건이 되면 청소년들이 토론기법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강의법

1) 강의법(lecture)

강의법은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지도방법으로서 지도자가 주

요 개념이나 원리와 같은 지식을 직접 언어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명의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

2) 강의법의 장·단점

① 강의법의 장점

-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한 강사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 사실적 정보를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다.
- 전달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통일성이 있다.
- 전체적인 전망을 주는데 유효한 방법이다.

② 강의법의 단점

- 학습자의 주의를 계속 집중시키기 어렵다.
-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어렵다.
-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
- 담당 강사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한다.

3)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강사의 자세

① 강사는 강의내용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강의를 한다. 강의실의 전면을 가로 세개, 세로 두개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청소년들에서 가까운 앞쪽 중앙이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고, 가운데 뒷쪽이 그 다음이며, 뒷쪽 양 가장자리는 가장 열악한 장소이다. 앞쪽 양끝의 경우는 학습자들의 위치에서 봤을 때 왼쪽이 오른쪽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소이다.

② 지도자가 완전 정면으로 청소년들을 마주 대하게 될 때 가장 강한 인상을 주게 된다. 3/4 전면은 그보다는 약간 약한 느낌을 주게 되고 옆모습은 훨씬 덜 인상적이다. 칠판을 지적하기 위하여 거의 돌아서는 1/4 전면은 가장 효율적인 자세이다.

③ 정지된 상태로부터의 움직임은 시선을 끌게 된다.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때 강의자가 서 있던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걸어 이동하면 효과적이다. 이 때 청소년들 가까이 강의실의 중앙

부위로 이동을 하면 주의를 끌 수 있으나 청소년들로부터 멀리
양쪽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관심이 흩어지게 된다.

- ④ 강의중 청소년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청소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강의를 한다. 천정이나 뒷벽 또는 칠판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등을 청소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4) 효과적인 강의 진행요령

- ① 강의는 대화를 하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강의자가 강의 노트를 너무 자주 들여다 보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의 노트를 그대로 읽거나 필기를 위해 불러주는 일도 삼가한다.
- ② 강의의 속도는 청소년들이 내용을 음미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정상적인 대화보다는 약간 느리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핵심이 되는 내용을 소개할 때는 속도를 다소 늦추어 강조하는 것이 좋다.
- ③ 어려운 단어,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전문용어는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설명해 준다. 명칭 등의 중요한 내용이나 요점은 목소리의 높낮이나 손짓에 변화를 주어 강조하고 칠판에 판서를 해준다.
- ④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결론이나 놀라운 그림 등을 이용하여 강의에 극적인 측면을 첨가한다. 다양한 보조매체를 이용하여 강의의 효과를 높인다.

5) 효과적인 판서 요령

- ① 판서는 간결하고 분명해야 하며 흘려쓰기보다 단정하게 쓴다. 일반 강의실에서는 글자의 크기(높이와 두께가 각각 5~6cm 정도, 0.5cm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글자가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수성용 펜으로 칠판에 가이드라인을 그어 두고 판서를 하면 좋다. 가끔 색분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자주 그리게 되는 도형이나 모양은 일단 두꺼운 종이에 그려

서 잘라내어 이 본을 칠판에 대고 본을 뜨면(형판법)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③ 판서해 놓은 글자가 강의실의 모든 위치에서 잘 읽을 수 있는지, 또는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반사는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반사가 심하면 칠판의 위치를 이동시키든지 커튼을 쳐 주어야 한다. 판서 후 강의자는 칠판 옆에 비켜서서 판서내용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

6) 흥미 유발과 주의 집중 요령

- ① 청소년들과 눈을 마주 본다. 강의자와 청소년 상호간의 활발한 의사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U자, V자, 및 O자 형의 좌석 배열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 ② 청소년들이 긴장을 풀고 강의에 임하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가끔 강의내용과 연관이 있는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좋다.
- ③ 청소년들의 반응이 지루하게 느낀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다음 주제로 옮겨가서 주의를 집중시킨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강의 상황을 머릿 속으로 그려보아 소리가 잘 전달되었는지, 속도는 적당했는지, 강조할 것은 충분히 강조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목소리나 제스처에 변화를 주며 청소년의 반응을 주목한다.
- ④ 타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버릇은 피한다. 강의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진다는지, 볼펜 누르는 소리를 내거나 이야기 도중에 “음”, “어” 등의 소리를 연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러한 행동들은 청소년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보다 이러한 버릇을 관찰하는 데 더 열중하게 만든다. 강의자는 자신의 강의장면을 비디오테잎에 녹화한 뒤 이를 검토해 봄으로써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버릇이나 강의 태도, 타이밍, 유머, 지도 활동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자료 : 박노열, 1992 ; 함병수 외, 1994a.

활동 5 재미있는 이야기 광장

활동개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다양한 말하기·듣기 및 자기표현 훈련과 자기주장 연습을 한다.

활동목표

- 1)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감있게 표현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잘 경청하는 태도를 기른다.
- 3)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준비사항

연설에 필요한 연단, 필기도구, 초시계, 관련자료, 성냥개비(과정 5), 마이크 상징물(과정 6), 고사준비물(과정 8), 도화지, 크레파스, 색싸인펜(과정 12)

활동방법

[과정 1] 귓속말 이어가기

상대방의 말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확히 전달하고 정확히 듣는 연습을 할 수 있다.

- 두 패 또는 여러 패로 나누어 사람들을 일렬로 선다.
- 맨 앞사람에게 한 문장을 보여주고 뒷사람에게 순서대로 귓속말을 통해 전달한다. 문장은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다)에 맞도록 작성하고, 그 내용은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한다.
- 맨 마지막 사람까지 전달이 되었으면 앞으로 나오게 하여 큰 소리로 말한다.
- 원래 문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 알아본다.
- 사람들이 빠뜨린 내용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왜 빠뜨렸는지 평가한다.



[과정 2] 맞장구치기 연습

올바른 대화와 토론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연습을 통해 올바른 청취력을 기른다.

- 두 명씩조를 짜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장소에 앉는다.
- A가 특정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면 B는 그 말을 중단시키거나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가끔 적극적인 제안을 한다.
- 교대로 그 역할을 바꾸어 실행한다.

□ 연습의 실례

꽃님이 :바람돌아, 어제 모임 너무 짜증났어. 꼭 돛대기시장 같더라.

바람돌이 :되게 지루했었구나.

꽃님이 :그래. 계속 여기저기에서 떠들어대고. 그것도 그저그런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하는거야.

바람돌이 :거기에서는 누구라도 다 그렇게 느꼈을 거야.

꽃님이 :글쎄, 도움되는 얘기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았어.

바람돌이 :너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

꽃님이 :그래. 곧 있을 야유회에 대해 근사한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말할 기회도 없었다니까.

바람돌이 :틀림없이 좋은 의견이었을텐데. 너도 발언을 해보지 그랬어? 너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

꽃님이 :그래. 내 제안을 내놓으면 모두 놀래 자빠질걸. 다음 모임때 꼭 이야기해야겠어.

바람돌이 :그럼. 그래야 하고말고.

(결국 바람돌이는 선블리 꽃님이 생각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직접적인 행동대책을 제시하지 않고도 꽃님이가 모임에서 탈

되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리는데 공헌한 셈이다.)

[과정3] 나는 잘난인이다!!!

수줍음과 소극성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기르고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훈련과정이다.

- 준비활동 :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입을 짹짹 벌리면서 준비운동을 한다. 스스로에게 자신은 똑똑하고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함성모으기 : 팀을 나누어 아주 작은 소리로 “야!” 하며 번갈아 외치다가 점점 크게 “야!”하고 외친다. 마지막에는 모두의 힘을 모아 “야!”하는 함성을 외친다.
- 숫자 외치기 :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입을 크게 벌린 후,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삼만삼천삼백삼십삼”을 크게 외친다.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하거나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삼만삼천삼백삼십사”, “삼만삼천삼백삼십오”..... 의 식으로 점점 숫자를 빠르게 외친다.
- 자기 암시하기 :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상(像)을 문장으로 크게 외친다. “나는 잘난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까짓것 문제없다.”, “그래, 깡다구다.”
- 5초간 함성지르기 : 5초 동안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온갖 잡념을 다 털어버리는 기분으로 “악!” 함성을 외친다.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어느 쪽이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지 시합해 본다.
- 미운사람에게 욕하기 : 평소에 자신이 싫어하거나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큰소리로 다 내뿜어본다. 억울했던 상황, 힘이 없어 무작정 당했던 상황 등 쌓인 마음을 소리를 지름으로써 풀어본다. 이 때 제기된 욕설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중에 문제삼지 않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야한다.
- 거리의 연설가 : 어느 정도 자신감 훈련이 되었을 때, 한 단계

더 높여 거리에 나가 자신의 주장을 발표해보는 것이다. 간단한 상황설명과 자기 소개 후에 3~5분 정도의 주장 발표를 해본다. 5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 미리 적당한 장소를 사전답사하여 장소를 정해 놓는다.

[과정 4] 장사 흥내내기

- 모둠별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장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가지 장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 모둠별로 대표 3~4인을 뽑는다.
- 한 명은 장사 흥내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 시장관을 벌인다. 모듬별 대표자들은 큰소리로 각자 맡은 장사를 시작한다.(예 : 옷장수, 과일장수, 뱀장수, 떡장수, 야채장수 등.)

장수 : “지금 막 동해바다에서 건져올린 오징어요”, “참싸~알떠~억”, “여기 최진실이 어제 사간 양말이 있어요”
 바람잡이 : “아구, 이거 되게 싸네”, “어제 그 백화점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 값은 더 싸네”, “고깃 참 싱싱허네”, “아저씨, 이건 얼마요?”

- 가장 큰소리로 재미있게 잘 한 모듬을 뽑아서 적절한 상을 준다.
- * 될 수 있으면 모듬에서 가장 수줍음을 타는 사람을 선정해서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수줍음을 극복하고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기회를 준다.

[과정 5] 말문트기연습

대화나 토론시간에 자주 침묵을 지키거나 참여에 소극적인 청소년들에게 발언기회를 많이 주고 말문을 트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소그룹토론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 토론을 시작할 때 성냥개비 등을 5~10개씩 구성원에게 나누어준다.
-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성냥개비를 사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성냥개비 하나에 한 번의 발언기회가 주어진다.
- 토론이 끝나도록 성냥개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냥개비 1개 당 적절한 벌칙을 준다. 성냥개비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토론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과정 6] 마이크를 잡아라!

토론과정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독점할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금지시키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 마이크를 상징하는 물건을 정해 놓는다.(빗자루, 곰인형, 손가락, 음료수병 등 재미있는 것으로 정한다)
- 마이크(상징물)를 인수받은 사람만 발언할 수 있음을 알린다.
-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한 번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10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시간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마이크를 뺏을 수 있다.
- 발언순서는 현재 발언자가 다음 발언자를 자유롭게 지정한다.

[과정 7] 즉흥연설

어떤 주제에 대해 즉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을 내려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평소에 여러가지 매체(책, TV, 비디오 등)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생활 속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 여러가지 주제어를 준비하여 놓는다. 참가자들이 모두 한 가지

씩 재미있는 주제를 적어 내어 함에 넣는다.

- 발표자는 함에서 한 가지 주제를 뽑는다.
- 자신이 뽑은 주제에 대해 약 60초 동안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 자신의 차례에 정해진 시간 안에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핵심에서 벗어나는 연설을 하게 되면 감점이다.
- 발표가 끝난 뒤 갑자기 제시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평가해 보고 다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재미있는 주제어 : 내가 만일 대통령(시장, 구청장, 면장 등)이 된다면, 나의 이성친구, 이 세상에 종이 없어진다면,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생긴다면,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나왔는데 돈이 없을 때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동물, 내가 앞으로 3일 밖에 못산다면 등

* 게임 형식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실행할 수도 있다.

[과정 8] 고사지내기

□ 준비사항

상, 초, 쫄대, 향불, 간단한 음식, 음료, 컵, 종이, 필기도구, 크레파스, 풀, 가위, 접착테이프 등

□ 활동내용

여러가지 발표력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떨쳐버리고 자신감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가진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사에 임한다.

- 간단한 음식과 음료수로 제사상을 차린다. 준비하기 힘든 음식은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 준비한다.
- 분과별로 분과 이름, 구호, 노래, 상징물을 쓴 종이에 그리고 적은 후, 각자 하고 싶은 말이나 그림을 그려 넣는다.
- 그린 그림을 벽에 붙이거나 고사상 위에 올려놓는다.



- 한 분과씩 나와 음료를 따라서 향불 위에서 2번 반을 돌리고 상위에 올린 후 다같이 절을 한다.
- 절을 2번 반 한 후, 분과별로 분과 노래와 구호를 하고 대표자가 종이에 쓴 내용을 차례로 설명한다.
-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자기가 쓴 글이나 그림은 자신이 설명한다.
- 발표가 끝나면 모두 함께 절을 하고 진행자가 모두의 다짐을 다지는 내용의 고사문을 낭독한다.
- 고사가 끝나면 서로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른다.
- 음식과 음료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

□ 보충사항

- 고사는 전체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지낼 수도 있고 분과별로 소규모로 지내도 좋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 인원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각 개인별로 소원을 적은 종으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고사장을 향해

날린다.

- 고사문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산해야 할 점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소원 등을 재미있고도 진지하게 작성한다.
- (* 물러갈 귀신 : 쑥쓰럼 귀신, 수줍음 귀신, 말더듬이 귀신, 형설수설 귀신 등 / * 불러올 귀신 : 깡다귀 귀신, 배짱 귀신, 말술술이 귀신, 귀곤 귀신, 넓은 바다마음 귀신, 논리쑥쑥 귀신, 똑똑이 판결 귀신 등)

[과정 9] 의견모아 사행시 짓기

- 적당한 인원으로 모둠을 나눈다.
 - 진행자가 각 모듬의 한 사람에게만 4자로 된 단어나 문장을 보여준다.(예 : ‘파란하늘’, ‘사랑해요’ 등)
 - 문장을 본 사람은 몸짓으로 자기가 본 문장을 설명한다.
 - 모듬원들은 그 몸짓을 보고 문장을 알아맞춘다.
 - 모듬별 토의과정을 거쳐 맞춘 글자로 사행시를 짓는다.
 - 사행시를 모듬별로 발표한다.
- * 토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과정 10] 솔로몬의 지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 속의 재미있는 상황과 주제에 대해 간단한 집단토의를 벌임으로써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대화와 토의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시 :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기, 인구 폭발 억제 방법,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 방법, 오후 세 시간을 가장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화가 날 때 빨리 푸는 방법, 한푼도 쓰지 않고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들이지 않고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 울고 있는 아이를 웃길 수 있는 방법, 멋진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

법, 잠을 빨리 드는 방법, 졸릴 때 효과적으로 잠깨는 방법 등.

[과정 11] 이마를 맞대고 노가바

친구들끼리 일정한 주제를 정해 토론을 거친 후 그 내용으로 기존에 나와있는 노래를 가지고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를 한다. 노래 가사를 지을 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며 가장 나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민주적인 토의분위기를 만듦으로써 창조적이고 참신한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들이 만든 노래 예시

「오직 하나뿐인 지구(‘오직 하나뿐인 그대’)」

프레온 가스로 뿜뿜린 하늘 / 지구는 조금씩 열 받는데

뿜뿜린 하늘을 바라다 보면 / 심각한 환경이 생각나

초록빛 자연은 죽어만 가는데 / 우리는 이렇게 태연하네.

지구여 그 자연 속에 이대로 우릴 담아둘 수 없는가

지구여 이 아름다운 우주에 오직 하나뿐인 지구 / 하나뿐인 지구

자료 : 인천도덕교사모임, 1994.

[과정 12] 말하기 일등! 그림은 더 일등!!

여러가지 토론과정을 마친 후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다. 토론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고, 청소년들의 흥미도를 높여주며, 협동정신도 길러줄 수 있다. 토론활동 후 토론 결과를 도화지에 표현할 때는 그림실력에 관계없이 집단창작에 의미를 두고 전원 참석하여 그림을 그린다.

□ 참고사항

“바람직한 이상사회”에 대해 토론을 했을 경우 토론결과로 나온 여러가지 이상사회의 모습, 이상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일 등을 그림으로 그린다. (통일이 된 우리나라, 파소비가 없는 나라, 시험이 없는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사회, 부

정부패가 없는 사회, 웃음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 등)

[과정 13] 새옹지마법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역경과 순풍은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의 연습을 통해 이러한 상호연관을 파악해 보고 친구들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자기 생활에서 발생했던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나 다행스러운 경우 5가지와 가장 암담했고 쓰라린 불행의 처지나 역경의 나날을 5가지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본다.

「행 복」

- ① _____ ()
- ② _____ ()
- ③ _____ ()
- ④ _____ ()
- ⑤ _____ ()

「불 행」

- ① _____ ()
- ② _____ ()
- ③ _____ ()
- ④ _____ ()
- ⑤ _____ ()

- 그러한 경우에 가장 큰 책임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사건을 ()안에 간단히 기록한 후, 우선 행복이 불행으로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된 경우는 없었는지 생각해 본다.
- 행복과 불행에 자신의 책임은 하나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평가해 본다.
- 이러한 원인분석 및 책임규정에 내 친구들은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그 원인 및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 친구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아주 상이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함께 검토한다.

자료 : 송호범, 1983.

[과정 14] 짚막 반찬토론

생활 속에서 쉽게 느끼고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자유로운 논쟁을 벌여본다. 대립되는 의견들을 들으면서 서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고 자신이 알게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우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찬성과 반대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있으면 누구든 즉시 「짚막반찬토론」을 제안한다.
- 주제에 대해 논쟁을 시작한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다.
- 하나의 결론이 나기 힘들면 무리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 상황에 따라 다수결로 판결을 내려본다.

□ 참고사항

- 「짚막반찬토론」을 실행했을 때마다 토론수첩에 주제와 참가인원, 시간, 장소, 결론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활동이 끝날 때 발표한다.
- 가장 많이 토론을 했고 진지한 토론을 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 모든 상황 속에서 논쟁거리를 찾아본다
- 예 : 밥을 먹다가 “이 쌀을 수입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랑 길을 걷다가 “남녀 사이에 평생 친구가 가능할까?” 분과 안에서 “분과장의 지도방법이 너무 무른거 아니야? 자기가 맡은 청소도 안하고 빈둥대는 애들한테 그렇게 부탁

하듯 약하게 말하면 누가 듣겠니? 좀 강력하게 권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타 사회적인 이슈 : 과외금지, 남녀공학,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사형제도, 일본 문화 개방, 동성동본, 남북통일 등)

[과정 15] 3분 연설하기

-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3분 동안 연설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가 있기 전에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한다.
- 연설에 참여할 사람은 주제를 선정한 뒤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연설문을 구상한다.
- 거울이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발표연습을 한다.
- 발표 당일 전체 일정을 진행할 사회자를 선정한다.
- 각 참가자들은 3분 내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 발표가 끝난 뒤 전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주제에 대한 반론·찬성, 소감, 평가)
- 주제가 될 만한 내용 : 자기 생활 주변 이야기, 장래 희망, 독후감, 우리가 바라는 세상, 이성교제, 공해문제,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등.
- 발표의 평가 기준
 - 주장하는 내용이 바람직한 것인가?
 - 내용의 구성이 체계적이고 조리가 있는가?
 - 주장의 이유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가?
 - 정확한 발음과 올바른 태도로 말하는가?
 -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가?
 -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를 사용했는가?

[과정 16] 집단 연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규칙

을 활용한 발표력 훈련을 한다. 이 활동을 잘 활용하면 많은 군중과 연설자가 말을 주고 받으며 지루하지 않게 연설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진행자가 오른손을 들면 전부 박수를 치게 하고, 왼손을 들면 ‘옹소’를 외치게 한다. 그리고 양손을 다 들면 ‘옹소’와 박수를 동시에 하게 한다.

이 때, 연설자가 직접 자기의 손을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으나, 연설자 좌우로 사람을 세워 오른쪽 사람이 손을 들면 ‘옹소’를 외치고 왼쪽 사람이 손을 들면 박수를 치게 할 수도 있다.

- 이러한 규칙을 설명한 뒤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자기 주장을 하게 한다.
- 연설자는 ‘옹소’와 박수에 대한 규칙을 잘 활용하여 청중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연설을 할 때 막히거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 때 손을 들어 ‘옹소’와 ‘박수’를 치게 한다.
- 참여자들끼리 역할분담하여 연설자, 구호조, 노래조 등으로 나누어 발표하게 해도 좋다.
- 이야기할 주제는 연설자가 나름대로 정해도 좋고 모두가 합의하여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놓아도 된다.

[과정 17] 모의 기자회견

모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조리있고 설득력있게 다른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능력을 기른다.

- 참여자들은 진행자와 꼭 발표해야할 “기본항목” 3~4가지 정도를 정한다.
-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본항목”에 따른 회견발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자가 되어 회견발표 이후에 질문을 던지고, 회견자는 이에 답변한다.
- 모든 사람들은 회견 전에 “기본항목”에 관한 내용을 작성, 숙지해 놓고 있다가 10분 후에 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보충사항

■ 발표할 기본항목

자기소개(이름, 나이, 출생, 가족사항, 성장과정 등), 나는 왜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가, 내 생애에서 가장 기뻐던 일, 슬펐던 일 등

■ 발표할 때 요령

- 기자회견이 전국에 텔레비전 생중계 된다고 가정한다.
- 말을 더듬지 않고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한다.
- 회견 중 설득력있는 표정과 손짓 등을 적절히 구사한다.
-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발표한다.
- 어떠한 질문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변한다.

■ 기자들의 질문 요령

- 회견자가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한다.
- 회견자가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나 어려운 질문은 삼가한다.
- 모든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 활용하기

짧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개’ 부분만 실행해 보아도 된다. ‘자기 소개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정확히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유의사항

- 1) 각 활동에서 능력과 노력 정도에 따라 적절한 상품이나 보상으로 사례를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2) 특히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발표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그마한 발전에도 격려하고 칭찬해 주며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
- 3) 너무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활발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 4) 말하기 연습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한다.
 - 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적

절한 시기에 간단한 노래, 공동체 놀이 등을 실시하여 친숙한 만남을 유도한다.

- ②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메모, 자료검토)
- ③ 자신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말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
- ④ 말하기 연습은 전체 앞에서 하는 것보다 가능한 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⑤ 듣는 태도의 훈련(인내심, 호응법, 몸의 기울기 등 적극적 경청법)도 필요하다.<참고자료 3>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수줍음 진단하기

다음에 나열된 여러가지 수줍음의 심리와 반응상황 중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것을 V 표시해 보고, 그 정도에 따라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다.(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수록 수줍음이 많은 것이다.)

1) 수줍음의 심리

- ① 부정적으로 평가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 ② 배척당하거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 ③ 자신감이 부족하다.()
- ④ 개인적인 핸디캡이나 무능력에 대한 걱정이 있다.()
- ⑤ 아무하고나 쉽사리 사귀다가는 불행해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된다.()
- ⑥ 특별한 기술, 예를 들어 노래, 운동, 대화술, 사회법, 웅변술, 토론술 등에 대한 훈련이나 솜씨가 부족하다.()
- ⑦ 혼자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쩐지 좋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공연히 신경이 쓰일 정도로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 ⑧ 기타 _____

2) 수줍음의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 반응

- ① 얼굴이 붉어진다.()

- ② 숨이나 맥박이 빨라진다.()
- ③ 가슴이 두근거린다.()
- ④ 목소리가 떨린다.()
- ⑤ 입술이 탄다.()
- ⑥ 나른하다.()
- ⑦ 얼떨떨하다.()
- ⑧ 겁이 난다.()
- ⑨ 손이나 몸에서 땀이 난다.()
- ⑩ 기타 : _____

자료 : 송호범, 1983.

〈참고자료 2〉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

1) 목소리의 조절

- 정확한 표준어를 쓰고, 분명하게 발음한다.
- 말의 고저, 강약,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 가성이나 비음을 섞지 말고 자연스러운 음색이 나게 한다.
- 목소리의 크기는 내용과 말하는 이의 감정에 따라 다르며, 듣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 정도이어야 한다.

2) 발표할 때의 자세

- 복장 : 색깔, 모양이 요란하지 않은 단정한 복장
- 표정 : 대상과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표정
- 자세 : 너무 힘을 주지 않는 상태로 어깨를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거나 가볍게 연단을 짚는다. 다리는 두 발에 고루 체중을 걸고 약간(15cm정도) 벌린다.
- 움직임 : 주위 환기가 필요할 때 적당히 움직인다. 지나친 움직임은 피하는 편한 자세
- 몸놀림 : 내용상 필요할 때 머리(긍정, 부정, 의혹 표현)나 손(수·방향 표시, 주의 집중)을 절제해서 사용한다.

3) 말하는 요령

- 발표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 발표할 때는 허공을 쳐다보지 말고, 눈으로 전후좌우를 천천히 훑어 보면서 관중의 관심을 모은다.
- 말은 또박또박 천천히 하고, 순간순간에 관중이 웃는다 해도 말하는 사람은 웃지 말아야 한다.
- 청중의 반응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순서나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말한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료 : 박갑수, 1995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4.

〈참고자료 3〉 올바른 청취자세를 기르기 위해 주의할 사항

- ①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
- ② 아무리 장황하게 늘어놓더라도 말허리를 끊지 않는다. 실제로 지루할 정도로 두서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기 위한 자기정리를 자기 마음 속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 ③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만 할 뿐 아니라 정말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 및 증거를 보인다. 즉, “응”, “그래”, “그래서?”, “아!” 등 감정이 표시된 목소리라든가 진지한 자세 및 동작(끄덕거림) 등을 취한다.
- ④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되 명확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선불리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스스로 당시의 감정을 명확히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상대방이 표현한 언어보다 더 적합한 어휘는 없는가 생각해 본다.
- ⑥ 상대방이 말한 순서를 그대로 기억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개방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 ⑦ 정확히 못 알아들었을 때는 솔직하게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없니?” 또는 “그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때 어땠다고?” 등으로 다시 말하게 만든다.
- ⑧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표시한 감정을 가끔가다 자기 스스로

요약정리해서 다시 반복함으로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피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더 깊은 말을 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감정의 흐름과 말의 방향을 정리하도록 도와준다.

- ⑨ 가능한 한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도덕적인 비난과 배척은 절대 금물이다.
- ⑩ 이야기 도중에 그 증거를 대라고 강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꼬치꼬치 질문하지 않는다.
- ⑪ 중요한 문제일수록 자기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상대방의 말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단 그것은 미리 발언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 ⑫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걸”이라든가 “너라면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니?” 등으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자료 : 송호범, 1983.

활동 6 자유발언대

활동개요

청소년들이 단체 조직생활을 하게 될 경우는 조직 구성원들의 성향과 욕구, 필요한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 본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실과 사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토론활동을 경험해 본다.

활동목표

- 1) 조직생활에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갈등적인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간다.
- 3)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준비사항

필기도구, 연단, 마이크, 게시판, 백지 전지, 매직, 소리함이나 우편함을 대신할 물품(직접 제작해도 된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책, TV, 비디오, 그림, 신문, 잡지, 만화, 녹음기, 노래테이프 등), 필요한 시청각 기재

활동방법

[과정 1] 분과 재판하기

분과활동을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있게 진행하였으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가 하나하나의 항목을 돌려 판결을 내리면서 점점해 본다.

- 서로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되는 분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 분과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고 발표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는가
-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작은 희생을 큰 보람으로 여겼는가(자신이 맡은 청소 당번, 일일 당번 등을 책임감있게 수행했는가)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공동으로 졌는가
- 분과원들과 항상 화목하게 지냈는가(웃는 얼굴로 아침인사하기,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잡기, 겸손하고 성실하며 진솔하기)
- 모든 프로그램에 충실하고 열심히 참여했는가
- 모든 일은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는가(전체 회의나 분과회의 등을 잘 운영했는가, 생산적이며 대안있는 비판의식 갖기)
- 분과생활이 즐겁고 보람되도록 서로의 인격을 존중했는가(친구의견 존중하기, 친구의 재능 인정하기, 친구의 잠재력 발휘 위한 다양한 기회 부여)

☐ 유의사항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평가를 내리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토론을 해 본다.

[과정 2] 청문회

전체운영회에서, 그리고 분과 내에서 세웠던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켰고 또한 개인 스스로 계획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청문회를 열어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도록 한다.

□ 유의사항

-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성원 중에서 발의가 있을 때마다 간단히 시간을 마련해서 실행해 볼 수 있다.
- 지나치게 특정인을 지정하여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시에 너무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과정 3] 자유발언대

청소년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의 한 공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가장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자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자유발언대」라는 프랭카드와 연단, 마이크 등을 설치해 놓는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싶을 때,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연단에 올라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청중은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될 수도 있고 발표자를 지원해 주러 일부러 찾아온 친구일 수도 있다. 주장 발표 후 즉석에서 자유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 유의사항

- 특정한 형식이나 제재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칙은 정해 놓는다.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대, 한 주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자유토론 가능시간 등.

- 기록장을 준비해 놓아 발언을 할 때는 이름과 주제 등 간략한 사항을 기록하게 한다. 이용횟수 등 기본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가 된다.

[과정 4] 신문고



활동이 진행되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신문고를 설치해 놓는다. 큰 북을 준비하기 힘들면 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용품을 준비한다. (예 : 징, 팽과리, 종, 냄비뚜껑 두개, 냄비와 주걱, 자명종 시계 등) 활동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지도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청소년이든 신문고를 찾아와서 북을 세 번 울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신문고 소리가 울리면 해당 부서의 지도자는 빨리 뛰어와서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론을 찾아 볼 수도 있다.

[과정 5] 나눔터

토론활동이 반드시 음성을 통한 언어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고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지상(紙上)토론을 벌일 수도 있으며, 나중에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위한 주제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게시판에 커다란 백지를 붙이고 매직 등의 찢기도구를 준비해 놓는다. 청소년들이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쓰도록 한다.

□ 유의사항

-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상토론에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음을 인식한다. 즉, 자신과 다른 의견이 쓰여있다고 해서 정도를 벗어난 심한 말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 필요할 때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힐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OO 분과 OOO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6] 알림터, 소리함, 우편함

토론활동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게 하고 그것들을 모으고 조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조직생활에서는 지도부의 의견과 다양한 사업들을 완전히 공개하고 홍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해 본다.

■ 알림터

일정한 장소에 게시판을 만들고 수시로 사업을 홍보하고 진행상

황을 공개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림판과 일반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사항들을 알리는 판을 따로 구분하여 배치해 놓고 사용하게 한다. 옆에는 자유공간을 따로 지정하여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들이 오고갈 수 있게 한다.

■ 소리함

조그마한 상자를 이용하여 종이쪽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일반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을 주로 담는 함으로 지도부는 수시로 소리함에 모인 의견을 회수하고 메모를 읽고 필요한 내용들은 사업과정에 반영한다. 소리함의 이름도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것으로 붙인다.

■ 우편함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우편함을 설치한다. 우편함은 여러형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신인과 수신인이 될 수 있다.(지도자 ⇔ 지도자, 지도자 ⇔ 청소년, 청소년 ⇔ 청소년) 평소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고 답장을 기다린다. 관심이 있는 이성친구에게 보내는 고백편지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이 지도자에게 상담을 구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특정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서 편지를 보내본다.

□ 보충사항

- 소리함이나 우편함은 그 디자인을 예쁘고 친근감있게 잘 꾸며서 일반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름도 귀엽고 친근감있는 것으로 다시 정한다.(예: “우정을 저에게 담으세요!”, “사랑의 우편함”, “꿈동산”, “희망의 노래”, “견우와 직녀” 등)
- 우편함의 경우는 우편배달부를 맡을 청소년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를 구하여 편지 배달을 맡도록 한다. 우편배달부의 이름도 예쁘게 정한다. (예: “우정의 전사”, “오작교맨”, “사랑의 큐피드” 등)
- 가장 편지를 많이 받은 사람과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을 선정해

서 재미있는 상이나 격려를 해준다.

[과정 7] 생각의 샘, 기록장 만들기

평소 자신의 느낌과 생각, 무언가를 보고 듣고난 후의 감상, 친구나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토론내용 등 모든 자유로운 사고의 과정을 담을 수 있는 공책을 마련하여 자신의 기록으로 남긴다. 나중에 이 공책을 훑어 봄으로써 자신의 사고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공책은 너무 얇지 않은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예쁘게 꾸며 멋진 이름을 붙인다. (예 : 가을의 속삭임, 웅달샘, 지혜의 샘, 꼬마 철학자, 소중한 친구, 나와의 대화 등)
-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은 각자 편한 대로 한다. 그림을 그려 느낌을 표현하기, 좋은 글귀나 문장을 옮겨 적기, 귀여운 삽화를 그려 넣기 등 자유롭게 공책을 활용한다. <참고자료 1>
- 나름대로 독서계획, 비디오감상 계획, 글쓰기 계획 등이 있으면 공책의 맨 앞장에 계획표를 붙여놓고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한다.
-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이나 「청소년이 볼만한 비디오, 영화 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책에 부착해 놓는다.
- 친구들과 돌려보면서 느낌이나 도움말을 써준다.
- 활동의 마지막 시기에 전시회를 가져본다.

□ 참고사항

더 체계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접하는 매체에 따라 기록장의 형식을 달리한다.(독서기록장, 비디오감상공책 등)

[과정 8] 노래 듣고 이야기하기

우리나라 대중가요나 팝송 등을 함께 듣고 나서 그 노랫말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문제점을 찾아본다.
사랑, 이별, 인생, 여성, 교육, 핵, 환경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다.

□ 참고사항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 남녀사이의 사랑의 방식.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 우리나라 교육현실.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 현대 물질 문명 사회의 인간의 삶

[과정 9]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야기하기

텔레비전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체이다. 무조건 TV의 악영향을 우려하여 시청을 막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V 드라마, 쇼, 코미디 프로그램, 광고 등을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특히 광고의 경우, 성의 상품화, 퇴폐문화, 소비문화, 외래어 등 다양한 문제거리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토론의 주제로 적당하다. “TV 모니터 조사표”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좋다.

□ 토론자료의 예

-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차희의 사랑의 방식, 출세를 향한 인법의 태도
- 자동차 광고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매
- 「신인간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과정 10] 신문을 읽고 이야기하기

신문을 읽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사회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여러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여러가지 신문을 비교해 읽어보면 신문에 따라 특색이 있고 논조와 정치적 경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같은 문제에 대한 서로다른 해석을 보고 청

소년들은 한가지 사물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어떤 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 활용방법

- 전날 저녁신문이나 당일 아침신문을 읽고 한가지씩 이야기거리를 정해 발표하고 토론하기
- 각자 다른 신문 한가지씩 정해 그 신문의 머리기사와 사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어떤 기사가 머리기사에 실렸고 사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비교하기)

[과정 11] 책과 비디오로 세상 읽기

자신이 읽었던 책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책을 읽고난 소감, 느낌, 감명 깊었던 문구, 장면,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작가라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책에서 일관되게 담고 있는 저자의 인생관, 가치관은 어떠한가, 내 가치관으로 보면 어떤 점에 동의하고 어떤 점을 반대하는가, 책 속에 나타난 여러가지 인물의 성격, 인생관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벌여본다.

□ 보충사항

- 책 뿐만이 아니라 만화, 영화, 비디오, 연극, 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느낀 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청소년들에게 적당한 책, 영화, 비디오 소개를 해놓은 자료를 참고한다.〈부록 : 토론자료〉

[과정 12] 고민을 나누어요

□ 활동내용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음으로써 이야기의 주제로 삼는 것이다. 자신이 당면한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를 한가지씩 꺼내

놓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미대에 가서 멋진 화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법대에 가길 원하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오빠가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은 공부를 해야할 때라고 이성교제를 반대하신다. 실제로는 그 오빠를 만나면 오히려 적극적이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 보충사항

개인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정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동아리의 진영이가 자주 모임에 빠지고 달라진 것 같다. 들리는 말로는 가출을 하곤 한다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정 13] 햄릿 뛰어넘기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활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가지 도덕적인 갈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을 함으로써 토론능력도 기르고 도덕적인 가치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토론참여자들은 각자 갈등 사례를 한가지씩 만들어 온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가져온 갈등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 갈등 사례의 예

종태는 오늘 아침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 학교로 갔지만, 버스에서 내리니 2분 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학교는 버스 정류장 맞은편 길 건너에 있고 횡단 보도는 윗쪽에 있어 그 쪽으로 돌아가면 5분이나 걸려 지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따라 교통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차도로 뛰어가도 걸리지 않는다. 차도로 건너가자니 약간 위험하고, 횡단 보도로 돌아가자니 호랑이 선생님의 얼굴, 그리고 벌. 아! 아찔하다.....

이런 상황에서 종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 14] 예화를 듣고 이야기하기

생각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여러가지 예화를 준비하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감동을 주는 내용에서 새로운 신념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깊은 사색을 하게 하는 내용을 통해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기를 수 있으며,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의미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더욱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활용할만한 예화

- ① 가장 많이 쓰이는 이야기 형태의 예화 : 우화, 짧은 동화, 소설의 일부 내용, 주변의 재미있는 이야기 등.

〈참고자료〉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 I. 「원숭이들」 II. 「배추」 III. 「아버지」 IV. 「경쟁」
V. 「어린왕자」 VI. 「경비아저씨」 VII. 「강자와 약자」
VIII. 「텔레비전 귀신」

- ②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을 활용한 예화 : 시사적 내용, 최신 정보 등
③ 문학적 또는 음악적,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예화 : 감동적인 시 낭송, 노래 부르기, 역할극, 촌극, 심리 묘사극 등.

유의사항

- 1)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참여도록 한다.
- 2) 토의집단 구성원은 너무 많지 않도록 한다. 참가 인원이 많을 때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토론기록장

• 앞 면

날 짜		장 소	
사회자			
참가자	총 () 명		
토론 주제 :			
발제문 요약 :			
토 론 내 용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 관	찬 성
결 론 :			
도움말씀 :			
생각할 과제 :			

• 뒷 면

관 련 자 료	
신문 기사 스크랩	기 타 자 료
* 토론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 부착	* 도표, 인용문구, 통계 자료, 참고문헌 등
비 고 :	

자료 : 최형규, 1994.

지역사회문제 인식하기



지역사회 조사하기
지역문제 인식하기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Ⅲ

「아버지」

김영훈 (고1)

어느덧 해는 종천에 있었고,
아버지의 땀은 강물이었다.
문득, 허리 펴서 보시는 먼 산에는
아버지의 깊은 심정이 있었다.

먼 산을 바라보시는 수척하신 그 눈길이
오늘따라 웬지 서글퍼 보인다.
그 서글픔 위로 다시 쏟아지는 햇빛

꼭 다투신 그 입술이
말없이 묵묵하신 그 입술이
이제는 더위도 모르시는가.

아버지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라도 눈여겨 보고 있노라면
나는 어느새 눈 한가운데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아위신 모습
나이가 더해 가실수록 수척해지시는 얼굴
오늘 저녁 등 밑에 드릴 때에는
아마도 눈물이 핑 돌 것이다.

(이 글은 도시로 전학온 아이가 농촌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것이다.)
자료 : 문학교육연구회, 1990.

☞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7 지역사회 조사하기

활동개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그 결과로 나타난 여러가지 지역 문제점들을 분류·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토론활동의 주제로 삼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접하고 관심을 갖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활동목표

- 1) 다양한 조사활동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특성을 이해한다.
- 2) 지역사회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본다.

준비사항

필기도구,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도구(사진기, 녹음기, 녹음테이프)

활동방법

[과정 1] 지역사회 조사활동 이해하기

1) 분과별로 조사연구팀을 구성한다.

2) 연구 과제 선정 등 조사 계획을 세운다.

■ 여러가지 지역사회 문제 : 이농문제, 교육문제, 인구문제, 주택문제, 공해문제, 교통문제, 도시계획문제 등 <부록 : 성심여대사회과학연구소, 1993>

3) 조사 방법을 결정한다. <참고자료 2>

① 인터뷰 ② 단체방문 ③ 설문조사 ④ 현장르뽀 ⑤ 사진촬영
⑥ 집단창작 ⑦ 녹음테이프 작성 ⑧ 현장관찰 ⑨ 기존자료 수
집정리 등

4) 조사를 실시한다.

■ 기초조사 할 것 : 고장의 인구, 면적, 부락의 수, 산업구조, 교육기관, 언론기관, 행정기관 등. 자료는 도서관, 행정관청, 학교, 마을의 어른들, 향토 연구가, 지지(地誌) 등의 도움을 받는다.

5)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한다.

6) 조사결과 발표를 준비한다.

연구과제와 진행과정,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조사과정에 있었던 재미있던 일, 느꼈던 점 등을 발표내용을 준비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정리하고 보고서 최종 정리자, 발표자 등을 선정한다.

[과정 2] 지역단체 방문하기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농민회, YMCA 등)를 조사하고 그 단체의 여러가지 상황(사무실 위치, 회원 수, 조직 상태)과 조직의 목적, 사업내용, 어려움이나 앞으로의 과제 등을 조사해 보고 단체의 대표나 실무자를 만나 그 단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보충사항

- 단체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는다.
- 인터뷰 할 경우 녹음기와 테이프를 준비한다.
- 단체를 소개하는 팸플릿이나 기타 문서자료를 얻는다.

[과정 3] 동네 간판 조사하기

동네의 가게들의 간판에 쓰여 있는 이름들을 조사하고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 외래어로 된 간판은 그 뜻을 물어보거나 직접 조사하여 알아본다. 외래어로 된 간판은 의견을 모아 우리말로 고쳐보고 가게의 주인에게 알려준다

□ 보충사항

- 간판과 함께 지역사회에 있는 유해환경도 조사해 본다. 학교 근처에 오락실이나 유흥업소들이 몇 개나 있는지, 폭력배들이 많이 나타나는 장소의 환경이 어떤지, 미성년자 보호법을 잘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 사진기를 준비하여 기록에 남긴다. 이후에 사진을 스캔하거나 큰 도화지에 붙이고 사진말을 함께 써서 전시회를 열 수도 있다.

[과정 4] 주민여론 알아보기

동네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여러가지 건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 횡단보도에 서있는 사람, 청소부 아저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택시운전사 아저씨, 동네 가게 주인 등 다양한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를 들어본다.

* 필기도구를 꼭 지참하여 즉시 기록한다. 녹음기를 사용해도 좋다.

[과정 5] 기자 되어보기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기자가 되어 그 사

전이나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조사하여 취재 기사를 작성해 본다.
 기사를 쓸 때에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전하고 그에 얽
 히 사연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내
 용도 담도록 한다.〈참고 : 활동 15 참고자료〉



* 기자수첩을 준비하여 실제 기자가 된 기분으로 취재를 해본다.
 (시중에서 reporter's book이라는 취재용 수첩 구입 가능)

[과정 6] 고장향토문화 조사하기

자기 고장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역사 유적이나 특정한 지
 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민요, 지형이나 고목, 바위 등에 얽힌
 전설, 특유한 전통놀이, 세시풍속, 고유한 풍습과 언어습관, 독특한
 방언, 유명한 풍물 또는 뛰어났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고장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갖고 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과정 7] 지역지도 만들기

지역조사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본다. 단지 도로나 건물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유형, 유형의 지역 특성을 포괄하여 재미있고 특징있는 지도를 만들어 본다.

■ 지도에 들어갈 내용들

- ① 인구수 ② 가족수 ③ 인구의 분포(연령·성별·종교·경제적 지위 등) ④ 생활상태(주거·주거의 소유상태·화장실·위생시설·수도시설 등) ⑤ 사람들의 특성(이동성·교육수준·취업률)
- ⑥ 사회적 단체·기관·시설(교회·학교·공원·놀이터·오락시설·도서관·보도기관·청소년단체·아동복지시설·장애자시설·노인시설·보건소·의료시설·경찰서·법원·우체국·산업시설·상업시설·각종 지역사회 내부에 있는 조직·집단 등을 포함)
- ⑦ 사회적 문제(비행·범죄·가출·질병·사고·약물중독·정신장애 등)

유의사항

- 1) 조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조사 대상(사람이나 시설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조사결과물은 자료집으로 발간해 낼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 보관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조사내용의 예

1) 연구과제가 “공해문제”인 경우

① 가탐 : 쓰레기공해

-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
- 쓰레기 처리 과정
-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청소원 아저씨 인터뷰, 쓰레기 처리장 실태조사 등)

② 나탐 : 간판공해

- 간선도로변의 간판 색깔, 크기, 외국어 사용 실태
(조사표 작성 기록)
- 외래어로 된 간판의 뜻 알아보고 우리말로 이름짓기
- ③ 다팀 : 대기오염
 - 지역사회 주민에게 설문조사
 -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
(간선도로 통행 차량 배기 가스 배출 상태 조사)
- ④ 라팀 : 수질오염
 - 인근 개천의 상류, 중류, 하류별 오염실태
(냄새, 부유물, 맛, 색깔, 생물 존재여부 관찰)
- ⑤ 마팀 : 핵문제
 - 각종 자료 조사 정리
- ⑥ 바팀 : 소음공해
 - 지역 사회 설문 조사
- ⑦ 사팀 : 공해에 대비한 대책
 - 공해추방운동 단체 방문
- ⑧ 아팀 : 공해병
 - 공해병 피해자 방문 면담

자료 : 우리교육, 1990년 7월호.

〈참고자료 2〉 지역사회 조사

1) 지역사회조사 영역

(1) 역사·지리적 특성

- ① 역사와 동리 이름의 유래
- ② 위치(위치도 포함)
- ③ 지세
- ④ 토지(종별, 이용상황, 토질 등)
- ⑤ 기후(기온, 우량, 서리, 기후관계 특기사항)

(2) 사회·정치적 특성

- ① 인구(특성, 연령별 인구수 및 인구증감, 이동상황)
- ② 정치규모(소득수준별) 가구수
- ③ 취락(취락 및 정주형태, 성씨분포)
- ④ 외부와의 관계(가족의 도시진출, 가족의 외국진출)
- ⑤ 행정구조
- ⑥ 지도인력(지도자, 지도자군) 구조 특성
- ⑦ 선거(평균 투표율, 지역사회 공동사업을 위한 선거 등)
- ⑧ 군사관계(군인 부대와의 관계, 군입대, 제대자 등)
- ⑨ 사회단체 및 주요기관과 시설(부락 전체단위의 단체, 특수관심단체, 기관과 시설, 외부로부터의 협조기관 및 협조내역 등)
- ⑩ 재해 및 보안(풍수해, 화재 및 교통사고, 범죄수, 보완기관 특기사항 등)
- ⑪ 공해(수자원 오염, 대기오염, 소음)
- (3) 문화적·교육적 특성
 - ①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및 버스, 여객선, 여객비행기, 운수수단, 교통개발상황, 매일 통근 및 통학 교통수단, 교통관계 특기사항 등)
 - ② 통신 및 커뮤니케이션(우편, 전신, 전화, 신문·잡지 보급, 라디오, 텔레비전 보급, 집회시설, 기타 통신 특기사항)
 - ③ 전기(수력, 화력, 자가발전 등)
 - ④ 보건, 체육 및 후생(질별보유상황, 의료시설, 약품보급, 모자보건, 체격 특성 및 불구, 체육훈련, 운동, 수련관계 특기사항, 후생, 가족계획상황, 가족계획 집회)
 - ⑤ 생활양식(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관혼상제 및 의식, 사고방식 및 심리상태)
 - ⑥ 종교 및 신앙(종교포교 상황, 속신, 마을 전체행사와 종교단체 및 속신, 전입자의 참여, 기타 특기사항)
 - ⑦ 문화재, 명승고적 및 관광(지정문화재, 명승지, 관광개발 상황)
 - ⑧ 무형문화(무형문화재, 민속, 역사적 인물 등)

- ⑨ 교육(학교, 평균 취·진학율, 교육수준, 성인교육상황, 서당, 도서 및 마을문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 및 계획실, 기타 교육면에서의 특기사항)

⑩ 오락 및 여가생활

(4) 산업적·경제적 특성

- ① 농림업, 토지이용 상황, 산업생산량, 임업자원, 축산, 영농, 농사개량 등
- ② 수산업 및 어업(수산현황, 어선보유현황, 수산개발사항)
- ③ 광공업(지하자원, 공업, 전구 및 에너지, 도정 등)
- ④ 상업(도장, 거래수단, 공동구관장, 창고 등)
- ⑤ 서어비스업(여관, 음식점, 이발소, 미장원, 다방, 기타)
- ⑥ 주민경제사정, 경작규모별 능가호수
- ⑦ 부업 및 겸업관계
- ⑧ 노동력 관계
- ⑨ 금융 및 경제단체

(5) 심리적 특성(사고방식, 의식구조, 가치관, 태도 등)

2) 지역사회 조사 방법

(1) 관찰법(observation)

관찰법은 관찰자(observer)가 조사대상의 개인, 사회집단 또는 지역사회 등의 행동이나 사회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들어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정확히 알아내려는 방법이다.

관찰법은 다른 조사방법이나 응답자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생활의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포착할 수 있으며 숫자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도의 질적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관찰의 대상을 적시에 포착하기 어렵고 고도의 관찰기술이 필요하며 관찰내용의 해석에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2) 면접법(interview)

면접법은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면접자(interviewer)가 직접 응답자 및 피응답자(respondent or interviewee)와 대면하여 필요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는 방법이다.

면접법에는 사전에 면접표(interview schedule)를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갖는 형식적 면접(formal interview)과 비 형식적 면접의(informal interview)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방법은 미리 확정된 내용과 순서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여건에 따른 면접자의 융통성이 제한되어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그때 그때의 여건에 따라 일정한 형식,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면접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면접시 유의할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Gloria D. Feliciano, 1968 : 293).

- ① 면접자는 면접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소개와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 ② 면접자는 응답자의 익명과 정부 출처에 대한 비밀을 확약함으로써 응답자와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rapport)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③ 면접자는 면접이 끝난 후에라도 면접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피해야 한다.
- ④ 응답자가 호의를 보일 경우, 면접자는 감사스러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되 쓸데없이 면접시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 ⑤ 면접자는 면접 동안에 예의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면접자는 응답자가 응답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에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자료 활용 및 내용분석

- ① 기존자료의 활용 : 기존자료에는 인구조사 자료(census data), 공문, 각 단체의 기록문서, 신문, 잡지, 서적 등이 있다.
- ② 내용분석 : 내용분석이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주어진 자료의 범주(category) 설정을 잘 해야 한다.

(4) 질문지법(questionnaire survey)

질문지법은 응답자 자신이 질문지에 답을 기입하도록 하는 조사 방법으로 우편을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질문지의 작성은 보통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 ① 그 연구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가를 결정한다.

- ② 질문서가 포함해야 할 내용과 질문의 형태를 결정한다.
- ③ 질문서의 초안작성
- ④ 질문서의 재검토
- ⑤ 질문서의 사전검사(pretest)와 개정
- ⑥ 질문서의 편집 및 그 사용절차의 구체화

이 방법은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기술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가 문항만을 읽고 이해하여 조사자가 원하는 응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나 응답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자칫 어긋난 정보를 얻기 쉬운 단점이 있다.

(5) 사례연구법

사례연구법이란 한 사회적 단위, 즉 한 개인이나 가족, 어떤 사회 단체나 기관, 문화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주로 소수의 연구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6) 참여연구법

연구대상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놓여 있는 여건과 입장을 바탕으로 문제를 추출하는 것으로 전문연구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등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진행하는 것이다.

자료 : 정지웅·최상호, 1988.

활동 8 지역문제 인식하기

활동개요

지역사회 조사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분과별로 맡은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분과별로 조사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여러가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을 갖는다. 특히 이러한 발표의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며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토론기법 중의 하나인 세미나 방식을 실행해본다.

활동목표

- 1) 지역사회 조사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힌다.
- 2) 세미나 형식의 토론방법을 이해하고 익힌다.

준비사항

마이크, 앰프, 스피커, 행사제목·식순·발표자 이름표·안내문 등
게시물, 참석자 명찰, 필기도구, 필요한 시청각매체, 토론 내용 기
록용 녹음기

활동방법

[과정 1] 세미나 준비하기

1) 인원 구성하기

발표자(연구자), 일반참여자 50명 이하, 사회자, 서기

* 사회자는 세미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능하게 주도
해 나갈 수 있는 지도성과 통솔력, 자원 동원능력, 언어구사력 등을
함께 갖추고 풍부한 지식·정보·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2) 분과원들은 사전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
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보고서로 만든다.

3) 조사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정확한 언어로 발표할 수 있
는 사람으로 발표자를 선정한다.

4) 사전모임 갖기

세미나가 있기 전에 사회자, 발표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사전
모임을 가져 전체적인 토론내용과 진행의 흐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과정 2] 지역사회 문제 인식을 위한 세미나

1) 세미나 장소와 시설을 준비한다.

2) 전체 준비가 되는 동안에 간단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는다.

분과별로 분과노래와 율동을 소개하거나 조사활동 중에 생겼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발표한다.

3) 사회자는 개회를 발표한다.

4) 발표자들을 소개한다.

5) 사회자는 간단한 발표 및 보고를 통해 토론의 목적, 주제에 대
한 개괄적·입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준비된 주제에 관한
기초 강연 형태의 보고서 (introductory speech report)를 발표

한다. (소요시간 : 15~30분)

- 6) 세미나 참석자들은 주제와 관련한 발표와 보고를 하고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중점사항에 관한 정보를 더욱 깊이있게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각자의 견해를 공유하고 알린다. 다양한 시청각기제를 활용한다.
- 7) 질의 응답을 통해 각각의 발표·개진된 내용들을 명료화하고 이를 명확히 이해한다.
- 8) 각각의 발표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주제의 각 관련부분들에 대한 토론 및 대화를 통해 공통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결집시킨다.
- 9) 사회자는 토론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발표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나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고 명료화하여 후속 토론을 이끌어낸다.
- 10) 후속연구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한 구성원의 과제와 역할을 적절히 분배한다.
- 11) 폐회를 선언한다.

[과정 3] 지역사회 조사결과 알리기

세미나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과 함께 또다른 형태와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알리는 과정을 갖는다. 여러가지 정리방법과 내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눈에 잘 띄는 공간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촬영한 사진에 설명하는 말을 덧붙여 전시하기
- 책상이나 탁자를 배열하여 그 위에 종합보고서 전시하기
- 큰 전지에 분과별로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그림과 사진을 배합하여 예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게시하기
- 조사과정 동안 수집한 특이한 품물, 물품 전시하기
- 비디오를 촬영한 분과가 있다면 기기를 설치하여 비디오 상영하기
- 녹음기를 준비하여 수집한 민요나 민담, 방언 채록한 것을 틀어주기

- 기관방문을 통해 얻은 팜플렛, 자료 전시하기
- 전시공간의 한 쪽 공간에는 커다란 백지를 붙여 놓고 자유로운 지상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의사항

- 1) 사회자는 세미나의 진행과정에서 독단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 구성원들의 주제발표나 토론이 총체적인 대주제 속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하여야 한다.
- 2) 세미나를 진행할 때에는 주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발표내용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돕기 위해 다양한 참고자료들과 시청각기재 등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 3) 원래 세미나는 50명 이하의 소수인원을 참여자로 구성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게 될 때는 여건을 잘 고려하여 인원을 나누어 따로 진행하거나 세미나 형식을 변형시켜 초과된 인원은 방청객 형식으로 구성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세미나(Seminar)

1) 세미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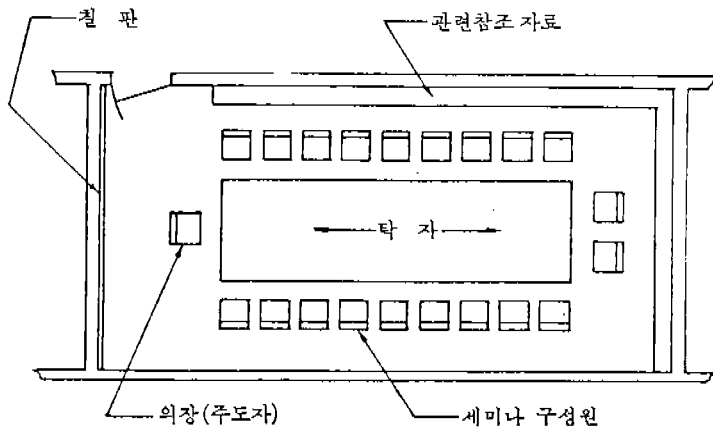
- 세미나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집단학습방법으로 학교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와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성인학습에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세미나 방식은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세미나 방식을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
- 세미나란 원래 50명 이하 또는 5~30명 정도의 소수집단원을 참여자로 구성하는 것이며, 구성원은 대부분 해당 주제분야에 관한 권위있는 전문가나 전문적 연구관련자로 특징지어진다. 세미나는 특정의 전문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주도하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표자는 물론 참석자 전원이 해당분야에 관해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 관심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식적 발제내용과 공개적 질의 토론이 매우 전문적이

면서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전문적 식견과 배경이 없는 일반의 청중이나 관찰자적 참석자들은 거의 세미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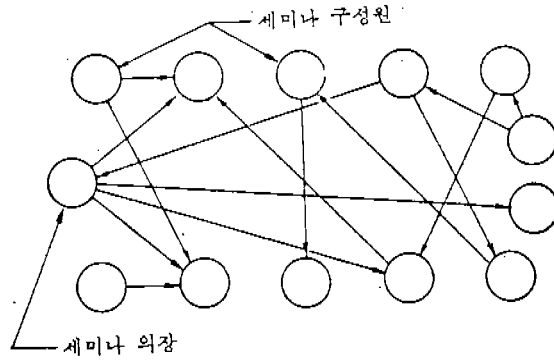
- 세미나는 세미나를 주도해 나갈 주제발표자나 공식발표자의 공식적 발제 보고에 대한 참석자들의 준비된 관련 보고나 의견 개진, 질의 등 공개토론 형태로 운영되며 그 주된 목적은 참여자들에게 권위 있는 전문연구진의 주도하에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연수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참석자 전원은 공식 발표자가 아니더라도 구두로 또는 문자화된 보고서의 형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 자원의 구성·배치와 의사소통 형태

〈그림 I-1〉 세미나의 구성·배치도



〈그림 I -2〉 세미나에서의 구성원간 의사소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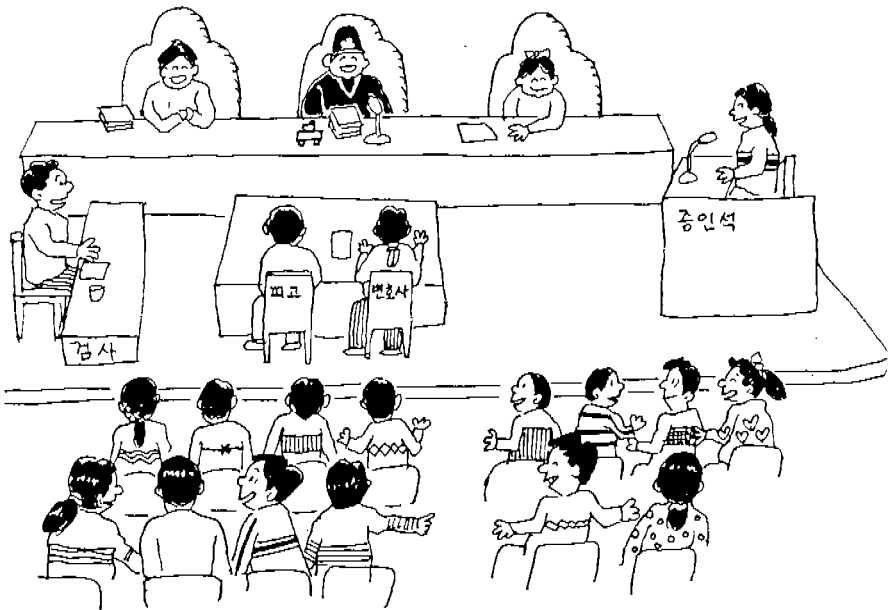


자료 : 박노열, 1992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1988 ;
함병수 외, 1994 a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실시하기



지역사회문제 진단하기



지역문제 원인 분석하기

모의지방의회활동

청소년 법정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IV



자기마음 그리기 : 「경쟁」

나는 웬지 모르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 이길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서로 이길려고 몸부림친다. 점점 깊은 물 속으로 내려 가기만 한다. 떠오를려고 애써도 떠오르기는 커녕 가라앉기만 하네. (구효준 글·그림, 국교 6, 1993. 12. 14)

자료 : 이호철, 1995

☞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야 성공한다는데.....,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활동 9 지역문제 원인 분석하기

활동개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하는 과정으로, 패널형식의 토론과정을 통해 주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패널토론의 장점을 활용하여 문제의 논쟁점을 명료히 하고 주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기회를 가진다.

활동목표

- 1)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2) 지역사회 문제와 논쟁점을 명료히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 3) 패널 형식의 토론기법을 실행하고 그 과정을 익힌다.

준비사항

책상, 의자, 마이크, 토론 자료

활동방법

[과정 1] 사전 준비하기

사회자는 패널 개최 전에 패널 구성원들과 함께 토의주제나 안건을 협의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토론범주의 조정과 각 토론안건별 시간 배정, 특수한 분야에 관한 개인별 토론 및 과제 할당, 진행 윤곽의 양식, 대담내용의 개요나 계획서 등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준비한다.

[과정 2] 패널토론 하기

- 1) 사회자는 개회를 알린다.
- 2) 분위기를 친숙하게 하기 위한 간단한 노래나 공동체 놀이를 한다.
- 3) 패널구성원들은 의견을 발표한다.

배심토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패널구성원들은 대담식 토론의 개진 이전에 약 5분 이내의 간략한 공식적 진술이나 다소 공식적인 의견 발표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 공식적 진술이나 의견 개진 외에 관련 주제에 관한 영화나 슬라이드 등을 시사하는 방법도 있다.

- 4)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토론활동을 진행한다.

* 사회자

사회자는 패널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제기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배심토론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자는 가능한한 토론내용이나 대담 내용에는 깊이 관여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출시키지 않는다

* 패널구성원

패널구성원들은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의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다른 패널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결론이나 토론 주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한다.

*** 청 중**

청중들은 패널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논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보이게 되는데 이 때 의견의 차이와 그 가능성과 한계 등을 숙고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패널 토론자들의 의견과 토론과정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이에 간접 참여한다.

[과정 3] 공개토론 하기

패널이 끝난 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중들이 모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속계한다. 후속 공개토론회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논의주제에 관한 후속적 의견의 제시와 수렴, 논쟁 등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시간에는 특히 청중들의 직접적인 토론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개토론 이후 사회자는 적절한 시기에 토론을 정리하고 폐회를 알린다.

유의사항

- 1) 패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토론계획 수립과 사회자의 발의 및 토론 진행능력, 다양한 패널토론자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토론구성원은 토론주제나 논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과 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적절히 선정한다.
- 2) 패널이 소수구성원에 의해 독점되거나 한 토론자가 5분 이상의 과잉발언으로 제한된 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3) 사회자는 다음의 상황에만 토론내용에 개입할 뿐 그 외의 시간에는 참여를 최소화한다.
 - 청중의 이해를 위해서나 주제와 토론 내용의 명료화를 위해 발언내용에 대해 부수적인 설명이나 재진술을 해야 할 때
 - 빗나간 토론주제를 다시 본 주제 관련 범주로 되돌려놓을 때

- 토론의 한 부분을 끝내고 다음 토론사항으로 이행하고자 할 때
- 추가 토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 극히 상반된 이견이 계속 논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결론을 짓고자 할 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패널 (Panel : 배심토론)

1) 패널이란

- 패널은 사회자의 진행에 의해 특정의 주제에 관하여 3~6명의 패널 구성원이 청중 앞에서 유목적적인 대화의 형태로 토론을 하는 토론기법이다.
- 패널 구성원의 대담식 토론이 패널의 주된 진행내역이 되며 사회자나 청중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나 공식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 패널의 진행은 사회자가 특정주제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을 패널 구성원에게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패널 구성원은 토론주제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흥미, 지식 그리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주제에 관한 대담·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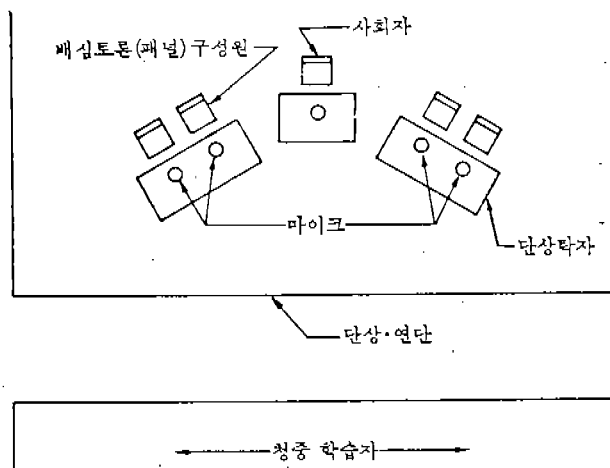
2) 패널의 특징

- 패널은 특정 문제나 논쟁점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거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제시하는 토론기법으로 효과적이다. 청중은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경청을 통한 간접참여로써 특정주제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함께 다양한 견해에 접하게 되고 문제와 논쟁점을 명료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제에 관한 관련 지식·정보를 부수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 패널은 집단 스스로가 주어진 문제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이에 관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패널은 특히 집단구성원 전체가 집단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해결의 의지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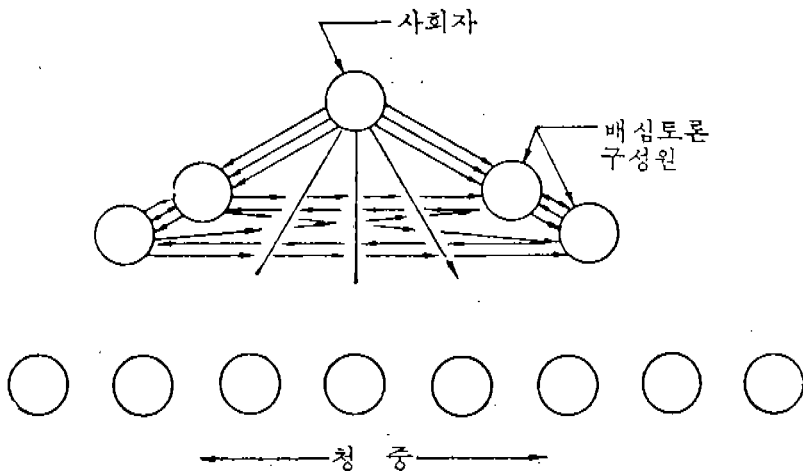
고 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대안에 있어서는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요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자원의 구성·배치와 의사소통 형태

〈그림 II-1〉 패널의 구성·배치도



〈그림 II-2〉 패널에서의 구성원간 의사소통 형태



자료 : 박노열, 1992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1988.

활동 10 포의지방 의회활동

활동개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의회활동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의원의 질의와 지방공무원의 답변과정을 청소년들이 역할연기로 경험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해 본다.

활동목표

- 1)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체험해 본다.
- 2)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본다.
- 3) 지역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키운다.

준비사항

의자, 연단, 마이크, 질문요지서 제출서식, 질의 응답에 필요한 자료

활동방법

[과정 1] 역할배정과 자료준비

- 청소년들은 자신이 맡을 역할을 결정한다.
- 필요한 역할 : 자치단체장 역할, 의회 의원 역할, 관계 공무원 역할, 주민 역할 등이 있고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방청석에 앉아 회의 진행과정을 잘 참관한 후 마지막 토론시간에 참여한다.
- 질문할 의원을 맡은 청소년은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다. <참고자료 1>

□ 유의사항

- 역할을 맡은 청소년은 본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발표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 청소년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그 역할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해당 활동을 맡는다.

[과정 2] 지방행정에 대해 질의답변하기

- 1) 의장은 회의시작을 알린다.
- 2) 구(시·군)정 질문 : 지방행정에 대한 의원의 질문을 시작한다.
 - 의원역할을 맡은 청소년은 자신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준비를 한 후 질문을 한다. <참고자료 2>.
- 3)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한 후 답변한다.
- 4) 의원의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갖는다.
- 5)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 6) 의장은 토론을 정리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유의사항

- 1)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찾고 연구하여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한다.
- 2) 지방의회활동을 실행하기 전에 직접 지방의회활동을 현장견학해 보는 것이 좋다. 의회에 방문하기 전에는 방문목적을 알리고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은 후에 찾아가도록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질문요지서 제출서식

질문요지서 제출서식

199

수신 : 의장
제목 : 질문요지서

년 월 일 ○○시의회의 의결로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요지를 제출합니다.

1. 질문연월일 : 년 월 일
2. 질문대상자 :
3. 소요시간 :
4. 질문요지 : 별첨

제출자 ○○○ 인

〈질문 요지서〉

성 명		소 속	
질문 대상자		소 요 시 간	

〈참고자료 2〉 질의 답변 사례

* 의원의 질문사례

○○○ 의원 :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의 공원녹지와 소관을 일괄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야산 등산로와 유원지 등에서 우리에게 젖줄 구실을 하던 약수터 336개소중 98개소가 오염되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평소 약수터의 샘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을 포괄하는 관계관은 그것이 공원녹지와 소관이든 생활체육과 소관이든 평소에 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가졌다면 최소한 이러한 불명예와 행정불신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그 유지관리체계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민들의 이용이 점점 많아지고 대화와 친교의 장이 이 웅달샘 주변에서 형성됨을 생각할 때 약수터의 청결 등 수준 높은 관리와 수질보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문제제기만 한 것도 있으나 실무행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므로 분야별로 소상한 답변이 불성실내지 불충분하여 재삼 촉구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박수 받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답변 사례

총무국장 ○○○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먼저 ○○○ 의원의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18개소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PH 등 20개 항목의 이화학적검사를 하며 보건소에서는 대장균 등 8개 항목의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

회, 보건소에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두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보건소에서는 4개소가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관정을 받아 취수 중지 안내판을 게시하고 소독 실시 후 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

1) 지방자치체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 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체제에 비하여 정치권력의 분권화,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의 직·간접적 정치참여의 기회확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신장을 도모하고 주민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 지방의회란

지방의회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로서 시·군·구의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그 의회가 지방정부의 의사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감시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 예산 심의확정 등 지방재정에 관한 기능,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 등 행정통제에 관한 기능, 청원심사에 관한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4〉 “모의지방의회활동” 운영사례

도봉산청소년마을(02-954-0203)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방모의의회활동” 내용 : 지방의회활동 강의, 지역조사활동, 주제별 토의, 상임위원회 구성, 분반활동 등.

자료 : 강인재 외, 1995 ; 권호섭·이합희, 1992 ; 서우선, 1992 ; 송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편, 1994 ; 한승희·황창순, 1993.

활동 11 청소년법정

활동개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해관계의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적 약속인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과정이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을 청소년들이 주제와 역할을 정하여 실행해 보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가치판단 능력, 비판적·논리적 사고능력을 기르며, 특히 지역사회 문제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설득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활동목표

- 1)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 2) 재판진행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배운다.
- 3)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통해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준비사항

모의법정 장소 및 시설, 판사 법복, 의사봉

활동방법

[과정 1] 판결주제와 역할 정하기

- 재판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결정한다.
재판장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배심원 10명, 피고, 원고, 서기 1명, 정리 1명, 증인 8명 정도, 교도관 1명, 방청객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를 결정하여 대본을 작성한다.
- 맡은 배역에 따라 연습을 한다.

[과정 2] 모의재판 실행하기

- 적당한 장소에 모의법정을 설치한다.
- 피고, 검사, 변호사, 배심원은 미리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 재판장이 입장한다.
- 개회 :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 인사말 : 인사말을 하고 재판상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참가자를 소개한다.
- 개정을 선언한다.
- 피고인을 호출하면 피고가 입장한다.
-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함으로써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를 밝힌다.
- 피고인 인정 신문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인정 신문을 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 모두진술 : 피고인이 자기 진술을 한다.
- 검찰 측 심문 및 변호인 측 반대심문을 한다.
검사는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사는 반대심문을 한다.
- 증거조사(검찰 측, 변호인 측)를 한다.
- 증거제출 및 증인신청, 증인호출을 한다.
- 증인신문(검찰 측, 변호인 측)을 한다.
- 검찰 측 의견진술(논고 낭독)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최후

변론) : 검사는 피고인의 형선언문을 낭독하고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한다.

- 배심원 평결회의(배심원 판결기준을 미리 정해 놓는다)를 한다.
- 재판장은 판결문을 선고하고 폐정한다.

□ 배심원 판결기준의 예

- 증거자료 조사(30%)
 - 충분한 자료로 인정되는가의 여부
 -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준의 내용인가.
- 검사 논고, 변호사 변론(30%)
 -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비교했을 때 사실을 기재했는가
- 증인 신문(40%)
 - 증인들은 얼마나 사실대로 말했는가
 - 증인을 신문할 때 얼마나 성의있게 질문했는가

[과정 3] 판결에 대해 찬반의견 나누기

재판과정을 지켜본 느낌과 판결에 대한 찬반의견 등을 주고받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해 자신은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판결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해본다.

유의사항

- 1) 청소년 법정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사전에 준비모임을 거쳐 법정에 관한 기본지식을 숙지한다.
- 2) 판결할 주제(피고)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청소년문제나 사회문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다. 주제로는 뚜렷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적당하다.

- 3) 재판과정을 익히기 위해 직접 법정을 찾아가 참관을 해본다.
참관 시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확실한 방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도자가 현장학습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모의재판 구성원들의 역할

- ① 재판장 :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② 증인 :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 그 진술이 증언이다.
- ③ 검사 :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권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범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권한, 재판집행의 지휘, 감독권 등이 있다.
- ④ 피고인 :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
- ⑤ 변호사 :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직무행위는 각국의 법에 따라 다르다.

〈참고자료 2〉 역할연기법(Role Playing)

모의지방의회나 청소년법정은 모두 일종의 역할연기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역할연기란

역할연기란 인간관계의 일반적 영역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극화한 것으로서 소집단원에게 개인별로 서로 다른 역할을 주고 어떤 가상적 상황에서 서로 협의하여 어떤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다

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원만한 타협을 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2) 역할연기의 방법 및 절차

- ① 주제를 정한다. 주제는 너무 복잡하지 않고 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장면을 정한다. 집안성원의 일반적인 문제의 범주 안에서 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장면을 선택한다.
- ③ 장면연출에 필요한 연기자의 수를 정한다.
- ④ 배역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정한다.
- ⑤ 연기자와 청중은 역할연기의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 ⑥ 역할연기를 진행한다.
- ⑦ 역할연기가 끝난 후 토의 및 추수지도를 한다.

〈참고자료 3〉 청소년법정 활동 사례

- 1) 청소년지도육성회(02-267-2111/3) 「청소년 모의재판」 두 달에 1번 개최(홀수 달)
- 2) 서울시청소년사업관(02-795-8000) 「청소년 법정」 한 달에 1번 개최

자료 : 박노열, 1992 ; 최인화, 1992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87 ; 한승희 외, 1993.

지역사회문제 해결책 모색하기



분과토론하기
지역문제 해결책 찾기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V

「어린왕자」

.....

“부디 나를 길들여 주렴.”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나는 친구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거든.”

“누구든지 자기가 길들인 것 밖에는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 그러나 상점에서는 친구를 팔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갖지 못하게 되었어. 네가 만약 친구가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이렴!”

.....

“잘 있어 ”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잘 가. 지금부터 내 비밀을 말해 줄게. 그건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여우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했습니다.

“네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네가 그 꽃을 위하여 기울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머리 속에 기억하려는 듯 여우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나 너는 잊어서는 안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나는 나의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어린왕자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했습니다.

.....

자료 : 뽕뽕쥐뽕리·함미경역, 1986.

☞ 여우의 비밀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활동 12 분과토론하기

활동개요

본 활동은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특히 보다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분과별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고,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과 실천방안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한 토론을 경험해 본다. 청소년들은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통해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얻어낼 수 있다.

활동목표

- 1) 토론주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분석과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 2) 브레인스토밍의 의의와 진행방법을 안다.
- 3)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실천방법을 찾아낸다.

[과정 1] 브레인스토밍 준비하기

- 1) 한 집단이 10~15명 정도 되도록 소집단을 편성한다.
〈참고자료 1〉
- 2) 브레인스토밍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
〈참고자료 2〉
- 3) 서기를 1~2명 선출하여 제출되는 아이디어들을 요약 기록하는 한편 분류·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방법은 노트에 기록하거나 테이프에 녹음을 한다.

[과정 2] 브레인스토밍 진행하기

- 1) 참가자들은 다음의 점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한다.
 - 참가자 모두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낼 문제의 영역, 목표, 수단, 활동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토론에 소요될 시간을 결정하되 한 주제에 대해 40~6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 비평하지 않는다.
 - 자유분방하고 거친 아이디어들이라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무언 중에 격려할 수 있어야 하며 양은 질을 낳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 인습적인 회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간과 기회를 균형 있게 나눠 쓰도록 하되 한 번에 한 아이디어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 장난·농담 등으로 인기를 집중시키거나, 발언의 기회를 소수가 독점하려 하거나 또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주의깊게 경청하고 중복을 피하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한층 발전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 2) 지도자나 진행자는 다음의 역할에 유의하여 토론과정을 진행한다.
 - 브레인스토밍할 문제 또는 주제를 명확히 하여 참여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브레인스토밍에서의 주요 준수사항을 환기시키고 회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현실적인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창조적이고 거친 아이디어들도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받아들이고, 토론은 타인의 이해를 위한 추가 설명 정도만이 가능함을 주지시킨다.
 - 전체 토론시간 및 몇 사람이 독점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 규정, 예를 들면 1인 1회 3분 이내 등을 정하여 알린다.
 - 두 사람 이상이 한꺼번에 말하고자 할 때의 우선권을 합리적으로 부여하고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참여자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브레인스토밍은 주제와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50분 정도의 시간이 좋다. 일반적으로 처음의 5~10분 간은 아이디어의 제시가 느리다가 다음의 10~15분 간은 상당히 빨라지며 그 후로는 다시 느려지기 시작한다. 진행자는 언제 브레인스토밍을 마감할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3) 서기가 기록한(또는 녹음된) 아이디어 내용을 복사하여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 4) 브레인스토밍의 최종 단계에는 행동화할 수 있거나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선택될 때까지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분류한다. 생각들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 무의미한 것들은 삭제한다.
- 5) 최종 결론을 내린다.

유의사항

- 1)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거나 평가받는다든 두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2)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편집하지 않는다. 가능한한 빠르고 간결하

게 하되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변형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

- 3) 브레인스토밍이 1시간 이상 비효과적으로 계속되면 참여자들은 정신적 피로와 불안 등을 느끼게 되므로 적정한 시간을 준수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소집단 분과토론

1) 소집단 분과토론이란

소집단 분과토론이란 활발한 토의진행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토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대집단을 약 5~12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분과형태의 토론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최종적으로는 전체집단이 다 함께 모여 각 분과 소집단들의 토론결과를 결집시켜 정리·결론에 이룸으로써 대집단 종합토론의 성과를 얻게 된다.

2) 소집단 분과토론의 특징 및 학습효과

- 대규모 집단을 소집으로 나눔으로써 대집단 토론시 참여가 불가능한 전체 구성원을 토론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 소집단 분과토론을 통해 대주제가 여러 개의 하위주제 또는 소주제로 분화·토의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 소집단 분과토론 결과를 종합 토론 및 보고시간에 결집함으로써, 대집단 구성원 전체의 집단 역동을 통한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부분과 부분의 결집을 통해 전체의 의견을 신속한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된다.
- 다양한 배경과 지식, 견해를 보유한 집단구성원 전체의 생각이 폭 넓게 표출·수렴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제기된 사안에 대한 최선의 해결대안 탐색 가능성이 높다.

3) 참여자들의 역할과 임무

- 사회자는 선정된 토론 대 주제를 알린 뒤 전체 집단규모에 따라 이를 5~12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나눈다. 이 때 분과로 구분·구성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에게 수를 세게 하거나 앉아 있

는 좌석을 해당분과 인원수 만큼으로 모이도록 재배치하는 방식등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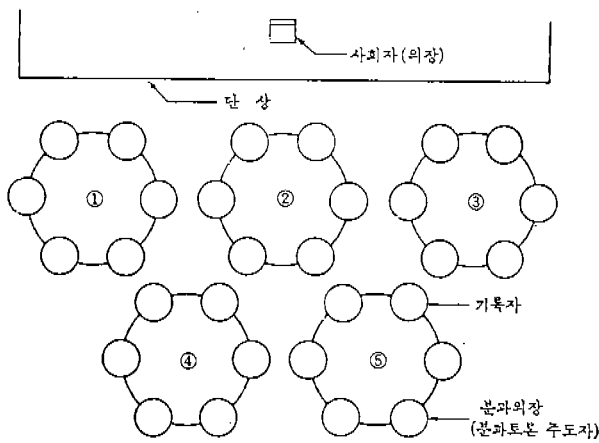
- 분과 소집단이 구성되면 사회자는 각 분과별로 사회자나 조장 또는 분과위원장과 기록자 등을 선정하도록 알려 준다. 선정이 끝나면 각 분과구성원간에 상호 소개를 통하여 우호적이고 친숙한 토론집단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
- 사회자는 대주제와 소주제(또는 분과별 하위주제)를 유인물 또는 구두나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에 관해 간단한 배경이나 선정이유, 선정과정 등을 설명해 준다.
- 사회자는 각 소집단 분과별로 허용된 시간내에 토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행과정이나 내용에 관한 보충설명을 위해 각 분과토의장을 순회한다.
- 소집단 분과구성원들은 조장이나 분과의장의 주도하에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집단토의를 진행한다. 이 때 기록자는 분과의장과 협의하여 토론진행사항 및 주요내용 건의, 토의 결과 등을 집약 정리하여 분과의장에게 줌으로써 분과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 및 보고시에 제출·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자는 각 소집단 분과들의 종합토론 보고서를 수합하여 전체 보고서로 만들거나 또는 각 분과의장이나 기록자가 나와서 칠판이나 큰 벽보에 각 분과의 토론결과를 간략히 써서 보고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요약문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 전체 구성원에게 배부할 수도 있다.
- 사회자는 종합보고에 기초하여 소집단 분과토론의 최종결과를 정리·발표하고 제기된 토론주제에 대한 합의로운 방향으로의 결론을 유도한다. 이 때 만약 합의로운 결론을 얻기 어렵거나 불명료한 결과들이 산출되었을 경우라면 사회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분과토론 종료 후에 산하연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논의하도록 한다.

4) 자원의 구성·배치와 의사소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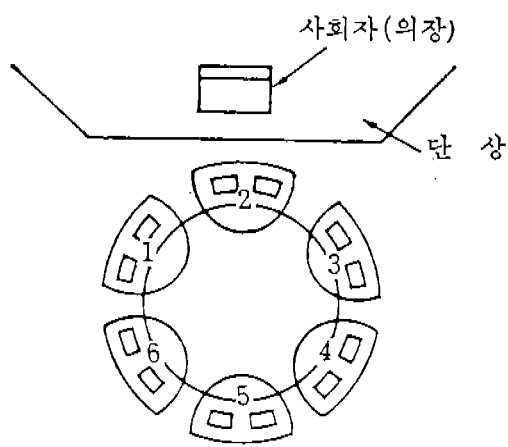
소집단 분과토론은 분과구성원의 배치에 있어 매우 다양한 방식

이 있을 수 있으며, 유동적이다. 즉, 전체집단의 크기에 따라 토론장의 공간 규모와 크기, 좌석 이동 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한 구성 배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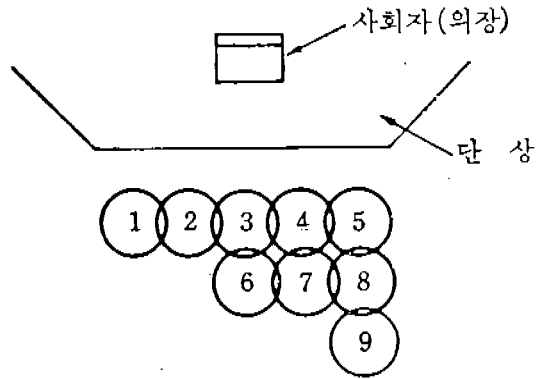
〈그림 II-3〉 소집단 분과토론의 구성·배치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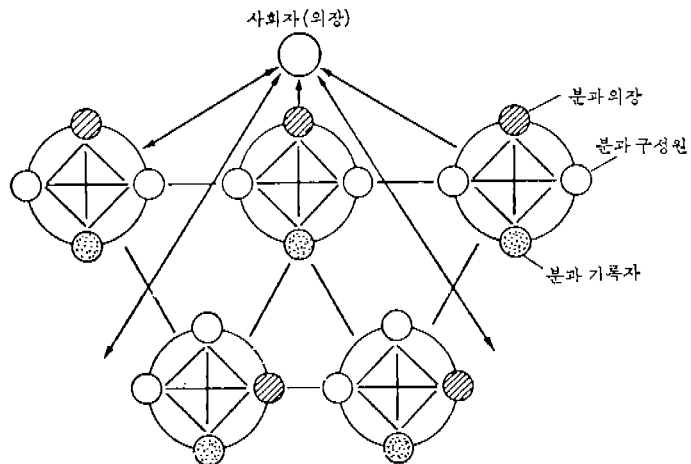
〈그림 II-4〉 소집단 분과토론의 구성·배치도 II: 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



〈그림 II-5〉 소집단 분과토론의 구성·배치도 Ⅲ : 좌석이동이 불가능한 큰 규모집단의 경우



〈그림 II-6〉 소집단 분과토론에서의 구성원간 의사소통형태



〈참고자료 2〉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1) 브레인스토밍이란

- 브레인스토밍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요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적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스로의 두뇌를 쓰도록 하는 집단사고의 한 방법이다.
- 브레인스토밍은 제기된 문제에 관계되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

든지 생각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발표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짜내는 문제 해결 회의로서 비판적 판단과 독창력을 융합한 창조적 사고의 한 형태이다.

- 한 집단 내에서의 자유롭고 제한없는 의견 또는 대안의 교환인데, 한 의견이 다른 의견을 불러 일으키는 암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연속되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게 하게 방법이다.

2)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환경

- 집단이 비교적 성숙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경우
- 완전한 의사 발표의 자유가 용납될 수 있는 환경
- 특정의 역할·지위의 양상이 최소화되어 있어 누구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보다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 집단 구성원들이 자원, 전통, 논리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습적인 기대감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융통성이 충분한 분위기
- 당장 실천에 옮겨져야 할 절박한 문제보다는 여유있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 참여자들을 선정하거나 소집단으로 나눌 경우, 비슷한 계층, 연령의 집단으로 하는 것이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
- 물리적인 환경도 참여자들이 안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곳으로 정한다.

자료 : 박노열, 1992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1988 ; 함병수외, 1994a.

활동 13 지역문제 해결책 찾기

활동개요

심포지움 형식의 전체토론을 통해 분과토론 결과를 종합하고, 여러가지 지역사회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심포지움에 이어 포럼형식의 자유공개토론의 장을 열어 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효과와 더불어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활동목표

- 1) 분과토론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총괄적인 결론을 모색한다.
- 2) 심포지움 형식과 포럼형식의 토론기법을 경험하고 익힌다.
- 3)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준비사항

마이크, 앰프 스피커, 행사제목·식순·발표자 이름표·안내문 등 게
시물, 참석자 명찰, 필기도구, 기록용 녹음기

활동방법

[과정 1] 심포지움 준비하기

1) 참가 인원을 구성한다.

사회자 1명, 해당 전문가(단상토론자) 2~5명, 청중(인원 제한
없음), 서기

2) 사회자는 토론에 앞서 단상토론자들과 사전에 모임을 갖는다.

- 사전모임에서 논의할 사항 : 주제의 선정, 주제의 하위영역 구
성, 발표자별 하위주제 선정(발제영역의 분담), 발제 시간, 발
제 순서 등

3) 행사 당일 적당한 장소와 필요한 시설 및 준비물을 마련한다.

[과정 2] 심포지움(Symposium) 진행하기

1) 사회자는 개회를 선언한다.

2) 자유롭고 친숙한 토론분위기를 조성한다.

다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공동체 놀이 등을 간단히 실시한다.

3) 사회자는 토론의 개요를 발표하고 발표자를 소개한다.

4) 분과 대표로 나온 발표자들은 분과토론 결과를 발표한다.

단상발표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발제의 내용을 체계적이면서
도 간결하게 전달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5) 청중들은 심포지움 과정을 주의깊게 경청함으로써 간접적인 토
론학습을 효과를 얻는다.

6)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후속 토론시간을 갖기 전에 간단한 노래
나 공동체 놀이를 통해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5분~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과정 3] 포럼형식의 공개토론 진행하기

- 1) 질의응답식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청중들은 단상발표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발표자들은 응답하고 자유롭게 토론한다.
 - 사회자는 토론이 방향을 잃거나 주제의 쏠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토론의 흐름을 잘 조정한다.
 - 참석자는 적극적으로 토론과정에 참여하고, 질의할 때는 전문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인사를 지적하여 질의·토론한다.
 - 전문가는 응답을 할 때 논쟁점을 명백히 파악하여 문제의 핵심에 적합한 응답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 2) 사회자는 토론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한다.
 - 다양하게 토론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주제별로 분류·정리하고 토론자간의 합의점을 찾는다.
 - 토론내용 중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준다.
 - 가능한 많은 토론자들의 의견이 종합결론에 반영되도록 하며 참여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서 종합·결론을 찾도록 한다.
 - 토론 이후의 과제를 분명히 제시해 준다.
- 3) 사회자는 토론을 정리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유의사항

- 1) 발표를 맡은 청소년은 충분한 사전 준비로 발표내용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해야한다.
- 2) 토론이 주제로부터 너무 이탈되거나 산만하고 비체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자를 비롯한 모든 토론 구성원이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심포지움 형태의 토론기법

- 1) 심포지움(Symposium, 단상토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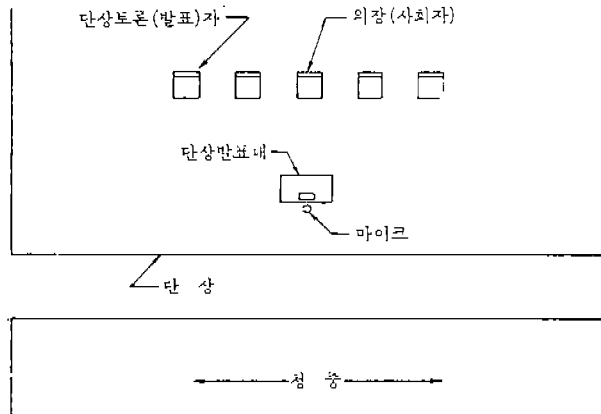
단상토론은 특정한 주제나 문제에 대해 각각 다른 측면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2~5명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공식발표 형식으로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집단토론 방식이다. 토론자는 서로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으며 청중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만 하면 된다.

2) 단상토론의 특징 및 학습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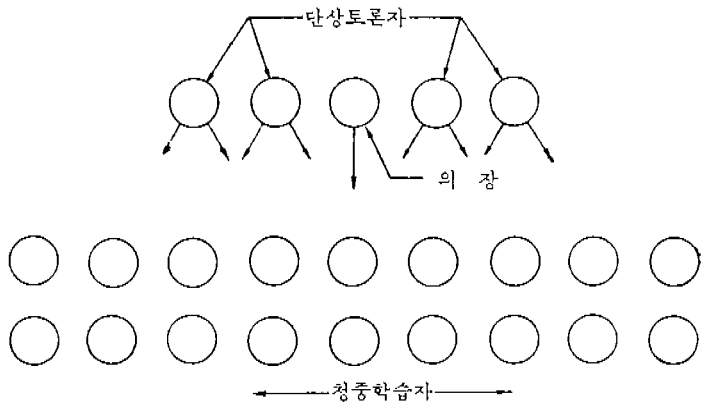
- 다양한 지식과 의견·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숙고하여 발제문을 작성하고 이를 각자 발표하게 되므로 짧은 시간 내에 특정 주제에 관한 체계적·조직적 지식 정보를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집단의 규모가 커서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토론에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접 참여와 간접 학습 효과를 통해 집단학습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 논의의 여지가 있는 논점에 대하여 또는 어떤 복합적 문제에 부분적인 접근을 할 때, 관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토론방식으로서 특히 효과적이다.
- 하나의 특정주제 분야에 대한 여러 관련 부문과 요인들이 규명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과 논의 그리고 주제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인 이해가 동시에 가능하게 된다.
- 단상토론자들은 단상토론에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이 지지·보유하고 있던 지식정보에 있어서의 오류나 수정·보완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 정보와도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체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 자원의 구성·배치와 의사소통 형태

〈그림 II-7〉 심포지움의 구성·배치도



〈그림 II-8〉 심포지움에서의 구성원간 의사소통 형태



자료 : 박노열, 1992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1988; 함병수 외, 1994a.

〈참고자료 2〉 포럼(Forum)

1) 포럼이란

포럼은 다수의 집단구성원(대략 25명 이상)과 1인 이상의 전문가나 자원인사가 사회자의 진행하에 15~60분간의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기법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식적 발표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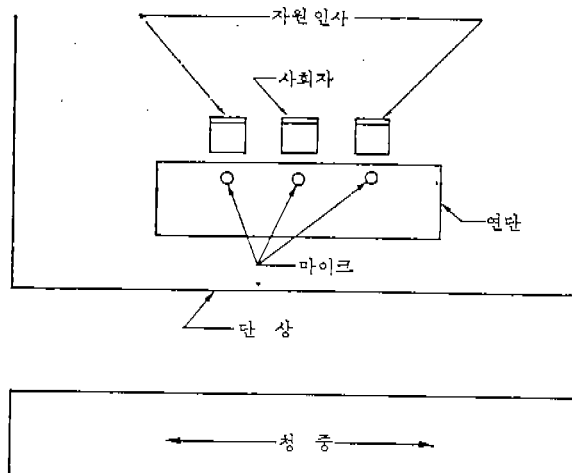
전문가나 자원인사들에게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상호의사소통을 하고 의견 개진과 토론을 하게 되는 대단위 토론 회합이다.

2) 포럼의 특징 및 학습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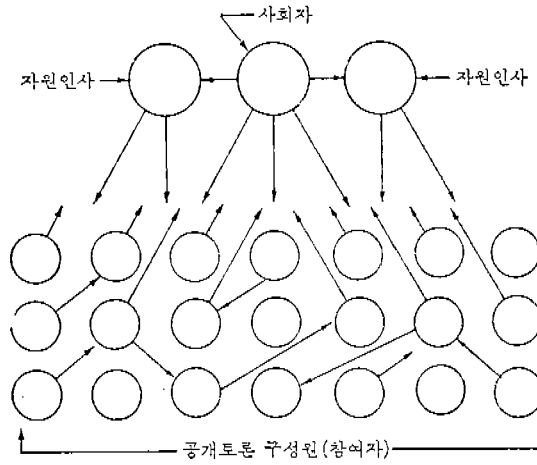
- 포럼은 단순히 특정 소수의 전문가나 자원인사의 공식적 보고·발표에 의한 간접의사소통 학습이 아니라 전 포럼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토론에의 참여를 통한 토론학습이라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포럼은 흔히 강의·강연·심포지움·패널 등의 공식적 토론회합에서 제기된 주제나 문제를 보다 명료화하고 이에 관한 전 집단구성원의 심층적인 의견 개진이나 토론을 유도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므로 제기된 주제나 문제에 대한 확인작업과 추가정보 구독 작업 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학습자 전체집단이 제시한 아이디어나 의견은 소수의 전문가나 자원인사들만의 공식적 발표내용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것일 수 있으며 특히 집단 지혜의 수렴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 토론 구성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질의를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학습자의 학습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3) 자원의 구성·배치와 의사소통 형태

〈그림 II-9〉 포럼의 구성·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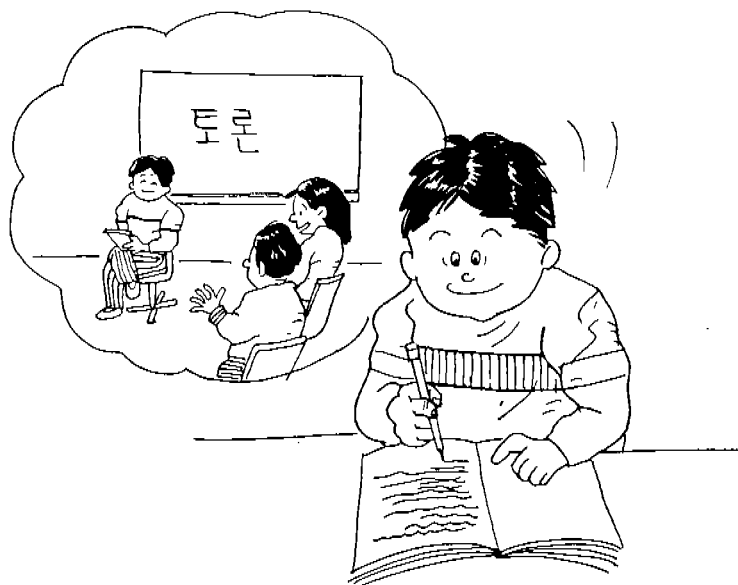


〈그림 II-10〉 포럼에서의 구성원간 의사소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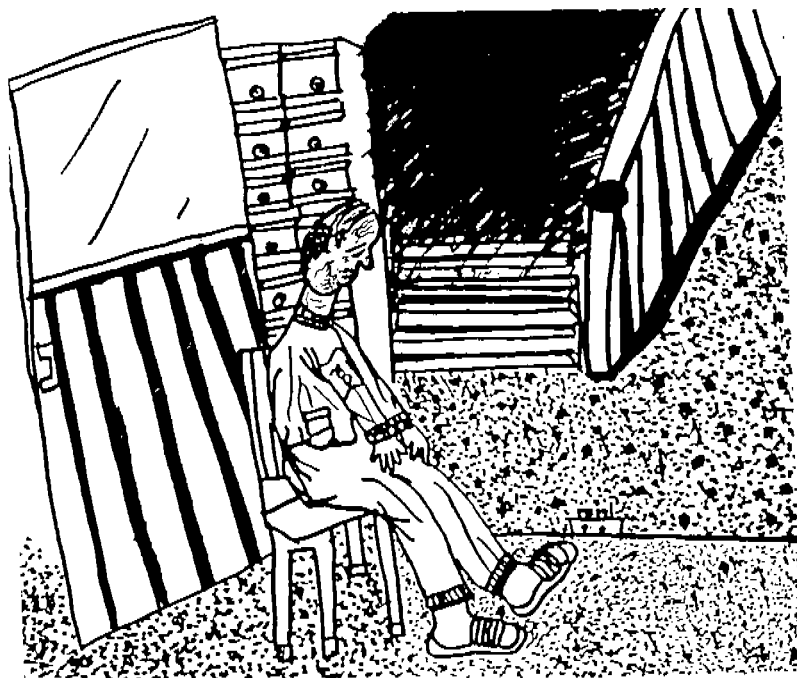
자료 : 박노열, 1992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1988 ; 함병수 외, 1994a.

토론 결과 정리하기



토론 결과물 만들기
신문 제작하기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VI



「경비 아저씨」

학교를 마치고 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주무시고 계셨다. 잠이 깼을까 봐 살금살금 들어왔다. 들어오면서도 계속 경비 아저씨를 보았다. 아저씨라고 부르기에 좀 늙은 아저씨. 머리카락도 몇 개 없고 얼굴은 주름투성이다.

이런 분이 경비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난 애처롭다. 살금살금 들어간 나는 포도를 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다. 아저씨 무척 고맙다고 하시면서 드셨다.

기분이 참 좋았다. 경비 아저씨께서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숙박소라도 있으면 좋겠다. (윤지현 글·그림, 국교 6, 1993. 11. 11)

자료 : 이호철, 1995.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흘리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14 토론 결과물 만들기

활동개요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기록에 남기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토론결과를 정리하고 외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토론내용과 그 실천사항들을 더욱 확실하게 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갖도록 한다.

활동목표

- 1) 토론내용을 기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 2)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

준비사항

토론기록장, 필기도구, 백지모조지, 색연필, 색싸인펜 등 꾸밀 수 있는 색채필기도구, 칼 또는 가위, 풀 등

활동방법

[과정 1] 보고서 작성하기

토론활동 과정에서 발표된 토론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만든다. 조사결과 발표 세미나, 강연, 여러가지 분과토론, 연설 등 모든 토론 진행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본다.

여기에 여러가지 보충자료들을 첨부하여 행사 이후에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도 기획해 본다. <참고자료 1>

[과정 2] 토론공책 기록하기

서기가 기록하는 공식기록과 별개로 각자 토론과정에서 느낀 점, 의문나는 점, 주요쟁점, 보충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할 부분 등을 개인 토론공책에 기록함으로써 지속적인 토론활동 과정을 통해 얻은 토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축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토론공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날짜, 장소, 참가자, 사회자, 발제자, 토론 주제, 발제문 요약,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 나의 입장(비판과 찬성, 또는 반대에 따른 논리적 근거, 자료), 결론, 토론주제와 관련한 자료(신문 스크랩, 문헌자료 등), 이후 과제, 소감

토론공책은 일정하게 하나의 틀로 만들어 토론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해도 좋고 각자 자신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도 좋다.<활동 6 참고자료 1>

[과정 3] 플랭카드 문안 작성하기

토론의 실천 및 홍보사항 등을 정리하고 알리는 과정으로 ‘플랭카드문안’을 만들어 본다. 토론결과로 나온 내용 중에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플랭카드 문안으로 만들어 본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 간결하면서도 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을 만든다.

[과정 4] 광고문안 작성하기

토론결과를 가지고 ‘광고문안’을 만들어 본다. 전체 지역주민의 의식과 생활태도 또는 지역생활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공익광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음악과 동작이 함께 들어가는 텔레비전 광고, 지면을 통한 신문광고를 만들어 보고 일반 선전물 형식으로 광고전단도 만들어 본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는 5~7명 정도로 모둠을 만들어 직접 광고내용을 극으로 꾸며 발표한 후 서로 평가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토론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진다.

[과정 5] 책받침 만들기

토론내용으로 ‘책받침’을 만들어 본다.

토론주제와 관련한 내용 또는 토론이 끝난 후 느낀점이나 소감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신의 다짐 내용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해도 좋다.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표현한 다양한 내용을 종이에 표현한 뒤 코팅을 하면 멋진 책받침이 만들어진다. 책받침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일정한 공간에 전시하여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전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친구들끼리 책받침을 돌려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으며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다.

만들어진 책받침을 늘 이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다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책받침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예시

- 토론활동을 함께 했던 소그룹 친구들에 관련된 사항 : 돌아가며 친구에게 한마디, 인상적인 특성, 친구들의 사진 등
- 토론주제와 관련된 사항 : 토론내용에서 느낀 점, 자신의 각오, 실천사항, 주제와 관련된 문구(속담, 명언, 스스로 고안한 표어) 등.
- 기타사항 : 좋아하는 시나 그림, 자신이 지은 시나 글, 좌우명, 좋아하는 명언,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의 사진 등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성을 살린 창작품을 만들어 본다.

[과정 6] 명함 만들기

일반적으로 명함은 자신을 알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 주고받는 일종의 소개장이다. 토론활동을 끝낸 후 소집단토론이었을 경우 같은 집단 친구들에게, 대집단 토론이었을 경우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에게 자신의 명함을 전달한다.

명함은 토론과정을 정리하면서 직접 만들어 본다.〈참고자료 2〉

- 종이를 가로 10cm, 세로 7cm정도 크기로 자른다. 앞뒷면을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앞면과 뒷면을 적절한 그림과 내용으로 꾸민다.
앞면에는 사진, 이름(한글, 한자, 영문 등), 전화번호(이동통신기 번호 등), 주소, 소속(학교, 단체)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그림을 넣어준다.
- 뒷면에는 ‘책받침’에 넣었던 내용과 같은 종류의 글을 실는다. 명함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첨부시키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장래 희망,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자신의 별명 등.
- 명함을 꾸밀 때는 최대한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자유롭게 표현한다.
- 특정한 몇 명에게 줄 때는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여러명에게

나누어 줄 명함을 준비해 놓기 위해서는 복사를 하거나, 명함 집에 맡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사를 할 때는 앞뒷면이 잘 맞추어지도록 주의를 한다. 명함을 인쇄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개 1백장에 3~4천원이면 가능하다.

- 명함을 주고받아 자신을 알림으로써 토론결과에 대해 자신의 다짐이나 실천사항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

유의사항

- 1) 토론내용과 결과를 공식적인 서면에 기록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흥미있는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
- 2) 토론결과를 정리하는 활동이 단순히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토론활동을 함께 했던 구성원들과의 만남과 상호작용과정을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본 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보고서 쓰는 법

- 1) 보고서의 형식
 - 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반드시 갖춘다.
 - ② 표지와 목차를 만든다. : 목차의 검토에 의해 논지 전개의 논리성, 문제의 제기와 해결 방식, 논의의 충실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주’와 참고문헌 목록이 있어야 한다.
- 2) 보고서 작성의 실제
 - ①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는 개괄적이고 큰 주제보다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은 주제를 잡는다.
 - ② 자료수집 기간, 정리기간, 집필기간으로 시간적인 계획을 세운다.
 - ③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찾는다.
 - ④ 기존연구에 대해 조사·검토한 후 필요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 자료 : 김해식, 1993.

김○○

이명 팔은이

.. (198) 255 7011 사형에 태어났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00A. 000

 (02) 502-0000

B.P. 012-000-0095

e-mail: 00-000- - -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활동 15 신문 제작하기

활동개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토론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신문으로 제작해 본다. 즉, 여러가지 사건·사실을 다룬 기사, 사설이나 각종 칼럼, 독자투고, 시사만화 등 다양한 신문의 내용을 직접 구성하고 토론주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기사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활동목표

- 1) 신문 제작 과정을 통해 토론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 본다.
- 2) 신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공동창작의 기쁨을 느낀다.
- 3) 신문의 제작과정과 제작방법 등을 배우고 익힌다.

준비사항

만들고자 하는 신문 크기의 종이, 필기도구, 기사자료, 사진, 풀, 가위

활동방법

- 1) 편집기획 회의를 통해 신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토의하고 가안을 만들어 본다. 기존 신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적인 형식과 내용을 기획한다.
 - 신문 내용의 예 : 토론행사 보고, 토론내용, 토론결과, 사설, 주제와 관련된 시사성 기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관련 지역인사와의 인터뷰, 토론 구성원 소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들의 글, 특정 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책소개, 관련주제에 대한 자료와 자료수집 방법, 만평<참고자료 2>, 네컷만화, 함께 부르는 노래, 주제와 관련한 기획특집, 청소년 발언대, 찬반 토론면, 카메라 고발, 광고, 생활 정보, 탐방 기사 등이 있을 수 있겠다.
- 2) 발행 면수를 정하고 각 면의 담당자를 결정한다.

신문의 몇 면의 어느 부분을 누가 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자발적으로 관심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맡을 부분을 나눈다.

반드시 일간 신문의 크기와 분량을 따를 필요는 없다. 타블로이드 판(일간 신문의 1/2 크기) 4면 정도로 만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벽신문 형식으로 만들어도 좋다.
- 3) 기사성 원고는 몇 명이 기자역할을 맡아 직접 작성한다. 인터뷰를 통한 취재 시, 기사작성 시 유의할 점들을 잘 알고 실행한다.<참고자료 3>
- 4) 각자가 맡은 여러 부분의 원고를 마감날짜에 늦지 않게 준비한다.
- 5) 모아진 원고를 가지고 원고의 내용과 분량 등을 고려하며 편집 회의를 한다. 이때는 실제 만들 신문 크기의 종이를 놓고 각 부분을 내용별로 나누어 가면서 하도록 한다. 내용으로 보아서 사진이 필요한 부분, 삽화가 필요한 부분을 표시한다.
- 6) 인쇄소에 넘긴다.
- 7) 1차, 2차 교정을 본 후 신문을 발행한다.

유의사항

- 1) 신문의 제작과정에 모든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배분한다.
- 2) 완전한 신문제작과정을 거치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여건과 능력에 맞게 신문 면수를 줄이거나 늘리고, 벽신문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이끌어 낸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신문의 기사작성 요령

1) 표제

기사문에서 맨앞의 큰 글씨로 쓰인 2줄이 표제이다. 첫 줄의 더 큰 글씨로 쓰인 것은 “본 제목”이고 아래의 더 작은 글씨로 된 것은 “부제목(부제)”이다.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압축한 어구나 문장으로, 그것만으로도 기사의 전체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2) 줄거리 또는 요약

표제 다음에 한 단락으로 쓰여진 글이 기사의 줄거리 또는 요약이다. 이것은 기사의 내용을 글로 요약한 것으로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줄거리는 표제와 함께 기사의 요지를 간결하게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3) 본문

본문은 기사의 내용을 되도록 상세히 기술하는 부분이다. 표제에서 처음 드러난 기사 내용은 줄거리에서 대체적으로 서술된 다음에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전모가 상세히 밝혀지게 된다.

4) 기사쓰는 요령

- 기사작성에 있어 정확, 신속, 간결, 공정, 평이는 생명이다. 특히 정확성은 모든 것의 우선으로 포괄적인 관찰과 공정한 사고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사화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모든 사실을 명백히 파악해야 한다.
- 성명, 주소, 숫자 등은 정확히 파악하고 미심쩍은 것은 다시 확인한다.
- 모든 기사는 표준말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구두점을

바로 짚어야 한다.

- 독자로 하여금 읽기 쉽고 알기 쉽게 끊어서 써야하며 한 문장은 되도록 1백자가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의 사용은 피한다.
- 주어와 술어 사이는 되도록 좁히고 수식어는 원칙적으로 삼가한다.
- 자기 개인의 의사표시는 삼가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 기사의 첫머리는 너무 길어 지루한 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 기사의 출처는 명백히 밝힌다.
-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등 6하원칙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2〉 신문 만평 그리기

1) 만평 그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

- 만평의 함축적 의미 전달력을 이해하여 현실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현실에서 학생 스스로가 알고 있는 여러 사실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법과 그 극복에 대해 생각한다.

2) 만평 그리기 활동

- 주제를 정한다.
- 주제에 맞는 작품내용을 구상한다.
- 캔트지에 정방형의 칸을 만든다(10cm×10cm)
- 연필로 스케치한다.
- 그림이 완성된 후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구나 대사를 만든다.
- 펜으로 베껴 그리고 지우개로 연필선을 지운다.
- 그림자, 배경, 옷의 무늬 등을 스크린톤으로 붙여 표현한다.

- 문구나 대사를 써 넣어 완성한다.

〈참고자료 3〉 인터뷰의 활용

1) 기자 수첩의 사용법

- 취재(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상단에 취재 내용,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이름, 인터뷰 날짜, 시간(시작한 시간과 끝난 시간), 요일, 장소 등을 꼭 기입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 다시 글을 쓸 때 이용하기 편하다.
- 기자 수첩에는 많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 넘기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빠짐없이 적는다.
- 인터뷰의 경우, 적다가 미심쩍거나 잘못 알아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그었다가 그 자리에서 확인하든지 인터뷰가 끝났을 때 다시 확인한다.
- 수첩에는 자료도 함께 붙여 둔다. 자료(상대방의 이력서, 행사장 팜플렛, 신문 자료)는 원본 그대로 혹은 복사해서 모아둔다.
- 이름의 한자 획이나 영어 스펠링을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써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으며 기자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 상대방이 말하다가 “off the record”(기사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자에게 말하는 것)를 걸면 일단 펜을 놓고 말한 부분만큼 공백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고 “off the record”임을 원이나 사각형 등으로 표시한다.
- 수첩에 기록하는 것은 문자 만이 아님을 명심한다. 취재 지역의 약도, 건물 모양, 지역 특성,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 사람 이름, 숫자, 지명, 주소 등은 한번 더 확인해 두는 게 좋다.
- 인적 사항(출신지, 생년월일, 주소, 직업, 연락처)을 꼭 기록해둔다.

2) 인터뷰의 진행

-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복장은 언제나 단정해야 한다. 또한 기자의 복장은 인터뷰하러 가는 장소와 사람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 피회견자와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인터뷰에 응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 자리에 앉자마자 수첩을 꺼내서는 안된다. 상대방은 긴장된 상태에 있다. 거기에다 기자 수첩을 보면 더욱 몸이 굳어질지 모른다. 우선은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 수 있는 화제로 상대방을 끌어간다. 수첩은 네 번째 질문을 할 때쯤 해서 꺼내 놓고, 상대방에게 수첩을 사용하는 데 대한 양해를 구한다. 녹음기를 사용할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한다.
- 상대방이 기자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수 있는 쉬운 질문부터 시작한다.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무거워져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기 어려워진다.
- 암시적 말보다는 구체적 질문을 한다.
- 어느 정도 상대방이 기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본 질문으로 들어간다.
- 사건에 관한 것을 물을 때는 신문기사의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에 따르도록 한다.
- 상대를 존경한다. 비록 아무 이야기가 없을 경우도 상대방에게 흥미 또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항상 예의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경우라도 언제나 수첩에 메모를 한다.
- 상대방의 말을 도중에서 가로채서 끊지 않도록 한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이다. 기자의 역할은 상대로 하여금 생각대로 열심히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만약 인터뷰 대상자가 잠시 침묵을 지키더라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침묵 후에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 논쟁이나 비판적인 어조는 삼가한다. 또한 토론을 통해 기자의 본심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 인터뷰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는 인터뷰 도중 빠뜨렸거나 화제가 되었던 문제를 보충 질문을 하여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4〉 신문을 활용한 활동 : NIE

NIE(Newspaper in Education)란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신문은 오래 전에 매체에 대한 균형잡힌 비판의식을 키우고 사고의 자율성을 고무하는 매체교육의 일환으로 개별 교사들에 의해 교육에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문사와 교사가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NIE이다.

학생들에게 그날의 신문을 읽게 하여 자신이 택한 기사를 발표하게 하는 것 자체로도 발표력을 키우고,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신문을 찾아보고 토론을 하는 것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NIE의 교육적 효과는 독서기술 습득, 독서에 대한 흥미증진, 현실에 대한 관심과 지식 증대, 작문력과 발표력 향상,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능력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김훈순, 1994; 변영애, 1993; 서정수, 1991; 우리교육 1992.4; 중앙일보사, 1995.

〈참고자료 5〉 청소년 신문제작 사례 : 홍성 YMCA

- 1) 대상 : 홍성지역 청소년(중, 고등학생) 15명
- 2) 활동내용
 - ① 기자교육(취재, 편집, 원고작성, 사진촬영 등)
 - ② 신문제작 : 창간호 1995년 11월 중순 제작, 연 4회 제작(5,000부)
신문판형 : 타폴로이드 8면
내용 : 보도기사, 사실, 서평, 만평, 인터뷰, 기획물, 이런일저런

일, 알림광고, 학교탐방, 청소년클럽탐방, 지역바로알기, 지역얼굴 찾기 등

3) 청소년기자단 조직체계

① 발행인 ② 지도교사 3명 ③ 편집장(기자단 학생 대표 1명)

④ 취재부(학생기자 중 1명) ⑤ 편집부(학생기자 중 1명)

⑥ 사회, 교육부 ⑦ 문화예술부 ⑧ 취미생활부 ⑨ 환경과학기술부. 각 부별 학생기자 3~4명

자료 : 흥성 YMCA 「청소년 기자단」 사업계획서.

토론 결과 알리기



전자통신 토론하기
자기주장대회
선언문 발표하기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Ⅶ

「강자와 약자」

강한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며
다른 사람이 그에게 의지하고자 하면 따뜻하게 안아준다.
약한 이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억누르려고 한다.

강한 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민감하다.
약한 이는 자신의 감정에만 예민하다.

강한 이는 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도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야’ 하고 그 방법 찾기에 골몰한다.
약한 이는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남들도 늘 이렇게 해왔는데’ 하고
손발에 길들여진 대로 일을 한다.

강한 이는 한가지 큰 문제를 여럿으로 쪼갬다.
그리하여 해결하기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풀어 나간다.
약한 이는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도 그때그때 풀지 않고 모아둔다.
그러다가 목전에 당도해서야 갑자기 그 문제 덩어리를 끌어안고 바둥거린다.

강한 이는 기분 나쁜 대우를 받으면 솔직이 그 불쾌한 마음을 털어놓고
해명한다. 그리고는 그 감정을 그때로 씻어버리고 다시 평화를 회복한다.
약한 이는 기분 나쁜 대우를 받으면 겉으로 승복하나 속으로는
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마음 속에
쌓아 두었다가 복수하려고 버린다.

강한 이는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듯 반가이 맞으며
모든 것을 마지막 보내는 듯 철저히 한다.
약한 이는 모든 것을 늘 보듯이 덤덤히 맞으며 모든 것을 다시 만나서 할
것처럼 적당히 해둔다.
자료 : 정채봉, 1994.

☞ 강자와 약자, 과연 나는 어느 쪽일까?

활동 16 전자통신 토론하기

활동개요

첨단정보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전자매체가 발달되고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PC통신을 통한 토론활동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중요한 토론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활동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얻어진 종합적인 결과를 널리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러한 PC통신을 이용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통신에 대한 기초능력을 기르고 직접 컴퓨터 통신을 실행해 본다.

활동목표

- 1) 컴퓨터 통신을 통한 토론방법을 배워 스스로 실행해 볼 수 있다.
- 2) 컴퓨터 통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과 자신의 주장을 알린다.

준비사항

전화선이 연결될 수 있는 장소

모뎀이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PC) 10대 이상(참가 인원수에 따라 조정) 개인용 ID(이용자 번호), 비밀번호(통신회사 협조)

활동방법

1) 지도자는 컴퓨터 통신에 대해 설명한다. 청소년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컴퓨터를 직접 만져보고 실행해 본다.

① 컴퓨터 통신이란 무엇인가.

② 컴퓨터 통신을 위한 준비 : 전화, 전화선, 모뎀기기, 통신용 프로그램(통신용 에뮬레이터)

③ 모뎀에 관한 이해

④ 통신용 에뮬레이터 소개(대표적인 프로그램 : 이야기 5.3, 이야기 6.1) : 이야기의 소개 및 특징, 이야기의 설치, 이야기 실행 방법, 메뉴

⑤ 다양한 통신이용법 안내(하이텔(Hitel), 천리안, 나우누리, 인터넷)

2) 이론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컴퓨터를 실행해 본다.(본 예시는 하이텔)

① 이야기 실행하기

- 이야기 초기화면에서 「Enter」키를 누른후, **[F10]**키를 누른다.
- 나타난 화면에서 필요한 명령어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F1]**키를 누르면 자세한 도움말이 나온다.

② 전화번호부 만들기

- **[F10]** 키를 눌러서 이야기 메뉴판을 띄운다. <특수기능>의 <전화걸기>에서 「Enter」키를 누르면 전화번호부 화면이 뜬다.
- 여기에서 원하는 번호에 커서를 두고 삽입을 뜻하는 'I'를 누르면 맨 위에 줄이 하나 삽입되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 수정을 뜻하는 'E'를 누르고 이름에는 “하이텔”, 전화번호는 01410이라고 치고, 전송속도에는 자신이 가진 모뎀의 최고속도를 친다. 그 다음의 것들은 그냥 「Enter」키를 치면 된다.
- 다 되었으면 저장을 뜻하는 'W'를 누르고, 이 때 나타난 화면에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름으로 「Enter」키를 누른다.

③ 하이텔에 가입하기

- 가입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전화 또는 우편을 이용
- 정보이용료 : 정액, 선불제. 1개월 9,900원/3개월 28,200(5% 할인)/1년 99,000원(16.7% 할인)

④ 온라인 등록시 유의사항

- ID : 사용자의 이름 대신 통신상에서 불리워지는 또하나의 이름
- Password(비밀번호) : ID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
- 이용자번호(ID) : 영문, 혹은 숫자의 조합들로 4자 이상 8자 미만으로 입력해야 한다. 특수문자나 띄어쓰기는 안된다.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이텔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한다.
- 이용자명 : 사용자의 이름을 빈틈없이 입력한다. 이야기의 경우 영문/한글의 전환은 왼쪽 Shift키와 Space Bar키를 동시에 누르면 된다.
- 비밀번호 : 4자 이상 8자 미만의 영문소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면 좋다. 가급적이면 외우기 쉬운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외워두고, 수첩 등에 적어둔다.

⑤ 하이텔 정보 이용하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명령어를 사용하여 크게 분류된 본 가지부터 점점 세세한 정보의 가지로 들어가면 된다.

■ 많이 쓰이는 하이텔 명령어

Hi	서비스의 안내 화면을 부른다.
GO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다.
T(Top)	초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M(Main)	상위 메뉴로 이동한다.
P(Past)	상위 화면으로 이동한다. 즉, 방금 본 정보의 바로 윗 화면으로 이동한다. 사용하고 있는 정보방을 나올 때 쓴다.
B(Back)	앞 화면으로 이동한다.(F와 반대)
A(Ahead)	앞 항목으로 이동한다.
F(Front)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현재의 화면이 1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사용한다.(B와 반대)
N(Next)	다음 항목으로 이동한다.
H(Help)	도움을 청하는 명령어. 입력 상태 화면에서 그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보여준다.
X(Exit)	현재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전화를 끊게 하는 명령어. 이 명령어를 내린 후 정말로 마치려면 'Y'를 입력하고 <Enter>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⑥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

- 게시판(GO BBS) → 알림마당 → 큰마음(토론활동)
- 여론광장(GO POLL) → 토론의 광장/청와대 큰마당/국가안전기획부와 함께/정치마당(정당별)/정책포럼(국회의원별)
- 전자우편(GO MAIL) → 편지를 통해 의견 교환 가능.
- 대화실(GO CHAT) → 총 100개의 대화실 개설 가능. 각 대화실은 인원 제한 총 12명.

⑦ 대화실 이용하기

■ 대화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대화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대기실'이라는 대기실에서 입력하는 방법과 대화방 안에서 입력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대화방 안에서 입력하는 명령은 대화 내용과 구별하기 위해 명령어 입력 전에 '/'를 입력해야 한다.

ST	Status. 대기실 및 대화실의 상황을 보여준다. 방 안의 전체 인원을 볼 수 있다.
O	Open. 대화실을 새로 개설한다. 하이텔이 지원하는 대화방의 개수는 100개로 제한되어 있다. 개설을 공개방으로 할 것인지 비공개방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J	Join. 방에 들어갈 때 사용한다.(J+원하는 방번호) 비공개방에 들어갈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IN	현재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방 번호를 보내 대화를 하고자 하는 뜻을 밝힌다.(IN+ID)
WH	Where. 입력한 ID의 사용자가 어느 대화방에 있는지 찾아준다.(WH+ID)
TO	귓속말을 하게 한다.(TO+ID) 이 명령은 대화방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제를 하려면 다시 '/TO' 를 입력한다. 보통 귓속말만 하는 방을 잠수방이라고 한다.
Q	Quit. 대화를 마치고 대기실로 빠져 나온다.

■ 대화실 이용하기

- 대화실의 방을 쭉 둘러보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방을 정해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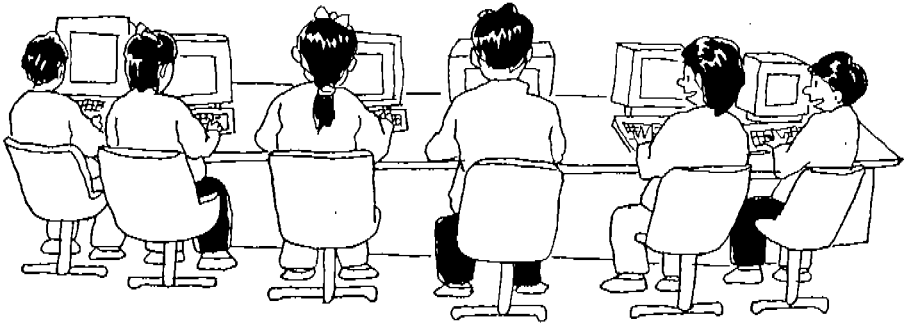
‘J 방번호’ 「Enter」

- 대화를 나눌 때는 다시 **[F10]** 키를 눌러서 〈이야기 하기〉를 선택한다. 또는 〈Alt+C〉 키를 눌러도 된다. 그러면 화면 밑이 둘로 갈라진다.
- 자신이 쓴 글은 밑에 나온다. 글을 보내고 싶으면 「Enter」를 친다.
- 대화를 나눈다.
- 방을 빠져 나가고 싶으면 ‘/Q’를 누르면 된다.

⑧ PC통신으로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

- 항상 존대말을 쓴다.
- 자신을 소개한 후 대화에 참여한다.

-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인사를 한다.
-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항상 환영의 인사를 한다.
- 저급한 이야기나 나쁜 언어는 쓰지 않는다.〈참고자료 1〉
- 전화요금이나 시간을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 1) 컴퓨터 통신을 통한 토론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조건을 갖춘 담당지도자를 선정해 놓는다.
- 2)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여러가지 통신망 중에서 하나의 통신회사를 선정하여 본 청소년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잘 알리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3)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 뿐 아니라 건강한 통신토론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대화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정겨운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란물, 저속한 언어, 기타 통신상에서 금하는 내용으로 대화실을 이용할 경우 즉각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대화방 개설시 ID 공개등록 이와 관련 9. 게시판(BBS) - 큰마울(PLAZA)에 공지.

(참고)

* 3차 사용중지 : 음란물 게재, 저속한 언어, 음란방에 참여한 이용자 포함 (야설방, 야설 교환, 야한 gif 교환). 기타 이에 상응한 내용, 기경고자.

* 전화, 우편, 컴퓨터를 통한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확정.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대화실에서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신문고(SMG)나 pccom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4. 4. 26

「ENTER」를 누르십시오.

잠시 기다리십시오.

〈참고자료 2〉 컴퓨터 통신에서 쓰이는 용어

1) 채팅실의 재미료?! 의성어 의태어

- 짤 : 대화방에 들어설 때나 나올 때 산신령이된 듯한 기분으로 '짜짤', '짤'이란 말을 사용한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던 대화방에 다시 들어갈 때 써도 좋은 말.
- ... : 대화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부호. 때로는 할 말이 없을 때, 때론 우울할 때, 때론 기운이 없을 때, 때론 울고 있을 때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다.
- 찼 : 무안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찼'이라는 의성어
- 음냐 :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거 쑥스럽구만', '따분합니다'

등 말 전후에, 뚝들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다.

- 쪼옥 : 대화방 나갈 때 하는 재치있는 표현, 각별한 사이라면 정말 즐거운 표현이 아닐까?
- 빠이~ : 헤어질 때 하는 말이다. ‘빠2’라고 쓰기도 한다.
- 이만 : 방을 나설 때 하는 말인데 대화를 재밌게 하다가 이 말을 꺼내면 대부분 안 봐주려고 할 것이다. 가지 말라는 유혹이 엄청 심할 것이다. 그러나 곳곳하게 ‘이만’을 쳐 보내자. 이것은 ‘20000’이라고 치기도 한다.
- 후다닥 : 갑작스러운 동작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말이다. 나가거나 들어올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2) 대화방에서 자주 쓰이는 그림문자

■ 미소/웃음(옆으로 돌려 보십시오)

- | | |
|--------------------|-------|
| ① 경멸적/선정적으로 웃는 얼굴 | = -) |
| ② 재수 좋게 무언가를 얻었을 때 | \$ -) |
| ③ 웃음 | : -D |
| ④ 소박한 미소 | : -) |
| ⑤ 윙크 미소 | ; -) |
| ⑥ 또다른 행복한 얼굴 | : -> |

■ 분노/슬픔(옆으로 돌려보십시오)

- | | |
|-------------|--------|
| ① 찌푸리다/찡그리다 | : -(|
| ② 고함치다 | : -(0) |
| ③ 울음 | : -(|
| ④ 정말 싫어 | : -c |
| ⑤ 고독한 | : -< |

■ 기타 감정(옆으로 돌려보십시오)

- | | |
|-----------------|--------|
| ① 메롱(혀를 내밀며 놀림) | : P |
| ② 녹초가 된 얼굴 | : -l |
| ③ 무표정한 얼굴 | : -I |
| ④ 깜짝놀란 | : -<> |
| ⑤ 충격받은 | : -() |
| ⑥ 난감한, 당혹한 | : -& |

- ⑦ 지루한, 따분한 : -o zz zz Z Z
- ⑧ 생각하는 : -\
- ⑨ 믿을 수 없는(턱이 떨어진) : -C
- ⑩ “Oh nooooooooo!” : -o

3)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는 채팅(대화실) 언어

■ 채팅약어

- ① 어서오세요 → 어쵸요
- ② 그렇군요 → 글썽요
- ③ 안녕하세요 → 안냐세요
- ④ 우스워요 → 피식
- ⑤ 저 나갈게요 → 지나가여
- ⑥ 우리 둘만 얘기해요 → 잠수해여
- ⑦ (윙크) → (-*)
- ⑧ 사랑해요 → 3E(뽀뽀모양)
- ⑨ (침묵) → ...
- ⑩ 얘기 안하세요? → zzz?
- ⑪ 밥 먹었어요? → 밥 무거요

■ 채팅실의 독특한 문법

- ① 항상 끝부분은 ‘... 여’로 끝낸다.
(예) 안녕하세요여 ... 잘 가세여 ...
- ② 띄어쓰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예) 저밥먹고올게여, 우리집이옆으로 이사왔어여
- ③ 연음법칙을 꼭 지킨다.
(예) 화며니떨리네여
- ④ 묻는 말도 ?를 붙이지 않는다.
(예) 어디가시게여
- ⑤ 의성어 의태어는 되도록 과격적인 말을 쓴다.
(예) 푸하하하, 후다닥, 발라당

자료 : (주)서운관, 「도깨비방망이」, 1995년 7·8월호, 통권 제6호.

☞ 잠깐! 생각해봅시다

위에서 본 짧고 즉흥적이며, 생생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은 기계문화의 딱딱함에 훈훈한 입김을 불어 넣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행 맞춤법과 문법을 무시한 표기법으로, 특히 맞춤법 지식이 확고해지지 않은 국고생 및 중학교 하급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상황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표현을 자유와 개방의 이름으로 남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여 적절히 사용해야겠습니다.

활동 17 자기주장대회

활동개요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주장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얻어진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주장대회에서 연설 능력을 견주는 과정을 통해 더욱 신장된 발표력과 연설능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활동목표

- 1) 대중 앞에서 자신있게 논리적 주장을 펼 수 있는 연설능력을 기른다.
-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장 발표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준비사항

연단, 마이크, 의자배치(연설자 준비석, 심사위원석, 청중석), 식순, 행사안내 팸플렛, 평가기준표, 투표용지, 서기, 녹음기와 테이프, 비디오 촬영기사 또는 사진기사 및 필요한 장비

활동방법

[과정 1] 자기주장대회 준비하기

1) 확대운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내용 : 행사기획, 계획세우기, 준비사항 점검, 역할 분담, 연설주제 결정, 심사위원 선정 방법, 진행자 선정, 평가기준 결정, 평가기준표 만들기, 상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청중 모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마련)

2) 자기주장대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붙인다.

(공고문 내용 : 참가 인원, 개최 일시, 연설 시간, 유의 사항 등)

3) 지도자, 청소년들이 골고루 참여한 심사위원단을 선정한다.

[과정 2] 자기주장대회 개최하기

1) 장소 및 시설·준비물 등을 준비한다

- 연단, 마이크, 자리배치, 게시물(제목, 식순, 발표자), 상품, 투표용지
-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지 투표용지를 나누어주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적어 전체 발표자 연설이 끝난 후 투표함에 넣어줄 것을 부탁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한가지씩 쓰게 한다.

2) 사회자는 행사 시작을 알린다.

3) 분위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래나 공동체 놀이를 한다. (친교부장)

4) 사회자는 행사의의, 진행계획을 간단히 소개한다.

5)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을 소개한다.

6) 청소년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단상 위로 나가 발표한다.

- 청중들은 연설에 잘 호응을 해주고 적절한 시기에 박수를 치면

서 격려한다.

- 사회자는 전체 흐름을 잘 판단하고 진행의 속도와 내용을 융통성있게 잘 구성한다.

7)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잠깐 휴식시간을 갖는다.

이 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8)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미있는 노래나 공동체 놀이를 한다.

9) 입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10) 행사를 마친다.

행사 직후 얼마 동안 자유토론시간을 주어 연설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발표자나 비슷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의사항

- 1) 연설자는 대회의 결과보다 연설의 준비과정에 더 의미를 두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청중들도 앞에서 발표하는 연설자들을 나름대로 평가함으로써 배울 점을 찾는다.
- 2) 시상의 의미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모으고 더욱 격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상자를 선정할 때 그 사람의 발표능력 뿐 아니라 노력정도, 발전 가능성, 다양한 측면의 우수성 등을 찾아 골고루 상을 주도록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연설하기

1) 연설 준비과정

- ① 주제 선택
- ② 연설의 목적 설정
- ③ 청중분석(청중의 특성, 수준)
- ④ 연설할 장소와 때의 분석(특히 시청각 기자재 사용시)
- ⑤ 자료 찾기

연설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 관계된 책, 학술잡지, 백과사전이나 연감, 신문, 인터뷰, 견학, 씨배이 리서치, 관찰, 시각자료모으기(사진, 그림, 스케치, 도표, 그래프 등)

⑥ 연설문 작성

⑦ 발표

2) 연설의 실제

① 연설의 예행연습

- 서론이나 결론으로 자기가 어떤 말을 써서 연설을 해야 될지 준비가 되었으면 이 말들을 개요와 함께 가로 5cm, 세로 3cm 크기의 메모 용지에 옮긴다.
- 오선 메모 용지를 보며 여러번 읽음으로써 자기가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한다.
- 방안에 서서 책상 위의 램프나 혹은 소파 위의 쿠션 등을 청중인 양 바라보며 말하는 것을 연습한다.
- 화술연구를 한다. TV나 라디오의 아나운서 화법을 본보기로 삼아 연습한다.

② 새롭고 창의적인 연설을 하기 위한 방법

- 남의 연설을 많이 들으러 다닌다. 남이 연설하는 것을 보고 좋은 점은 자신이 연설을 할 때 적용해 본다. 또 남의 연설을 듣는 동안 내가 연설을 했을 때 잘못했던 점도 깨닫게 되므로 연설장에는 될수록 자주 가보는 것이 좋다.
- 연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연설을 하는 도중 좋은 예를 들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 한다.
- 연설을 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말할 것에 대해 변화를 주어가며 연습을 해 본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가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연설이 나오게 된다.
- 연설을 하기 전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분위기에 알맞는 말을 꺼낼 수 있다. 나 자신을 어떤 종류의 청중이든 그 청중에게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설을 잘하기 위한 비결이다. 그러나 분위기 파악은 역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설의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③ 효과적인 연설 방법

- 듣기 좋은 이야기의 스피드는 1분 간에 250어~300어 정도이다. 속도를 적절히 조절한다.
-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점, 듣는 사람이 충분히 생각해주시기 바라는 점은 강한 어조와 약간 긴 듯한 침묵(간격)으로 효과를 올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5초에서 7초, 심호흡 2번 정도의 ‘간격’이 적당하다.
- 친구와 이야기할 때처럼 친숙한 눈으로 청중을 둘러봄으로써 청중에게 친근하게 융합되도록 한다.
- 재빨리 청중의 반응을 알아채서 청중이 흥미를 일으키도록 화법 변화, 어조의 높낮이 조절 등 이야기의 표현방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하면 원고를 모두 외우도록 하고, 간략한 메모를 해가며 상황의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3) 연설할 때의 자세

청중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은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가지고 똑바로 선 자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 연단에 등단할 때나 하단할 때에는 자신있고 늙름한 자세로 해야하며, 가능한 한 깨끗한 복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몸을 앞으로 구부리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선다. 몸의 중심은 발톱 끝에 놓는다. 이렇게 하면 긴장한 몸이 풀리고, 더구나 적당히 긴장한 진면목이 나타난다.
- 연단 위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테이블에 기대지 않도록, 테이블과 조금 떨어져서 비스듬히 마주 보는 것 같은 위치를 잡는게 좋다.
- 긴장된 딱딱한 자세, 양다리를 벌리고 힘껏 버틴 모습은 청중에게 웅색한 느낌을 준다. 자연스럽게 손을 처리하고, 체중은 발 뒤꿈치에 놓는 것보다 다리 관절 주변에 놓는 편이 좋은 자세가 된다. 몸을 상하로 흔들거나 무릎을 떠는 것은 피한다.
- 청중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해를 못하거나 반대의사를 갖는 경우가 생기면 다시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팔동작, 몸짓, 표정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단상에서의 동작 : 청중의 눈은 본능적으로 단상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뒤를 쫓아 이동하고, 그곳으로 모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설자의 동작을 적당히 이용하면 예상 외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 청중에게 적당히 들리고 싶지 않은 경우, 혹은 잘못 들리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중요한 점에 이르렀다는 의사표시이다. 청중은 이 정도의 동작으로 연설자의 긴박한 기분을 직감적으로 헤아린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난다. : “다음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테니까 긴장을 풀어 주십시오.” 라는 암시로 청중에게 기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중요한 말의 시작 시기임을 알린다.

연단으로 올라갈 때나 연설을 끝내고 연단에서 물러날 때는 냉정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적당히 엄숙하고 무게있게 움직이고, 특히 연설을 시작할 때는 연단에 올라 편안한 자세로 대중 청중을 훑어보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료 : 변영애, 1993 ; 새생활연구회 편저, 1993 ; 우리교육, 1994년 7월호.

〈참고자료 2〉 연설 평가기준표

평가영역	평 가 내 용	성 취 도		
		A(3점)	B(2점)	C(1점)
내 용 면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폭 넓고 깊이있는 사고를 하였는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람직한가			
논 리 면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했는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구 성 면	내용 구성이 통일성이 있는가			
	단락 구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를 이용했는가			
표 현 면	모호하고 난해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정확한 발음과 올바른 태도로 말했는가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가			
종 합 평 가				

〈참고자료 3〉 자기주장을 펼치는 청소년 : 사례

「우리의 외래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희(계남고 1년)

안녕하세요. 저는 계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상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동이나 압구정동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보신적 있으세요? 아무 생각없이 지나쳐간 것이 아닌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서 걸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배꼽티나 쫄티 있는대로 내려입은 바지, 아니 걸쳐 있는 바지, 색색깔의 머리

칼, 헤어스타일, 장신구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외래 문화에 동화되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않게 있을 것입니다.

외래문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옷, 음악, 학용품, 음식문화, 놀이문화 등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예전에는 떡집이나 방앗간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눈에 띄는 것은 햄버거, 콜라, 피자, 웨이크들로 가득찬 패스트푸드점 뿐입니다. 그런 음식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레 떡, 식혜, 수정과 등 우리의 음식을 소외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우리의 음식이 아닌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옷차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옷문화가 우리나라 곳곳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성을 강조”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막상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획일화된 겉모습 뿐입니다. 게다가 외제상표인 베네통, 마리떼 프랑수아저버, 스테파넬, 닉스, 캘빈클라인, 게스, 미치코런던 등 처음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옷들을 이제는 마치 친구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 옷들을 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제 옷만 입는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의 수가 늘어 가면서 결국 나라의 경제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물건을 아끼고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도 없어질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즐겨 찾거나 부르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랩, 레게를 따라하고 가끔 잘 부르기라도 하면 영웅심리라는 것까지 생기고..... 우리의 음악인 가야금, 거문고 소리보단 테크노뮤직과 같이 훨씬 더 현란한 소리를 더 좋아하지 않으신지요?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사물놀이’ 소리..... 그 소리에 짜릿하고 가슴 찡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의 음악소리를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방, 락카페, 호프집을 찾기보단 이런 우리의 소리 한가지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님 우리의 전통

놀이를 찾아보고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필통속엔 과연 외제학용품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필통을 뒤져보니 자그마치 2/3 이상이 일본, 미국 학용품이더라고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능도 디자인도 비슷한데 왜 굳이 외제품을 쓰는지..... 무조건 외제라면 좋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국산품이 외제품보다 훨씬 더 비싼데도 국산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일본과 다르게 더 싼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나라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옷, 학用品을 사용하고, 우리의 것들을 아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외제품이나 외래문화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다’라는 말처럼 주체성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 부천 YMCA, 1995.

활동 18 선언문 발표하기

활동개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그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집약시킨 선언문 발표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의 뜻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동시에 활동결과를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진다.

활동목표

- 1) 토론활동을 통해 배우고 얻은 점을 바탕으로 우리시대 청소년이 나아갈 길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 2) 선언문 낭독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한다.
- 3) 지역사회 공개토론 활동의 결과를 널리 알린다.

준비사항

필기도구, 회의장소, 마이크, 연단

활동방법

[과정 1] 선언문 작성하기

- 1) 선언문 내용을 작성할 사람들을 선정한다.
- 2) 회의를 통해 선언문의 기본적인 골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 3) 전체토론과정 속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언문 초안을 작성한다.
- 4) 선언문 초안을 다시 검토하고 빠진 내용을 보충한다.
- 5) 선언문을 낭독할 사람을 결정한다.

[과정 2] 선언문 낭독하기

- 1) 장소와 연단, 마이크 등을 준비한다.
- 2) 지역사회 공개토론활동을 총괄적으로 정리한다.
- 3) 청소년 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한다.
- 4)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를 다지며 필요한 부분을 함께 낭독한다.

유의사항

- 1) 선언문 준비위원회는 토론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지속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토론결과를 정리하고 선언문 내용을 잡아나간다.
- 2) 선언문의 내용은 토론활동의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면서 장기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담는 내용으로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세계청소년대표자회의 채택 「서울 선언문」

「1995년 세계 청소년 대표자 회의」

기간: 1995. 5. 31~6. 2/주최: UN, 문화체육부/주관: 세계대학총장회, 한국청소년개발원/참가자: 세계 358개국 785명 외국대학생, 264명 외국대학총장 및 석학, UN대표 5명, 국내외 석학, 주한 대사 등 1,400여명/목적: 미래사회 청소년의 역할과 사명, 청소년

「도덕성 회복을 위한 서울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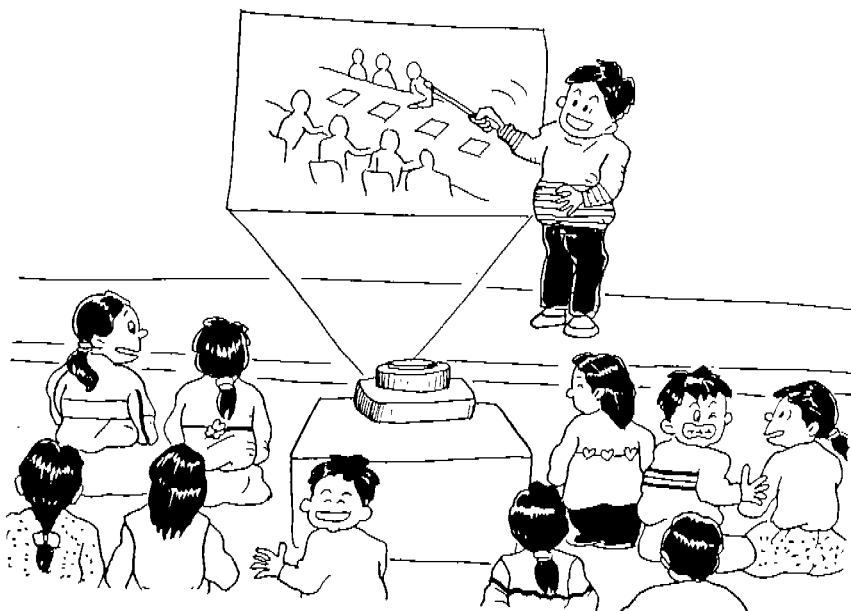
1. 극단적인 배급주의로 치닫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우리 인류는 물질적인 성과와 풍요에도 불구하고 인간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상실, 애정의 결핍, 소외로 인하여 각종 범죄, 청소년비행, 폭력, 테러, 사회불안 등이 우려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3. 우리는 자제력을 상실한 지나친 인간의 욕심이 환경과 인류를 격리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또한 극단적인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이기주의가 인종적, 윤리적, 종교적, 국가적 긴장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본다.
5. 우리는 사회에서 윤리적 행동의 근원인 가족제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6.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과 공적·사적 교육기관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세계의 윤리적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촉구한다.
7. 우리는 특별히 대중매체에서 상업주의나 감각주의를 피하고 건설적인 정보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8. 우리는 인류가 지구촌 그리고 세계공동체로의 위대한 전환기가 도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9.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세계시민정신을 위한 건설적인 지식과 가치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10. 우리는 지구촌과 모든 인류의 물질적·정신적 요구를 만족시켜 줄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적이고 지지될 만한 대안들을 찾을 것이다.
11. 보다 나은 세상의 건설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주고 다양한 사회에 대한 관용적인 인간성과 도덕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12.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시민과 함께 우리의

가족에 대한 책임과 단합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3. 우리는 우리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기관들이 보편적 가치들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14. 우리는 특별히 기본적인 윤리적·도덕적 원칙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대학과 다른 교육기관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15. 우리는 모든 우리의 동료, 세계시민들이 진정한 인류문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참가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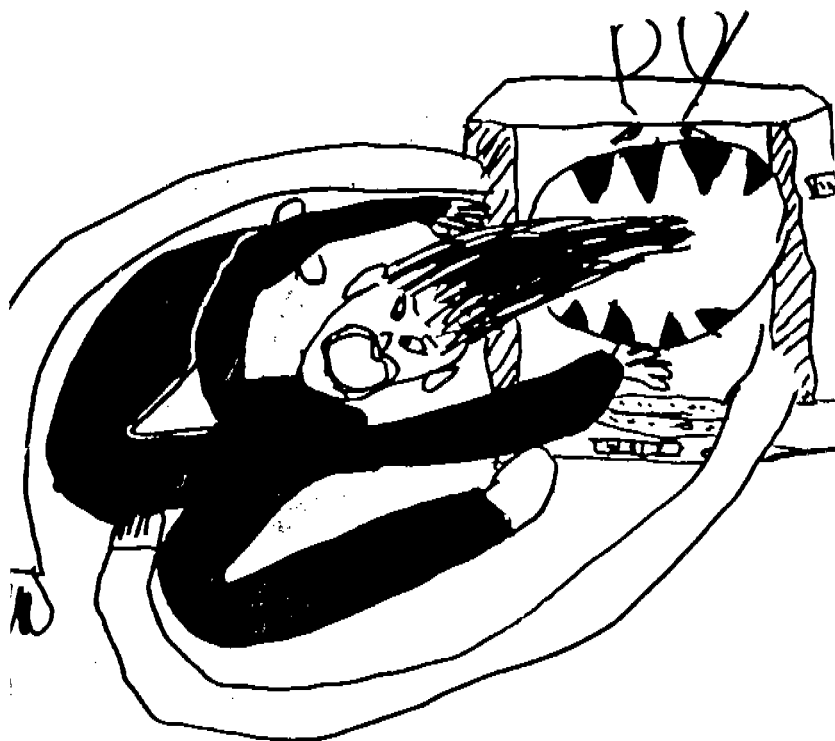
자료 :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1995 World Youth Leaders Conference, 1995.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활동 평가하기



활동수첩 기록하기
영상기록 관람하기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VIII



「텔레비전 귀신」

내 동생이 아버지 있는데도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그래서 그만 보라고 하였는데 들은 체도 안하고 계속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내 동생이 텔레비전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윤상혁 글·그림, 국교 6년, 1993. 12. 15)

자료 : 이호철, 1995.

☞ 영상매체의 시대, 우리는 날마다 깔깔대며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TV를 왜 ‘바보상자’라고 부를까요?

TV를 ‘보물상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활동 19 활동수첩 기록하기

활동개요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이 의도했던 목표에 잘 도달하였으며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들이 적절하고 효율성이 있었는지, 참여자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는지 그리고, 각 과정에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평가해 본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고 ‘활동수첩’을 기록하게 하여 자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활동목표

- 1) 활동수첩을 잘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고 주요사항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2) 적극적·자율적·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는지 자아평가를 해본다.
- 3)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잘 평가하여 이후 새로운 계획수립에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한다.

- 1) 활동수첩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미리 제작해서 준비한다.
- 2) 기존의 활동 자료집의 내용을 실용성을 위주로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활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다.
 - 크기와 모양 : 수첩 크기 정도로 하여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하거나 끈을 달아서 목에 걸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필기도구도 수첩에 함께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목에 걸 수 있는 필기도구를 따로 마련한다. 전체 프로그램 평가를 쓰게 하는 페이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 나중에 활동을 마칠 때 청소년들이 찢어서 제출할 수 있게 한다.
 - 내용
 - 기본사항 : 활동명, 활동 일정표, 활동장소(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참가인원, 지도자와 참가자 명단(주소록, 학교, 별명, 특징 등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메모란,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공간, 싸인란 등), 조직체계, 분과구성 상황
 - 활동자료 : 활동주제 이해를 위한 기본 자료, 활동개요 소개, 각 단위활동 내용과 준비사항, 활동과정에 필요한 자료(강연내용 요약본, 참고문헌 등), 더 심화된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함께 부르는 노래, 율동 방법,
 - 평가내용 : 각 단위활동별로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 각 단위활동별로 세부 항목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는 표(준비도, 흥미도, 난이도, 참여도 등),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쓰는 공간,
 - 기타 기록란 : 일기란(하루하루의 계획, 활동과정과 반성, 기타 의견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공간), 기타 다른 단위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기록형식(회의기록장, 토론기록장 등)

[과정 2] 활동수첩 활용하기

- 1) 청소년들에게 활동수첩을 나누어주고 사용법에 대해 설명한다.
- 2) 청소년들은 활동수첩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각 활동과정에 참여할 때마다 해당란에 필요한 표시와 기록을 한다.
- 3) 마지막 날 전체 평가를 쓰는 페이지는 찢어서 지도자에게 제출한다.
- 4) 활동수첩은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간직하면서 필요한 자료 도움을 받는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의 연락처, 도움이 되었거나 재미있었던 활동 전파하기 등)

유의사항

- 1) 활동수첩을 기록할 때는 단순히 필기도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쁜 스티커를 붙이거나 색연필로 칠하는 등 흥미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평가표는 재미있고 귀여운 다양한 디자인을 고안한다.
- 2) 청소년들이 기록을 생활화하여 모든 과정에 자신의 의지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활동수첩 내용 중 평가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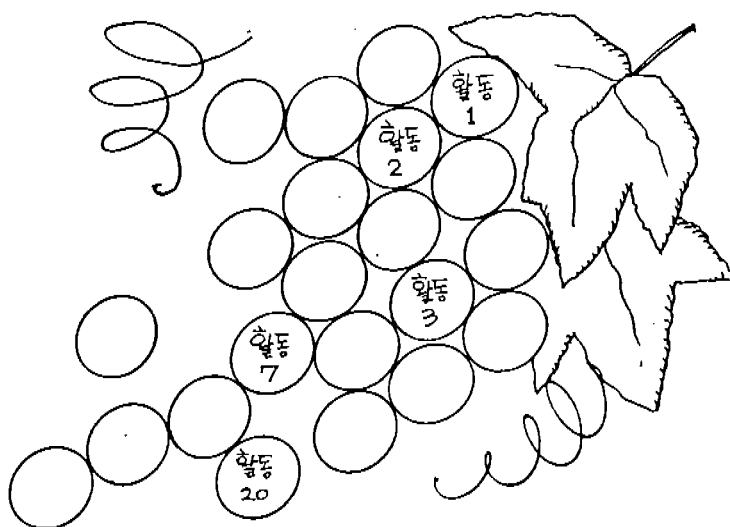
1) 평가표 1.

- * “나는 열심히 참여했는가?” 란은 스티커로 붙이게 한다. 활동 시작 전에 세 가지 색깔(빨강, 파랑, 노랑)의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1인당 25개 정도 배당되도록 여건에 따라 달리하기) 스티커 모양은 동그라미나 별표, 하트모양, 클로버 모양 등 예쁘고 귀여운 것으로 준비한다. 한 활동을 끝낸 후에는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참여 정도에 따라 스티커를 붙인다. (이주 열심히 참여했으면 빨강, 중간정도는 파랑, 참여가 부진했다고 생각하면 노랑색을 붙이는 등)
- * “의견” 란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건의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을 쓰게 한다.

활동과정	평가	준비는 잘 되었 는가?	수준은 적절했 는가?	흥미있는 내용이었 는가?	나는 열심히 참여했 는가?	의견
토론기법 익히기	상				☆	
	중					
	하					
이야기 광장	상				🍷	
	중					
	하					
자유 발언대	상				♡	
	중					
	하					
지역사회 조사하기	상				♣	
	중					
	하					

2) 평가표 2.

* 활동을 끝낸 후 자신이 판단한 참여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따라 색깔을 칠하고 예쁘게 꾸미게 한다.



활동 20 영상기록 관람하기

활동개요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상영하고 관람함으로써 활동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중요한 활동과정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여 여건이 되면 배경음악과 대사 등을 삽입하여 하나의 영상극을 만들어 봄으로써 영상활동에 대한 기술도 익히고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재미있는 평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활동목표

- 1) 토론활동을 되돌아 봄으로써 평가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찾아본다.
- 2) 영상매체의 활용법을 익히고 다룰 수 있다.

준비사항

사진기, 슬라이드 필름, 녹음기 2대, 녹음테이프, 건전지, 환등기, 영사막, 자막이 필요한 경우 자막을 만들 재료(종이, 필기도구 등)

활동방법

- 1) 특징적인 활동장면을 잘 포착하여 슬라이드 필름을 넣은 사진기로 촬영한다. 촬영은 사진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슬라이드에 사용되는 필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름보다 색반응이 민감하여 색채현상이 뛰어난 ‘컬러리버설 필름’이 사용된다.(일반적으로 슬라이드용 필름이라고 통칭된다) 이 외에도 일반필름 중 ASA 400의 필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명이 약한 곳에서 촬영할 때 효과적이다.
- 2) 제목이 들어갈 첫장면과 제작진이 들어갈 끝장면을 만들어 찍는다. 글자를 직접 쓰거나 그림을 그려도 되고 배경 사진 위에 글자를 새겨도 된다.(영상극으로 구성할 때 필요한 단계)
 - 제목 : 도화지에 글씨를 써서 벽에 붙여 놓고 찍기, 운동장에 커다랗게 글씨를 쓰고 옥상에서 찍기, 자갈·나뭇잎에 글씨쓰고 찍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만든사람들 : 구성원이 작업하는 모습을 찍고 역할과 이름을 도화지에 써서 벽에 붙여 놓고 촬영한다.
 - * 자막용 포스터, 주제 타이틀, 자료화면 등을 촬영할 때는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 바로 옆의 그림자 안에서 촬영하면 반사광, 역광 등이 방지된다.
 - * 필요한 자료가 비교적 작은 크기의 것일 경우 줌렌즈를 이용한 확대촬영을 하거나 혹은 OHP 필름 위에 적절한 크기로 확대복사하고 OHP 필름을 그대로 잘라서 마운트를 입혀 사용한다.
- 3) 슬라이드 필름을 사진관에 맡겨서 현상한다. 하루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둔다.
- 4) 현상된 필름을 보고 활동과정의 특징적인 장면을 잘 포착한 필름을 중심으로 전체영상을 구성한다. 필름을 쭉 훑어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꼭 필요한 장면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한다.
마지막 장면은 전체 참여자들의 모습이나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

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면으로 구성하여 전체 활동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분위기를 갖게 한다.

- 5) 최종적으로 필요한 필름을 점검하여 사진관에 맡겨 마운트를 씌운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마운트를 따로 구입하여 필름을 끼울 수도 있다.(마운트 : 필름을 환등기에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마운트 작업이 다 되었으면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 6) 슬라이드의 각 장면에 따라 적절한 음악과 대사를 녹음한다.(배경음악, 효과음 등)
- 7) 슬라이드를 상영한다.
환등기, 영사막, 녹음기, 녹음테이프를 준비하여 발표를 한다. 커튼을 쳐서 주위를 어둡게 하고 적당한 위치에 영사막과 환등기를 설치하고 미리 시험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슬라이드 배열 순서와 위, 아래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슬라이드 넘기는 시기와 녹음기의 음향이 나오는 시기가 맞도록 충분한 연습을 한다. 배경음악(음향)은 가급적 자막의 뒷편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 8) 청소년들은 조용히 관람한다.
- 9) 슬라이드를 통해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했던 과정들을 되돌아 보고 각자의 느낌과 소감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점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한다.

유의사항

- 1) 슬라이드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제작하거나 기본 필름을 분과별로 나누어주고 분과별로 개성있는 영상극을 구성하게 할 수도 있다.
- 2) 녹음할 때는 방음이 잘되는 조용한 곳을 택하여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녹음하기 전에 녹음실 문 앞에 '녹음 중'이라고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녹음할 때는 녹음기 2대를 준비해야 한다.
- 3) 본 활동에서는 슬라이드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여건이 된다

면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슬라이드 활용법

1) 슬라이드(slides)

사진이 촬영된 35mm 필름이나 투명필름에 그림을 그려넣은 것을 한 프레임(frame)씩 끊어서 영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2) 슬라이드의 특성

- 영화나 비디오에 비해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 화면을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함께 시청할 수 있다.
- 대량 복사가 가능하다.
- 촬영 이후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처리기법으로 표현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필름 서로 겹치기, 젤라틴 끼워 색조정하기, 글자 넣기, 필름에 유성물감 칠하는 방법 등)
- 제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각각의 독립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재배열이 가능하다.
- 속도조절이 가능하다. 임의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장면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고 앞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할 수도 있다.
- 다른 매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녹음자료, 영화필름, 또는 여러개의 다른 슬라이드 등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정사진(still)으로 이루어짐으로 한 컷(cut)의 화면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이미지와 정보 전달에 있어 관객이 그것을 수용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 자료보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 장면을 통해 여러 가지를 판단하거나 과장된 생략으로 관람자의 상상을 유도할 수 있다.

- 영화처럼 동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다.
- 차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순서가 바뀌거나 분실 우려가 있다.
- 개별용 슬라이드 환등기(audioviewer)를 제외하고는 안막장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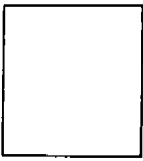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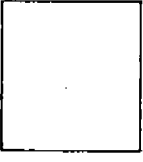
3) 슬라이드 제작 과정

① 기획단계 : 목적과 주제, 담을 내용을 결정하고, 사진촬영, 스크립트 작성, 예산과 자료제시 등의 담당자를 선정한다.

② 콘티(story board) 작성 : 화면구성은 약화로 제시하고 화면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과 촬영상의 유의점 등을 밝히고, 해설은 중복없이 이해하기 쉬운 명료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녹음과 음향효과 등의 지시를 기입한다.

- 콘티 작성 용지 : 일정한 규격이나 양식은 없지만 대개 4인치×6인치, 또는 8인치×10인치의 두꺼운 독서카드 용지에 장면번호, 장면의 간단한 스케치, 내용설명, 촬영기법 및 카메라 앵글 등을 써서 나열해 놓고 구체적이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재배열, 첨가, 제거 등의 편집작업을 한다.
- 스크립트 작성 :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는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스크립트의 양식은 대개 8인치×10인치 정도의 종이에 4~5장 면씩 세로로 작성하면 된다. 보통 좌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왼쪽에 화면설명을, 오른쪽에 해설(naration)과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쓴다. 화면의 왼쪽 위에는 장면번호가 들어가며, 아래에는 촬영할 장면이 스케치나 그래픽으로 나타낼 타이틀과 자막이 들어간다.

〈그림 Ⅲ-1〉 스크립트 작성

제 목				
Cut No.	화 면	지 시	나 레 이 셴	녹 음
		C/L, B/W 삽화, 실사, 복사		시간 : 초
		C/L, B/W 삽화, 실사, 복사		시간 : 초
				시간 :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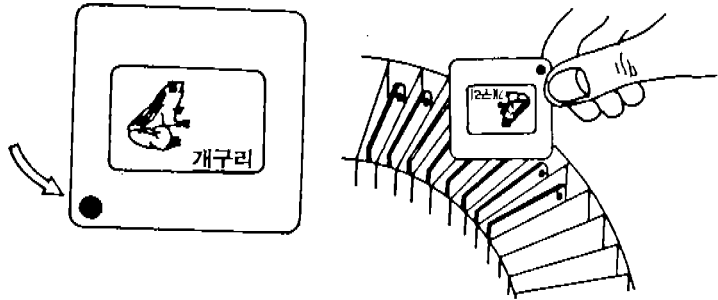
③ 촬영 및 현상 : 촬영은 콘티에 적혀있는 번호 순서대로 찍기 보다는 한 장소에서 찍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한꺼번에 촬영을 한다. 사진촬영이 끝난 장면은 각 장면의 번호, 촬영횟수, 셔터 스피드, 조리개, 장소 등을 기록하여 로그 시트(log sheet)를 작성해 두면 노출이 적당하지 않거나 다시 촬영을 하게 될 경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촬영한 필름은 필름현상소에 맡기면 마운트까지 되어 나오는데, 흑백 필름이나 컬러 리버설(reversal)필름의 경우 현상약품을 구입하여 직접 현상할 수 있다.

④ 마운팅 : 슬라이드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지 않고 직접 현상했을 경우 마운팅을 해야 하는데 마운팅의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카드보드와 플라스틱이 있다. 현상된 필름의 각 프레임을 따로따로 자른 후 마운트를 벌려 필름을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킨 뒤, 플라스틱 마운팅의 경우에는 열려있는 한 쪽을 마운트 프레서(mount presser)로 눌러준다. 슬라이드를 바로 보이도록 놓고, 왼쪽 아래 구석을 펀치로 뚫어 주거나 색연필로 표시를 해 놓는다. 이것은 슬라이드를 트레이일러에 끼울 때, 엄지손가락으로 잡게 되는 부분(thumb

spot)이 된다.

〈그림 III-2〉 슬라이드의 thumb spot



⑤ 편집 : 마운트한 슬라이드를 조명상자(light box) 위에 놓고 검토해 본다. 노출과 구도가 좋은 슬라이드를 대본 순서대로 나열한다. 상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image area)에 필요없는 가장자리가 찍혀져 나왔으면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검정색 테이프를 반듯이 잘라 붙여서 수정해 준다. 장면을 삭제하거나 첨가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슬라이드 장면에 맞게끔 콘터를 다시 써야 한다.

⑥ 녹음 : 슬라이드가 편집된 후에는 녹음과정이 필요하다. 녹음이 없이 발표자가 직접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어 활용하면 슬라이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녹음을 할 때는 슬라이드 화면을 바꾸기 위해 실로폰, 또는 기타 다른 음으로 제시하여 줄 수도 있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신호를 테이프에 기계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슬라이드의 화면이 바뀌게 할 수도 있다. 슬라이드 한 장면에 대한 해설은 5~10초가 좋으며 20초 이상이 되면 지루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4) 슬라이드 기체의 활용

① 물적 준비 : 낮시간에 영사를 하려면 실내를 어둡게 하기 위한 암막 장치와 스크린이 필요하다. 암막은 흔히 검은 종이나 천으로 만든다. 완전한 암실에서는 기계의 조작이 불편하므로 파이롯트 램프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될 수 있는 대로 학습자의 책상에도 이런 장치를 하면 좋다.

② 환기 : 실내 영사를 할 때는 환기장치가 필요하다.
 ③ 좌석 : 의자는 전면 중앙에 스크린을 장치하게 되므로 스크린을 향해서 45°의 각도로 배치해야 한다.

④ 전원 : 전원은 환등용과 전등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사하려고 불을 끌 때 환등기의 영사 전구도 불이 꺼지게 되므로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⑤ 환등기 설치 : 환등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에 앉은 사람의 머리 그림자가 스크린에 비치게 되므로 환등기는 중앙의 제일 좋은 좌석에 놓는다.

⑥ 전선 : 전선은 반드시 영사대의 다리에 매어 둔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전선을 잡아 당긴다든가 발에 걸렸을 때 환등기가 책상이나 영사대에서 굴러 떨어질 염려가 있다.

5) 스크린의 종류와 유의점

환등의 화면은 영화와 같이 매우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영사막은 스크린이 좋으나 벽지도 쓸 수 있다. 스크린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흰천 (뿔 수 있으면 주름이 잡히지 않은 것, 밝은 색)

② 모조지 또는 켄트지

③ 흰칠을 한 칠판 (둘레를 검게 만들면 더욱 효과적)

④ 흰벽 : 스크린은 되도록 적은 광선을 흡수하면서 되도록 많이 반사하는 것이 좋으므로 여러 가지의 칠을 하여 반사율을 높이로 혹은 반사각도를 조절하는 등 연구할 필요가 있다.

⑤ 반사식 스크린 : 스크린 표면에 극히 작은 요철을 만들어 광선을 정리하고 다시 미세한 렌즈상의 가루를 칠해서 더욱 정리하여 정면(영사기)에서 오는 광선이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않고 바로 정면의 일정한 각도 안에 반사되도록 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두꺼운 천으로 한 스크린을 반사적 또는 데이라이트 스크린이라고도 말한다. 적은 인원에게 보이는 데 편리하다.

⑥ 투과 스크린 : 반사식 스크린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나 유리나 셀룰로이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스크린의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주간 영사나 반암실 영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좌우가 바뀌므로 좌우 조절용 렌즈가 필요하며, 슬라이드 환등 시에는 슬라이드를 보통 때와 좌우를 반대로 해서 끼우면 된다.

이러한 스크린의 위치와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암실이 완전하면 정면에 다는 것도 좋으며 교실의 모퉁이에 다는 것도 좋다.

② 관람자가 스크린을 볼 때, 그 시선의 양각이 13.5° 이상이어야 하며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다.

③ 관람자의 맨 앞줄은 스크린으로부터 스크린의 길이의 1.5배 이상의 거리를 가져야 한다.

④ 관람자의 맨 뒷줄은 스크린으로부터 화면 넓이의 6배 이내의 거리이어야 좋다.

⑤ 관람자의 중앙에서 좌우 각 45° 이내일 때가 좋다.

⑥ 데이라이트 스크린(Day Light Screen)이나 투과식 스크린은 중앙선에서 30° 이내이어야 한다.

⑦ 반사식 스크린은 밝은 빛이 들어오는 쪽에 세워 광선을 차광하고 어두운 스크린을 장치한다.

6) 영사할 때 주의할 점

① 영사 전에 반드시 시사를 해서 내용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시사를 할 때, 불필요한 환등화는 빼거나 영사할 때 재빨리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거나 할것을 결정해야 한다.

② 영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스크린의 화면의 쏫점을 맞추고, 영사를 시작할 때는 실내등을 켜 채로 환등기의 모터스위치와 램프 스위치를 넣은 다음에 실내등을 꺼야하며, 영사가 끝났을 때는 이와 반대로 실내등을 켜고 환등기의 램프 스위치와 모터 스위치를 꺼야 한다.

③ 충분한 크기로 영상을 영사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울을 이용해서 빛이 나가는 길이를 연장시켜 영사하면 좋다.

7) 특수효과

① 슬라이드로 주제 자막 극자를 영사하고 싶을 때는 OHP 필름에 원하는 글씨를 쓰거나(유성펜으로 쓴다) 복사하여 그 필름에 마운트를 입혀 영사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일반 네거필름의 자투리를 이용하여 대끄러운 부분에 뾰족한 송곳 등으로 긁어서 글씨를 새기고 영사한다

② 원하는 무늬를 영사하거나 조명장치 대응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셀로판지 위에 검정색 마분지를 원하는 무늬로 오려서 마운트를 입히고 영사한다.

③ 이미 촬영된 필름 위에 글씨를 놓고 싶을 때는 OHP 필름에 필요한 글자를 인쇄하여 촬영된 필름 위에 겹쳐 놓고 다시 마운트를 입혀 영사한다.

자료 : 권성호, 1990 ; 김종석·이해명, 1990 ; 권성호, 1990 ; 박노열, 1992; 신각균, 1990.

참 고 문 헌

- 강인재 외(1995),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 서울:한겨레신문사.
- 강천구·최민수 편저(1991), 지방의회 회의운영, 서울:중앙출판사.
- 경실련(1992),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서울:비봉출판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95), 우리서울 이렇게 바꾸자, 서울:비봉출판사.
- 교육부(1993), 민주시민 지도자료, 서울:교육부
- 권성호(1990), 교육공학원론, 서울:양서원.
- 권이중(1992), 사회교육개론, 서울:교육과학사.
- 권효섭·이합희(1992), 지방자치제를 위한 의회식 회의 진행법, 서울:송원문화사.
- 김안제 외(1994),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박문각.
- 김인자 역(1993),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서울: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재구(1986), 집단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문현사.
- 김종석·이해명(199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형설출판사.
- 김해식(1993), 글쓰기 소프트, 서울:새길.
- 김훈순(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NIE)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인쇄매체, 서울:한국언론연구원.
- 나라정책연구회(1995),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길벗.
- 놀이연구회(1991), 가슴펴고 어깨걸고 1.2, 서울:우리교육.
- 대한 YMCA 연맹(1993), 전국 YMCA가 함께 전개하는 환경보전 생활실천지침.
- 더불어출판기획실·진옥섭 편저(1991), 북치고 장구치고, 서울:동녘.
- 박갑수(1995), “토론의 언어와 표현—고운말 쓰기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대한 YMCA연맹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연구원.
- 박노열(1992), 사회교육방법론, 서울:형설출판사.
- 박성호(1994), 지역사회의 토론문화 형성을 위한 YMCA의 과제, 천안: YMCA.
- 변영애(1993), 매스컴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서울:들불.
- 부천 YMCA(1995), '95 청소년 토론의 광장 자료집 “신세대 문화! 우리가 만

든다”, 부천: YMCA.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5), 정보화사회에서의 건전 청소년 문화 육성 방안 -컴퓨터 게임과 컴퓨터 통신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체육부.

새생활연구회(1993), 대화를 잘하게 되는 책, 서울: 진화당.

서영진(1993),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구조전환을 위한 실증적 모색, 서울: 나남.

서우선(1992),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서울: 법문사.

서정수(1991),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서울: 한강문화사.

성심여대사회과학연구소(1993),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참여와 발전을 위한 105개 정책제언, 서울: 형성사.

송호범 엮음(1983), 소모임 활동 입문, 서울: 풀빛.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편(1994),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서울: 한울.

신각균(1990), 현대교육공학론, 서울: 교육출판사.

안양 YMCA(1995), “95청소년토론의 광장 자료집 “광복 50주년과 청소년 문화”, 안양: YMCA.

연성수(1990), 창조하는 공동체놀이 1.2, 서울: 아침.

우리교육(1992), 신나는 놀이, 즐거운 학교, 서울: 우리교육.

우리교육(1995), 열린 교육을 위한 총체적 언어학습, 서울: 우리교육

우리교육 편(1990년 3월호~1995년 11월호), 우리교육: 서울: 우리교육.

윤재근(1988), 문화토론프로그램, 서울: 정음사.

이신행(1986), 토론없는 시대의 토론, 서울: 전예원.

인천도덕교사모임(1994),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덕수업, 내일을 여는 책.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90), 교사용 특별활동지침서, 서울: 미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생사업국(1990), 학생자치활동 1.2, 서울: 푸른나무.

전영우(1995), “토론의 실태와 방법”, 바람직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연구원.

전택부(1995), “토론 문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원류”, 바람직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연구원.

정선심·조성민 역(1994), 가치교육-가치분석의 이론적 근거, 교수전략, 교수과정, 서울: 철학과 현실사.

정재현(1990), 고등학교학생회, 서울: 돌베개.

- 정지웅·최상호(1988),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 교학연구사.
- 정화영, 전정태(1991), 실기교육방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중앙일보사(1995), 중앙일보 NIE 자료집 ① 신문—살아있는 교과서, 서울 : 중앙일보사
- 지방자치실무연구소(1994), 생활정치 현장리포트 의정활동 모범사례로 본 지방자치, 서울 : 대륙출판사.
- 지방자치실무연구소(1995),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 공약, 서울 : 사계절.
- 천안 YMCA(1995년 여름호), 충남청소년, 천안:YMCA.
- 최형규(1994), 즐거운 토론교실, 내일을 여는 책.
- 한국교육개발원(1993 a),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생용 민주시민교육자료,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b),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생용 민주시민교육자료,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3 c),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운영,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4), 민주시민교육,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1988), 사회교육방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1994), 소년대 대활동 프로그램집, 서울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한국사회학회 편(1994),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 나남출판사.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198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백과, 서울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5), “정보화사회에서의 건전 청소년문화 육성방안 : 컴퓨터 게임과 컴퓨터 통신을 중심으로”, 서울 : 문화체육부
- 한승희 외(1993), 모의법정활동,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승희·황창순(1993), 모의지방의회활동,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승희 외(1994), 바른시민생활활동,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함병수 외(1994 a), 집단지도론,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함병수 외(1994 b),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1995 World Youth Leaders Conference (1995), The 1995 World Youth Leaders Conference, Seoul : Kyung Hee University.

Gerald M. Phillips(1979), Group Discussion : A Practical Guide to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논 문〉

- 김상철(1993), “구조적·비구조적 소집단 토의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철선(1993), “유아의 친사회성 증진을 위한 토론수업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송길원(1991), “소집단 토론이 도덕판단 수준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종길(1993),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 :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엄태항(199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육왕무(1994), “토의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범희(1994), “한국 지방자치 하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병재(1990),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포항시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석희(1991),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재(1993),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일석(199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제고 방안—거제지역의 주민참여 의식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 정수원(1989), “우리나라 민주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토론과 자치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1991), “지방시대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방안”,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출처〉

- I. 「원숭이들」: 정채봉(1994), 생각하는 동화 ② 내가슴속 램프, 샘터
- II. 「배추」: 이호철(1995),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보리
- III. 「아버지」: 문학교육연구회(1990), 희망이라는 종이비행기, 연구사
- IV. 「경쟁」: 이호철(1995),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보리
- V. 「어린왕자」: 생텍쥐페리·함미경 역(1986), 어린왕자, 을지출판사
- VI. 「경비아저씨」: 이호철(1995),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보리
- VII. 「강자와 약자」: 정채봉(1994), 생각하는 동화 ② 내가슴속 램프, 샘터
- VIII. 「텔레비전 귀신」: 이호철(1995),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보리

부 록

■ 토론자료

■ 세 개의 사과이야기－논리적 사고를 위한 토론자료집(도덕·윤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1990), 푸른나무)

▶ 이 책은 세계와 인생에 대해 고민하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토론자료집’으로 기획되었다. 여러 분야 각기 다른 주제의 글들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그 예문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토론거리를 덧붙였다.

▶ 차례

1부 관점의 문제

사물의 연관성 / 상식의 재검토 / 관점의 문제 / 자아의 발견 / 현상과 본질 / 역사를 보는 눈 / 윤리의 본질 / 존재와 자유 / 상황토론 인간의 존엄성 / 세상을 배운다는 것

2부 주체적인 삶

공동체 의식 / 모두를 위한 삶 / 주체적인 삶 / 진정한 행복 / 참사랑에 대하여 / 소중한 친구 / 우리 어머니 / 가솔에 대하여 / 학교생활에 대하여 / 이웃에 대한 관심

3부 다시보는 우리사회

구조적 모순이란 / 노동문제 / 농민문제 / 도시빈민 문제 / 여성문제 / 교육문제 / 공해문제 / 핵문제 / 문화에 대한 재검토

4부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민족정기 / 민중의식 / 민족정신에 대하여 / 역사적 삶 / 허위외식의 극복 / 통일을 위하여 / 학생활동 / 새로운 삶

■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가슴을 열어주는 국민학교 토론수업(이중현 외(1992), 푸른나무)

▶ 책의 체제

- 1) 토론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 주제와 길잡이 제시
- 2) 주제와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주거나 읽힐 수 있는 ‘함께 생각할 이야기’
- 3) 실제 토론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의 초점, 토론 방식의 예, 토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토론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 4) 토론할 때 보충하거나 토론할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우화, 동화, 놀이, 노래 등의 보충자료

▶ 월별 토론 계획표 (토론주제 : 토론거리 : 토론자료)

3월

- 민주적인 선거절차 : 반장후보는 어떻게 정해야 올바를까
- 스스로 하는 공부 : 숙제를 재미있게 할 수는 없을까
- 참다운 친구 : 참다운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
- 진정한 아름다움 :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

4월

- 바람직한 주변 활동 : 학교에는 어떤 주변이 필요할까
- 올바른 친구관계 : 집안형편에 따라 끼리끼리 어울려야 할까
- 유익한 소풍 : 우리가 바라는 소풍은 어떤 것일까
- 과학기술과 인류 :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일까

5월

- 공동체 놀이 : 좋은 놀이란 어떤 것일까
- 부모에 대한 열등의식 : 궂은 일을 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운가
- 건강한 노래 : 우리에게 유행가가 알맞은 것일까
- 노동의 가치 : 노동의 참다운 가치는 무엇일까
- 정다운 이성친구 : 남자와 여자는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없나

6월

- 가치있는 삶 : 잘난 사람만 쓸모 있는 세상인가

- 핵의 위험 :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 통일 :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까
- 생명 존중 : 사람이 살려면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7월

- 성차별 : 남자와 여자는 차별을 해야 할까
- 환경오염 : 일회용은 편리하고 좋기만 할까
- 바람직한 여름보내기 :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 올바른 선거 : 올바른 선거는 어떤 것일까
- 상의 바른 의미 : 어떻게든 상만 받으면 되나

9월

- 바람직한 학교 : 우리들이 바라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
- 참다운 경쟁 : 참다운 경쟁이란 무엇일까
- 더불어 사는 삶 : 여러사람이 힘을 모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 수입개방 : 쌀을 수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10월

- 우리말 사랑 : 마구 쓰는 외국 말, 어떻게 할까
- 조기 영어교육 : 국민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워야 하나
- 참된 글 좋은 글 : 남의 글을 베끼거나 거짓으로 꾸며 글을 써도 될까
- 신체 장애아 : 신체장애아와 정다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월

- 아이들의 문화 : 우리가 좋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 체벌 : 꼭 때를 맞고 벌을 서야 잘못을 깨우칠까
- 약속 : 지키기 힘든 약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직업의 귀천 :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것이 있을까

12월

- 인내심 : 우리들은 정말 참을성이 없는 걸까

- 소외된 이웃 : 우리의 즐거움 속에 가려진 이웃은 없을까
- 이웃에 대한 참사랑 : 이웃을 돕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
- 즐거운 가족놀이 :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놀이는 어떤 것일까

2월

- 교복 : 우리도 교복을 입어야 하나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에 높낮이가 있는 것일까

■ 즐거운 토론교실(최형규(1994), 내일을 여는 책)

▶ 체 계

- 1) ‘읽어 봅시다’ : 30개의 토의 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마다 문제제기를 위한 글을 실어놓았다.
- 2) ‘생각해 봅시다’ : 사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주제마다 생각할 점 제시.
- 3) ‘참고해 봅시다’ : 각 주제에 필요한 참고자료
- 4) ‘도움글’ : 주제에 대한 저자의 관점

▶ 즐거운 토론시간

〈교육〉 과외 〈사회〉 순결 〈농업〉 쌀개방 〈사회〉 학력 제일주의 사회 〈언론〉 광고 〈윤리〉 친구란? 〈교육〉 자율학습 〈문화〉 신세대 문화 〈교육〉 체벌 〈법〉 언론과 인권 〈교육〉 대학 교육 〈여성〉 성 차별 〈환경〉 골프장과 환경 〈문화〉 일본문화 개방 〈사회〉 사회제도 〈청소년〉 비행청소년 〈언어〉 한글전용 〈지리〉 답사 〈과학〉 진화와 창조 〈교육〉 조기교육 〈과학〉 인간복제 〈문화〉 우리 것과 모방 〈경제〉 휴일 〈관광〉 한국 방문의 해 〈환경〉 핵 〈경제〉 평등과 효율 〈윤리〉 이기주의 〈사회〉 낙태 〈민족〉 통일 〈역사〉 서재필

■ “세상을 넓고 깊게 보는 주제별 엮어 읽기”(강혜원, 우리교육 1994년 12월)

- ▶ 내용 : 아래의 주제들에 관련된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읽기 자료와 매체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1. 학교 생활이야기, 우리 교육의 현실 : 우리 학교의 현실, 학교생활에서 빚어

- 지는 크고 작은 일, 감동과 슬픔, 바라는 학교의 모습들이 담긴 읽기 자료
2.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 인간의 삶에 대해 고민한 철학책들, 인간이 지닌 가능성, 인간의 심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
 3. 가족의 소중함 :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읽기 자료
 4. 사람들이 사는 모습 :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문학작품 중심으로 제시
 5. 성장의 의미에 대하여 :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의미를 묻게 하는 읽기 자료
 6.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까 : 진로문제에 대한 자료
 7. 즐겁게 노래하고 놀고 싶은데 : 건강한 놀이를 가르쳐 주고, 고운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읽기 자료
 8. 성과 사랑 : 성교육 관련 자료, 사랑을 주제로 한 자료, 여성 문제를 다룬 자료
 9. 이렇게 살다 간 사람들 : 실제했던 인물의 생애를 다룬 전기들
 10. 우리 역사를 찾아서 :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훑어보는 자료
 11. 인간의 역사, 세계의 역사 :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사 이해
 12. 분단과 통일 : 분단의 상처를 점검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자료
 13. 전쟁과 핵과 인류의 미래 : 전쟁의 아픔과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다룬 자료
 14. 한국의 문화 유산 : 우리 문화 유산을 소개한 책과 영상자료
 15. 우리 사는 사회는 :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자료

■ “토론 및 논술을 위한 주제 모음”(교육정보센터, 우리교육 1995년 9월)

1.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윤리와 종교)

주 제 :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

도움말 : 인간이 일상적인 삶 속에 안주하여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만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실들의 상호관계와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이 부딪히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자신이 서 있는 세계와 역사 속의 존재의미 상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주 제 : 삶이 파편화·개인화 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정리

도움말 : 현대사회와 같이 물질생활, 정신생활에 있어서 타인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만 하는 시기에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많은 개인이 각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의 삶조차 보호·보장될 수 없다.

참고문헌 : 「한국 사회와 시민의식」(황경식, 문음사)

주 제 : 개인의 행동이 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향

도움말 : 개인의 의견이 종합되어 전체의 의견이 되는 것이고,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에 함양해야 한다.

주 제 :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나의 의견

도움말 : 찬성(아만스럽다, 형벌의 목적은 교육이다, 사형은 점죄에 대한 위협의 수단이 아니다, 인간의 재판에는 오판이 있을 수 있다 등)과 반대(특정한 사회가 사형을 요구할 때에는 별 도리가 없다, 인과응보에 따라 극악한 죄에는 사형밖에 없다 등) 의견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주 제 : 뇌사 인정 찬반에 대한 견해

도움말 : 찬성(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뇌사 인정으로 장기를 이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과 반대(심장의 박동이 멈추어야 죽은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장기 이식을 위하여 뇌사로 거짓 판명을 내릴 수도 있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느 것이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가까운 것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

주 제 : 낙태에 대한 찬반론이 일어나는 배경과 자신의 견해

도움말 : 찬성(결과적으로 불행한 생명이 탄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과 반대(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살인행위이다)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주 제 : 한국사회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역할

도움말 :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 ‘세대차이’는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6,70년대의 고도성장 세대와 8,90년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세대 사이에 세대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한다. 사회문화적인 성장과정의 이해 속에서 접근한다.

주 제 :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도움말 :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 제 :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와 역할

도움말 : 현대의 가족관계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을 현대에 맞게 조명해야 한다.

주 제 : 현대적 의미의 효도

도움말 : 효도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대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 찾아보라

주 제 : 인간의 본성(성악설, 성선설)에 대한 나의 의견

도움말 : 인간의 본성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한다.

2. 문화를 보는 바른 눈

주 제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서구인들은 ‘야만적’이라고 비난한다. 이 같은 비난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도움말 : 서구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것이 분명히 ‘야만적’으로 보일 것이지만 우리에게만 수천년동안 내려온 식생활 습관일 뿐이다. 그

렇다면 누구의 관점이 옳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야말로 문화를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찬성(문화의 특수성이다, 문화는 자연환경의 산물이다, 하나의 음식문화로서 이해해야 한다. 야만적이라는 주장은 문화의 상대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대(동물 학대행위이다, 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애완용이다, 외국의 사례·외국의 동물협회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한 내용 등을 인용, 국제화 시대에 문화도 국제화되어야 한다)

주 제 : 일본문화 수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도움말 : 일본문화 수용 찬성론(문화의 국제화 개방화 과정)과 반대론(무분별한 저절문화의 수용, 미죽문화의 정체성 상실 등)을 비교·분석해 보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주 제 :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자세

도움말 : 전통문화의 뜻, 필요성, 바람직한 자세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외래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 것이라서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뛰어나니까 창조적으로 계승하자는 것이다.

주 제 : 우리주변에서 외래적 요소가 다분히 문화현상을 골라 이를 주체적 수용의 측면에서 논하라.

도움말 :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과정, 우리의 현대시나 현대소설에 끼친 서구의 영향 등에 대해 이를 주체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 제 : 오늘날 놀이문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조적인 놀이문화’에 대해 논하라

도움말 : 대중음악과 외래의 춤, 전자오락, 화투, 카드놀이 등에 포함된 소비성과 폐쇄성, 개별성, 향락성에 대해 지적하고, 비생산적인 놀이문화의 비판을 통해 생산적 측면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이 때 오늘날의 사회가 산업화된 대중사회라는 점과 자신의 체험 속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성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채희완, 한길사)

주 제 : 공연윤리위원회의 활동과 그 정당성 또는 부당성

도움말 : 표현의 자유를 대폭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정당성과 제한할 경우 그 근거와 제한 기준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한다.

참고문헌 : 「껌테기를 벗고서」(이영미, 동녘)

3. 함께 사는 세상 (사회일반)

주 제 :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18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

도움말 : 현행 선거권의 연령(만20세)의 문제점, 20세로 정한 이유를 따져보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18세로 낮추는 법적인 근거(독립되었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점, 법적인 책임 등), 18세로 낮출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을 알아보자.

주 제 : 지방자치선거에 중앙당의 개입

도움말 : 지방자치의 의미, 현대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를 파악한 후 중앙당의 개입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주 제 : 기업체에서 여사원을 채용할 때에 ‘용모 단정한 자’라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도움말 : 반대입장(남녀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행위, 용모는 업무 능력과 무관), 찬성입장(자유경쟁 사회에서 사원 채용의 권한은 기업에게 있다)

주 제 :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나의 견해

도움말 : 지역 이기주의 뜻, 지역 이기주의의 실상(구체적인 예), 지역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한다.

주 제 : 학력간 임금 격차

도움말 : 반대 입장(임금은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인지 학력에 따른 것이 아니다), 찬성입장(학력에 대한 보상, 미래에 대한 기대)

주 제 : 북한의 이질화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주장되어 왔으며, 그 논리는 정당한다

도움말 : 이질화 문제는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요소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질화를 실감하는 주체, 이질화의 실제 모습, 변화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질화 논리는 남한 사회의 현재를 잣대로 삼은 일방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리영희, 두레)

주 제 : 여성해방 이론이 전개돼야 할 바람직한 방향

도움말 :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은 남성 자신의 인간성 또한 억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녀 전체의 인간성회복, 즉 인간해방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주 제 : 민주주의 실현은 제도의 구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움말 :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힘은 제도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주체의식, 합리적 이상과 판단에 의한 비판과 참여정신, 개인적 편익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세, 불의와 위력에 굴하지 않는 진취적인 자세 등
참고문헌 : 「삶, 사회 그리고 국가」(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녘)

4. 정보화사회와 언론

주 제 : 정보 테크놀로지가 인간 사고의 형태와 수준에 끼치는 영향과 그 극복 방향

도움말 :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지는 정보의 홍수는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퇴화시키거나 개성신장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기계에 대항할 수 있는 예술적 창조성, 고정된 사고를 벗어날 수 있

는 자유로운 지성의 강조 등 정보기기 사회에서 갖추어야할 미덕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문헌 : 「미래를 묻는다」(한국미래학회 편, 나남출판사)

주 제 : 언론의 쌍방 통행성의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장치와 언론 수용자로서의 태도
도움말 : 신문이나 방송의 독자투고란, 음부즈맨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독자 혹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뿐 아니라 이들이 내놓은 정보에 대해 항상 진위와 숨은 의도를 추론하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주 제 : 매스컴이 지배하는 대중사회에서 젊은이들의 가치관 형성과정을 비판하라
도움말 : 인간 존재를 물질적 가치 속에 몰입시켜 자기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 「제3의 물결」, 「권력이동」(앨빈 토플러)

5. 우리의 뿌리를 찾아 (역사)

주 제 :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필요한가

도움말 : 총독부 건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총독부 건물의 철거하는 것과 철거하지 않을 경우의 민족정기는 차이가 있는가 등을 다룬다.

주 제 :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정

도움말 :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 그 교훈과 정신을 깨닫게 됨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시대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를 주체의식과 실천의식을 바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민을 주체로 과거와 오늘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려는 실천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천적 주체의지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표와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주 제 : 식민사관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까닭과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

해 취해야 할 자세

도움말 : 식민사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민족 정신의 말살에 있었다. 스스로를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게끔 치밀하게 조작되고 과장된 역사를 수십년간 접한 결과, 무엇이 과연 식민사관인지조차 구별해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일제치하에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이 여전히 식민사관을 보존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사연구가 깊이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낡은 인적 요소의 교체, 언론의 계몽, 현재의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가 예전의 식민사관과 어떻게 접맥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참고문헌 : 「우리 역사와의 대화」(한영우, 을유문화사)

주 제 : 광복 이후 반민족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민족자들이 광복 이후 이 땅의 주역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도움말 : 반민족자 처벌은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일에 해당한다. 반민족자들이 이 땅의 주역으로 다시 나선 배경은 정치 지배세력의 반대공작, 미군정의 점령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 제 : 각 민족은 저마다 독특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민족성이란 어떻게 형성되며, 민족성과 관련한 편견은 없는지 논하라.

도움말 : 민족성은 그 민족이 처한 여러 조건들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민족성이 여러 외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면 조건의 변화에 따라 민족성 또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 특수한 민족성을 타고 났고 그것은 고정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6. 되살려야 할 지구 (환경)

주 제 : 환경오염과 그 대비책

도움말 : 오염의 문제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그 대책을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주 제 :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보호

도움말 : 현대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과학기술과 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주 제 :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산업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 문제보다는 개인·집단 이기주의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도움말 :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넘비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는 자신의 생활환경을 지키려는 기본적 욕구의 발로라는 측면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팽팽히 맞선다. 꼭 필요한 환경시설의 경우 안전을 위한 철저한 설비와 관리, 주민과의 끈질긴 협의, 공해산업 중심의 현행구조를 바꾸는 일, 상품생산과정부터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일, 국민의식의 전환 등에 힘써야 한다.

참고문헌 : 「철학과 현실」(조홍섭, 1990년 여름호)

7. 성장의 문 앞에 선 청소년과 교육

주 제 : 자아형성과 청소년기의 과제

도움말 : 청소년은 무한한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다.

주 제 :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그 예방방안

도움말 :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그 피해를 나타내는 자료를 찾아서 분석해 보고, 대책을 수립해 보자. 전문가들이 지적한 예방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 제 : 고입 선발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도움말 : 고입선발고사, 평준화, 선지원 후시험, 복수지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신문, 잡지 등에 나온 전문가의 의견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주 제 : 학교 우열발 편성에 대한 나의 의견

도움말 : 우열발 편성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펼 수 있어야 한다.

주 제 : 대입 기여 입학제에 대한 나의 의견

도움말 : 기여 입학제의 정의란 무엇인가, 외국의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게 될 경우에 교육평등의 차원에 위배되지 않는가 확인해야 한다.

주 제 : 요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필요성

도움말 : 찬성(모자라는 학습량이나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과 반대(입시를 위한 전단계로 이루어지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학습자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

- ▶ 참 고 : 프랑스 바칼로레아 논술시험문제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에 해당)
- 학자들은 현실의 법을 정의하고자 하고 예술가들은 모든 법을 무시하려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철학은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가
 - 칸트의 이성과 행복에 관해 논하라
 - 인간 사회에 정당한 폭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
 - 망각은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인가
 - 진리는 항상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종교에 대한 믿음은 이성과의 결별을 뜻하는가
 - 사고를 깊이 잘하려면 아무것도 사랑해서는 안되는가
 - 인간은 왜 비인간적일 수 있는가
 - 과학발전은 왜 종교의 소멸을 가져 오지 않는가
 - 비이성적인 것은 항상 부조리한가
 - 일반 이익은 개별 이익의 총체라 할 수 있는가

■ 지역사회 공개토론활동 관련 영상자료

▶ 청소년교육선교회(1990), 청소년교육 소개 비디오 :

- 1) 교육개발원 방송자료실, 「대화의 광장」 (1),(2),(3) :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 폭넓은 대화가 필요함을 알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음.
- 2) 교육개발원 방송자료실, 「우리들의 이야기」 (1), (2), (3) : 청소년의 당면과제를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

▶ 한국청소년연맹(1993), 시청각 자료목록집

- 1) 「비민주적 생활방식과 생활태도」(50분, 삼화 프러덕션, 1990) : 1945년 해방 후 민주주의에 익숙치 못한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했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착각했다. 편견이나 독선, 그리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서로의 자유와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 2) 「민주주의 이념과 생활방식」(30분, 삼화 프러덕션, 1991) : 자유·평등·사회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고 이성을 근간으로 협동이 이루어지며 공공복지 및 법질서가 확립되어 다수와 소수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인 것이다.
- 3) 「스위스의 지방자치제」(60분, KBS 영상사업단, 1990) : 지방자치제의 선진국인 스위스의 지방자치 제도는 어떠한지 구조와 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고, 30년 만에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 4) 「세계의 지방자치제도」(총 3편, 각 50분, KBS 영상사업단, 1990)
- 5) 「선진국에서 배우는 지방자치 일본」(60분, MBC 프러덕션, 1991) : 일본의 아이치 현과 히로시마시의 지사 및 시장 선거 취재를 통해 일본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배울 점, 비판할 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 6) 「선진국에서 배우는 지방자치 미국」(60분, MBC 프러덕션, 1991) : 미국 북서부 포틀랜드시와 미 동북부 버몬트주 여러 마을의 지방자치 모습을 통해 주민자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지방자치의 원형을 알아본다.
- 7) 「민주주의 회의」(60분, 한국청년회의소 제작,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보관, 1990) : 자유·민주주의적 회의 진행방법의 절차를 가르치고, 의견형성 및 발표력의 개발을 통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 역량의 배양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교육한다.

- 8)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나」(30분, 매일 신문사 제작, 대구 수성중학교 보관, 1991) : 신문의 취재, 편집과정을 담았다.
- 9) 「청소년의 주장」(120분, KBS 영상사업단, 1989) : “이런 일에 생애를 걸련다”, “이 시대가 부르는 젊은이 상”, “2천년대의 나와 우리 사회”,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해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 지향적인 주장을 도출해 본다.
- 10) 「세계의 교육, 그 현장을 가다」(총 21편, 각 60분, MBC 프러덕션, 1989) : 영국, 미국, 일본, 헝가리, 독일, LA교포,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대만, 이태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위스, 프랑스 등의 교육.
- 11) 「최불암의 청소년 문화기행」(총 20편, 각 30분, MBC 프러덕션, 1991 - 1992년 제작)

■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 참여와 발전을 위한 105개 정책제언(성심여대사회과학연구소(1993), 형성사)

▶ 환경, 청소, 자원

주제 1.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추구하여

- 제언 1. 생활과 환경을 중시하는 발전을 지향하자
- 제언 2. 지역사회에 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자.
- 제언 3. 종합적인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하라
- 제언 4. 환경피해 구제는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 제언 5. 환경교육은 새로운 사상 보급 운동이다.
- 제언 6. 합성세제 추방을 위해 민간환경 운동을 지원하라
- 제언 7.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세워라
- 제언 8. 어릴 때부터 청소교육을
- 제언 9. 쓰레기줄이기 비상작전
- 제언 10. 버리면 쓰레기 회수하면 자원
- 제언 11. 리사이클(자원재생) 행정에 신사고를!

▶ 문화, 사회교육, 학교교육

주제 2. 특색있는 지방문화를 꽃피우자

제언 12. 문예진흥은 시민참가와 대동(大同)을 원칙으로

제언 13. 사라져가는 역사를 기록하자

제언 14. 국경을 넘어 교류의 망을 넓히자

제언 15. 「국제문화센터」를 설립하여 국제화에 대비하자

제언 16. 문화재단(기금)을 설립하여 「문화의 나무」를 키워 나가자

주제 3. 사회교육을 지방자치의 중요과제로 인식하자

제언 17. 지역사회 전체를 배움터로, 모든 시민을 학생으로!

제언 18. 사회교육은 충실하고 활력있는 사회창조의 촉매이다.

제언 19. 지역의 인재와 유희시설을 사회교육을 위해 활용하자

제언 20.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써 시민회관을 활용하자

제언 21.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활동의 센터로

제언 22. 주민생활의 거울, 지역생활 박문관을 만들자

제언 23. 청소년을 자연 속에 돌려주자

제언 24. 사회교육 종합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자

제언 25. 자주학습 연구활동, 시민사회의 활력을 키우자

주제 4. 지역교육과 교육의 인간화를 앞당기자

제언 26. 지역교육회의 설치하여 교육자치 앞당기자

제언 27. 지역사회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자

제언 28. 지역간 자매학교 결연과 국내유학을 장려하자

제언 29. 교육은 인간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이다

제언 30.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생활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자

제언 31. 교원들의 자주연구활동을 지원하자

제언 32. 학교교육에 환경교육을 도입하자

건강 및 복지

주제 5. 모든 시민에게 건강을

제언 33. 평생건강 계획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자

제언 34. 주민의 건강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자

제언 35. 모자보건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제언 36. 레저, 스포츠를 위한 사회체육시설을 증설하자

- 제언 37. 응급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자
- 주제 6. 체계화된 평생복지를 제공하자
 - 제언 38. 어린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 제언 39. 가정에서 어린이를 잘 기르도록 도와주자
 - 제언 40. 탁아소를 설립하여 어린이를 보호하자
 - 제언 41.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자
 - 제언 42. 노인에게 사는 보람을
 - 제언 43. 자원을 재활용하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만들자
 - 제언 44. 장애인에게 사회참가의 기회를 제공하자
 - 제언 45. 장애인 가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자
 - 제언 46. 장애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자
 - 제언 47. 도시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자

- 주제 7. 복지서비스를 자기 집에서도 받도록 하자
 - 제언 48. 나눔과 만남의 복지사상을 개발하여 보급하자
 - 제언 49. 복지센터를 설립하자
 - 제언 50.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기준으로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자
 - 제언 51. 시민들의 복지활동을 육성하여 자원봉사 인력은행을 설립하자

▶ 소비자보호

- 주제 8. 주민의 경제주권을 세우자
 - 제언 52. 지방의회는 「소비자권리선언」을 결의하자
 - 제언 53.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뒷받침하자
 - 제언 54. 상품표시 기준설정하여 안전하고 값싼 상품을 제공하자
 - 제언 55. 지방자치 정부는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점포와 「소비자 보호협정」을 체결하자
 - 제언 56. 「소비 생활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상담, 소비자교육, 상품테스트를 실시하자
 - 제언 57.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하자
 - 제언 58.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조직화를 추진하라

▶ 여성의 사회참여

주제 9. 남녀공동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제언 59. 여성드에게 고용기회의 확대를

제언 60.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라

제언 61. 포괄적인 성차별 철폐교육을 실시하자

제언 62. 여성 인력은행을 만들어 여성고용을 촉진하자.

▶ 근로자 복지

주제 10.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적극 뒷받침하여야

제언 63. 「근로자의 집」을 만들자

제언 64. 협조적인 노사관계는 정확한 노동·임금·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제언 65. 기능직인을 표창하고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자

제언 66.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공제사업을 추진하라.

제언 67. 노동자를 위한 문화정책을 펴라

▶ 자치행정

주제 11. 분권,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을 펴라

제언 68.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라

제언 69. 정보없이 참여없다. 정보를 공개하자

제언 70. 프라이버시(사생활)를 보호하자

제언 71.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조하자

제언 72. 주민에게 접근하는 행정이되자

제언 73.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자

제언 74.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는 행정을

제언 75. 주민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자

제언 76. 연구하는 자치행정인이 되자

제언 77. 행정부패의 방부제, 공무원 노조를

제언 78. 행정감시관제(Ombudsman) 도입하여 조직악을 치유하자

제언 79. 상호학습하는 민주공복을 길러 내자

제언 80. 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제언 81. 건전재정운용에 힘쓰자

- 제언 82. 기업경영적 행정을 펼쳐 나가자
- 제언 83. 비능률행정에 도전하자
- 제언 84. 행정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자
- 제언 85. 대의민주제를 살려내자
- 제언 86. 도덕성과 청렴을 우리의 대표로
- 제언 87. 주민들의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지원하자

▶ 도시와 지역개발

주제 12. 지역개발은 인간척도에 맞도록

- 제언 88. “생활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에 노력하자
- 제언 89. ‘아메니티(Amenity)의 도시공간’을 창출하자
- 제언 90. 공유(생활도로) 공간의 확대를 피하자
- 제언 91. 교통문제의 해결에 체계적 사고를 하자
- 제언 92.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 제언 93. 주거환경의 개선에 노력하자
- 제언 94. 토지의 공개념을 생각하자
- 제언 95. 임대주택 정책을 체계화하자
- 제언 96. 토지를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 제언 97. 민족의 안전띠 그린벨트를 지키자
- 제언 98. 푸르름이 숨쉬는 도시를
- 제언 99. 중수도를 개발·활용하자
- 제언100.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만들어 가자
- 제언101. 지역산업을 활성화하자
- 제언102.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자
- 제언103.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자
- 제언104. 중심지구에 매력과 활력을
- 제언105.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자

■ 그 외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는 자료

KBS '95 비디오 가이드

MBC '94 프로그램 가이드

강성혜(1995), 자녀와 함께하는 비디오 여행, 김영사
 서울 YMCA (1992),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120
 서울 YWCA 시민이 뽑은 좋은 비디오
 서울 YWCA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신동성(1993), SBS 비디오 가이드, SBS 프로덕션
 어린이 도서연구회(1992), 토끼와 거북이·거북이와 토끼, 우리교육
 우리누리 지음(1995), 세상보는 눈을 키워주는 어린이 시사마당 1~3권, 중앙일보사
 유동걸 외(1995), 재미있는 사설읽기, 두리
 이만기. 이기호. 박종렬(1995), 사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바로출판사
 인천도덕교사모임(1994), 아이들과 함께하는 도덕수업 1.2,내일을 여는 책
 전국역사교사모임(1995), 우리역사, 어떻게 가르칠까, 푸른나무
 청소년교육선교회(1990), 청소년교육 소개 비디오
 컴퓨터 통신 천리안. HYTEL
 한국청소년개발원(1992), 독서교실활동
 한국청소년연맹(1993), 시청각 자료목록집
 한국환경교육협회(1995), 환경교육 시청각자료집 1. 2. 3

